

2021-2022

통상백서



KOCHAM
미한국상공회의소



통상백서 발간에 즐음하여

올해로 설립 30주년을 맞이한 미한국상공회의소(이사 KOCHAM)은 1992년 설립 아래 한미 양국 간 경제협력과 무역증대 활동을 강화하고자 미국 내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습니다.

KOCHAM은 미국 진출 기업들의 친목과 정보교환 등 초기 활동에서 한미 무역증진과 미국정부에 대한 통상 관련 건의 및 교섭 활동으로 폭을 넓혀 왔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7년 만에 처음으로 15%를 넘어서는 등 어려운 관문을 한고비 넘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 통상 정책의 흐름 변화가 감지되고 있고 특히 디지털 무역에 대한 새로운 협정 대비와 장기 코로나-19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불어,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4차 산업혁명 들 대내외 많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역을 둘러싼 경쟁이 나날이 격화되는 환경에서 KOCHAM은 우리 기업들의 대미진출 현황과 투자 현황 자료와 각종 통상 비즈니스 애로사항에 대한 서한을 백악관으로 발송하며 통상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다져왔습니다.

올해는 장기화된 코로나-19와 더불어 오미크론이라는 특수하고 제한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적극적으로 KOCHAM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또한 KOCHAM은 미국 내 주요지역 한국지상사협회들과 연계하는 주지역협의체(KOCHAM USA)를 구축하며 미국진출 한국 기업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올해 여덟 번째 발간되는 [2021-2022 KOCHAM 통상백서]는 KOCHAM의 역량 강화와 통상 이슈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매우 뜻 깊은 책자라 생각합니다.

책자 발간을 위해 힘써 주신 KOCHAM 출판분과위원회와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KOCHAM은 앞으로도 미국 내 한국 기업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통상 개선 활동과 더불어 권익옹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지속하며 해외기업협의체의 새로운 모델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1월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회장

김태우

목 차

발간사

I. 미국 시장 개황

1. 일반	10
2. 정치	15
3. 경제	16
4. 산업구조	17
5. 미국 시장 특성	19

II. 미국 경제 현황

1. 실물 경제	24
(1) 개요	24
(2) GDP 성장률	25
(3) 경기	26
(4) 고용시장	31
(5) 주택시장	33
2. 금융 시장	36
(1) 금리	36
(2) 주가	38
(3) 환율	39
3. 대외 거래	42
(1) 수출입 총괄	42
(2) 주요 국가별 수출입	44
(3) 주요 품목별 수출입	46
(4) 한미 교역 현황	48

4. 한미간 투자 현황	54
(1) 일반	54
(2) 한국의 업종별 대미 직접투자	56
(3) 투자자 규모별 대미 직접투자	58
(4) 투자 비율별 대미 직접투자	58

III. 국제 통상이슈

1.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정책	62
(1)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정책 추세	62
(2)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정책 내용 및 전망	62
2.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지속	66
(1) 미국의 대중국 무역정책 가시화	66
(2) 미국과 중국의 관계 현황	67
(3) 전망 및 한국기업에 주는 시사점	70
3. 코로나19로 인한 국제통상질서의 변화	72
(1) 코로나19에 따른 통상 환경의 변화	72
(2) 코로나19 이후 통상 환경의 변화 전망	74
(3) 국제 물류대란의 배경, 현황 및 전망	76
4. 디지털무역 동향과 시사점	83
(1) WTO 전자상거래 협상-통합문서의 구성과 내용	83
(2) COVID-19 이후의 전자상거래 중요성	87
(3) 디지털 통상규범에 대한 통찰	90
5. 환경과 무역	91
(1) 탄소국경조정 제도	91
(2) USMCA-환경규범	94
(3) WTO의 TESSD 출범	97
(4)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98

IV. KOCHAM 회원사 애로사항

1. 물류 대란에 따른 애로사항	102
(1) 배경	102
(2) 한국 회사들에 대한 피해 상황	103
(3) 개선 요청 사항	104
2. 팬데믹과 구인난	105
(1) 배경과 구인 애로사항	105
(2) 향후 전망과 요청 사항	106
3. 주재원 비자 발급	108
(1) 애로사항	108
(2) 개선 요청 사항	109
4. 美 철강 쿼터 '품목 예외' 지속적인 수급 차질	110
(1) 배경	110
(2) '품목 예외' 인정	111
(3) '품목 예외'의 애로사항과 전망	112
5. 기타 애로 사항	113
(1) 상무부의 회사 부품/완제품 정보 요구	113
(2) 한국산 수산물 대미 수출 제한 예상	113
(3) 군수품목 자료 열람 라이센스 발급 검토 기간	114

V. 미국진출 우리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1. 삼성전자	116
2. POSCO 아메리카	117

VI. 미주지역협의체 개요

각 지역별 협회 소개	122
-------------	-----

VII.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활동사항

ENGLISH SECTION

Difficulties Facing Korean Companies Operating In the U.S.	134
---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f Korean Companies Active in the U.S.	150
---	-----

About consultative Korean Chambers in the U.S.	156
---	-----

Activities of KOCHAM	162
----------------------	-----

I 미국시장 개황

1. 일반
2. 정치
3. 경제
4. 산업구조
5. 미국 시장 특성

1. 일 반

(1) 지리적 요건

미국의 정식 국가 명칭은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으로 미주대륙 북부에 위치해 있다. 면적은 983만 3,517㎢(한반도의 약 45배, 남한의 95배)으로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 세계 국토 면적 3위이다. 미국은 50개 주와 특별구(워싱턴 D.C.)로 구성되어 있으며, 괌, 푸에르토리코, 사모아 제도 등 해외속령과 국제연합의 신탁통치령인 마샬제도, 캐롤라인제도 등을 보유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대서양, 서쪽으로는 태평양, 남동쪽에는 카리브해와 접해 있다. 북쪽으로는 캐나다와 8,893㎢(알래스카 국경 2,477㎢ 포함) 길이의 국경을 이루고 있고 남쪽으로는 멕시코와 3,155㎢ 길이의 국경을 접하고 있다.

(2) 기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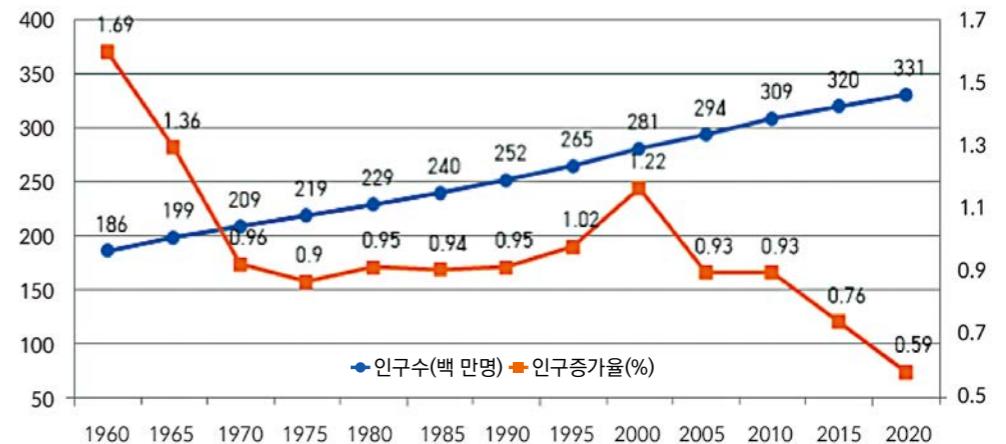
미국은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은 국토 면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답게 다양한 기후대를 가지고 있다. 북위 40°선을 중심으로 한 온대에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따뜻하지만 남북의 위도 차가 24°가 나는 대륙인 만큼 기후 차이가 심하다. 본토의 남쪽은 아열대성 기후, 서쪽은 지중해성 기후, 서남쪽은 사막기후, 동북쪽은 온대성 기후를 보이고 있으며 하와이는 열대성 기후, 알래스카는 한대성 기후를 형성하고 있다.

(3) 인구

2021년 12월 미국 전체 인구는 약 3억 3,297만 명으로 세계 전체 인구 약 78억 743만 명의 4.2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중국(약 13억 9,789만 명), 인도(약 13

억 3,933만 명)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다(한국 약 5,182만 명). 2021년 전년대비 인구증가율(추정치)은 0.7%이며 평균 수명은 80.43세(남자 78.18세, 여자 82.65세)이다. 전체 인구의 약 82.9%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요 도시로는 뉴욕, 로스엔젤레스, 시카고, 휴스턴, 피닉스 등이 있다. 남부와 서부의 '선 벨트' 지역이 미국 전체 인구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인구수 및 인구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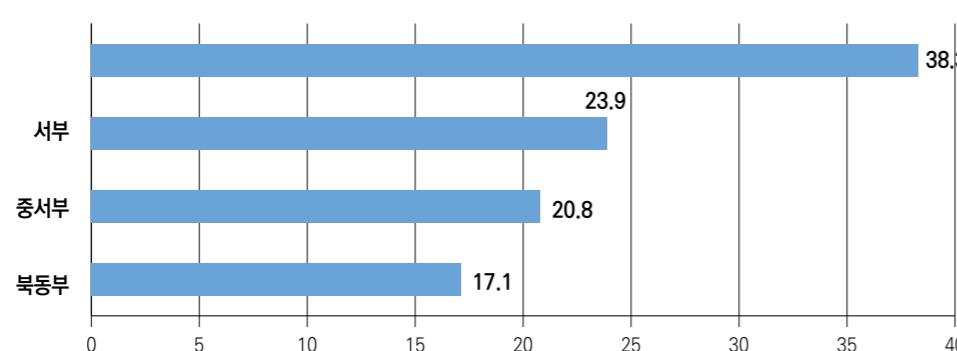
▲ 자료 : 유엔 경제사회국(UN DESA, 2020)

미국 주요도시 인구(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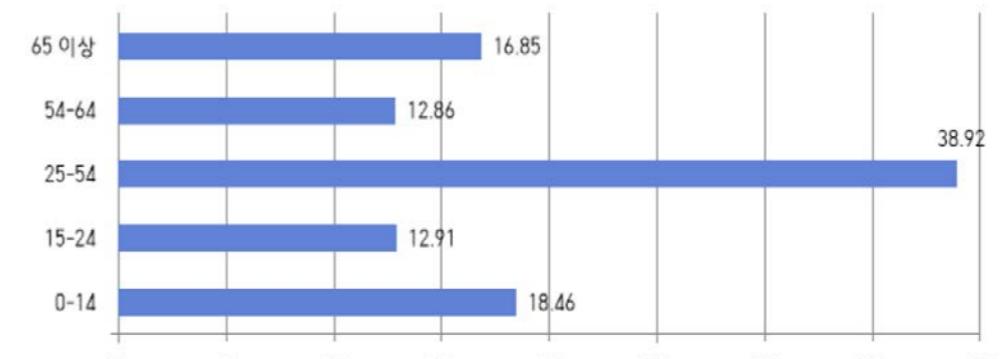
▲ 자료 : 미센서스국(2020)

미국 지역별 인구 분포(%)



▲ 자료 : 미센서스국(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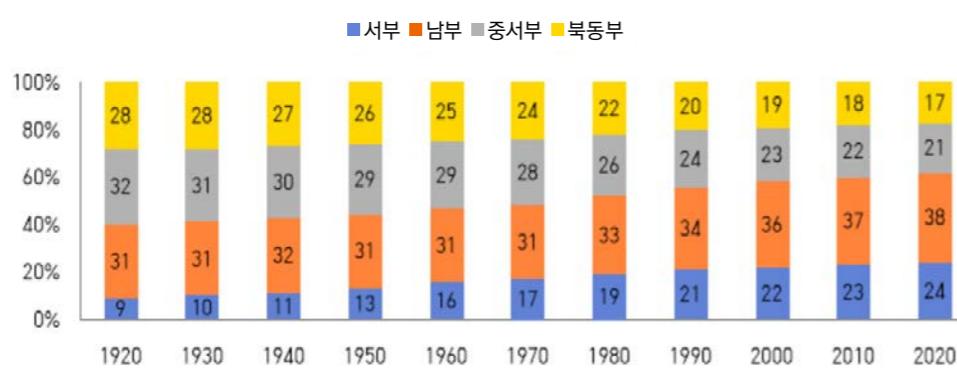
연령별 인구분포(%)



▲ 자료: CIA World Factbook(2020 추정치)

(4) 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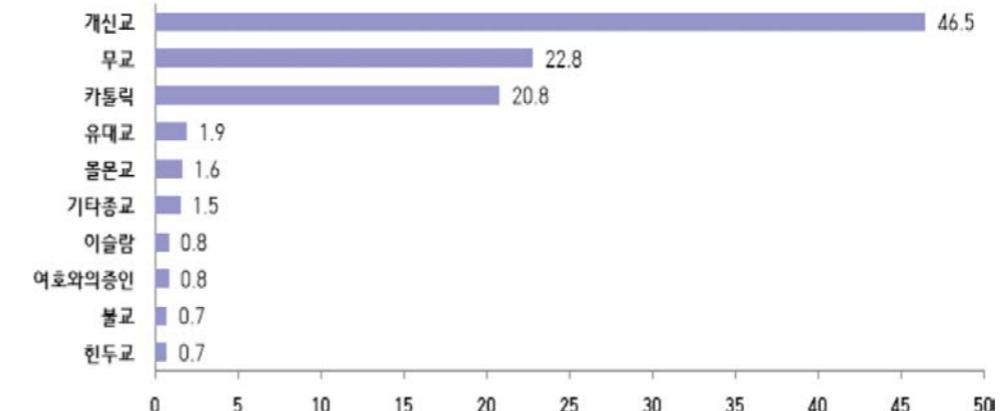
미국 지역별 인구 분포 변화



▲ 자료 : William H. Frey(2020)

다수의 인종과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라는 특성상 많은 종류의 종교가 있으나, 유럽 이민자들이 주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 세부적으로 개신교(46.5%)와 가톨릭(20.8%) 신자가 다수 존재하며, 유대교(1.9%), 몰몬교(1.6%), 이슬람교(0.9%), 여호와의 증인(0.8%), 불교(0.7%), 힌두교(0.7%) 신자가 존재한다.

미국 내 종교 분포(%)



▲ 자료: Pew Research Center(2016)

(5) 언어

전체 인구의 78.2%가 가정에서 영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스페인어 13.4%, 중국어 1.1%, 기타 언어 7.3%를 각각 사용하고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스페인어를 통용하고 있다.

미국 일반사항 개요

국명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수도	워싱턴 D.C.(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
면적	983만 3,517㎢(50개 주 및 특별구(워싱턴 DC) 포함)
위치	미주대륙 북부(서경 66°57'~124°44' / 북위 25°7'~49°23')
인구	3억 3,297만 명(2021년 12월 추정치)
민족	백인(72.4%), 흑인(12.6%), 아시아계(4.8%), 아메리카 인디언 / 알래스카 원주민(0.9%), 하와이 원주민/기타 태평양 섬주민(0.2%), 기타(7.1%)
종교	기독교(46.5%), 가톨릭(20.8%), 유대교(1.9%), 몰몬교(1.6%), 이슬람교(0.8%), 여호와의 증인(0.8%), 힌두교(0.7%), 불교(0.7%), 기타(1.8%), 무교(22.8%)
언어	영어(78.2%), 스페니쉬(13.4%), 중국어(1.1%), 그 외(7.3%)
국가표어	우리는 신(神)을 믿는다(In God We Trust)
국가	성조기여 영원하라(The Star-Spangled Banner)
상징	흰머리 독수리

▲ 자료: 미상무부, 미센서스국, CIA World Factbook

2. 정치

미국의 정부구조는 연방정부 및 50개 주로 구성된 연방 공화제이며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견제와 균형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 삼권분립(입법·행정·사법)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4년 임기로 선출되며 1회 중임이 가능하다. 국가정책 입안의 최고 책임자로서 의회에 법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군대 최고 통수권자, 조약 체결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입법부는 상·하 양원제로 50개 주에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하원은 2년 임기로 선출되며 개별 선거구를 대표하고 상원은 6년 임기로 선출되며 2년마다 3분의 1에 해당하는 의원들을 다시 선출한다. 사법부는 연방법원과 주 법원으로 나눠진 이원적 사법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각 다른 법적 권한 및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미국 정치 개요

정부형태	연방공화국, 대통령 중심제
국가원수	Joe Biden
의회	양원제 (상원 : 100석, 임기 : 6년 / 하원 : 435석, 임기 : 2년)
주요정당	공화당, 민주당
사법체계	이원화 (연방/주)
독립일	1776년 7월 4일
UN가입일	1945년 10월 24일
국제기구가입	IMF, G-8, OECD, NATO, APEC, IAEA, WTO 등

▲ 자료: CIA World Factbook

3. 경제

미국의 경제 체제는 민간기업 자율과 정부의 통제가 조화된 자본주의적 혼합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풍부한 천연자원과 노동력, 산업기반 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기술혁신, 국내외 투자활동, 자유무역 등을 바탕으로 자본주의가 고도화되어 있다.

미국 경제 개요

국내총생산(GDP)	20조 937억 달러(2020년 명목 GD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58,510달러(2020 기준)
실질경제성장률	2.0%(2021년 3분기)
실업률	4.2%(2021년 11월)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대비): 6.2%(2021년 10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전년대비): 8.6%(2021년 10월)
환율	US\$1=1,183.00 KRW(2021년 12월 6일, 매매기준환율)
부채	28조 9,087억 달러(2021년 11월)
외환보유고	2,524억 30만 달러(2021년 10월)
연간 수출액	2조 76억 달러(2021년 9월 누적)
연간 수입액	2조 8,850 달러(2021년 9월 누적)

▲ 자료: 미상무부, 미경제분석국(BEA), 미노동통계국(BLS), World Bank

4. 산업구조

2021년 2분기 국내총생산(GDP, Value Added 기준)에서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87.9%로 전년동기대비 1.4%p 증가한 반면, 공공부문은 12.1%로 전년동기대비 1.4%p 감소하였다. 민간부문은 1차 산업(1.1%), 2차 산업(18.1%), 3차 산업(68.6%)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금융 및 부동산(21.3%), 전문 비즈니스(12.8%), 교육 및 복지(8.4%), 도매(6.1%), 소매(6.1%) 등 3차 산업 비중이 높은 반면, 농업 및 어업(1.1%), 광업(1.2%), 제조업(11.1%) 등 1차 및 2차 산업의 비중은 낮은 편이다.

미국의 GDP 대비 산업별 구성비

산업 구분	2019	2020	2021	
			1분기	2분기
국내총생산	100	100	100	100
공공 부문	12.3	12.8	12.3	12.1
민간부문	87.7	87.2	87.7	87.9
1차산업	농업, 어업, 수렵	0.8	0.8	1.0
2차산업	광업	1.4	0.9	1.1
	공공시설	1.6	1.6	1.7
	건설	4.2	4.3	4.3
	제조업	11.1	10.9	11.1
3차산업	도매업	6.0	6.0	6.0
	소매업	5.5	5.8	6.0
	운송, 물류 유통	3.2	2.7	2.7
	정보	5.3	5.6	5.7
	금융, 보험, 부동산, 대여	20.8	22.0	21.6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	12.8	12.9	13.0
	교육, 헬스 케어, 복지	8.8	8.6	8.5
	예술, 공연, 음식	4.3	3.2	3.2
	기타 서비스	2.1	2.0	1.9

▲ 자료: 미경제분석국(BEA), 9/30 발표자료

주요 산업의 생산현황(2012년=100, 산업별 부가가치 생산지수)을 살펴보면, 2009년 전체 산업생산은 경기침체의 여파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 다시 증가하였다. 민간부문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9년 119.008을 기록하였으나 2020년 114.529로 감소하였으며 2021년 2분기에는 121.357로 다시 증가하였다. 공공부문도 2020년 101.667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2021년 2분기에는 102.725로 다시 증가하면서 수요가 확대되었다.

미국 주요부문별 생산지수					
[단위: 지수(2012=100)]					
산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2분기)
국내총생산	111.229	114.475	117.096	113.109	119.16
공공 부문	101.164	102.015	102.629	101.667	102.725
민간 부문	112.474	116.061	119.008	114.529	121.357
1차산업	농업, 어업, 수렵	129.287	133.135	124.990	142.510
2차 산업	광업	120.941	121.136	135.434	121.647
	공공시설	101.224	100.875	102.103	106.381
	건설	117.231	119.956	121.588	117.208
	제조업	108.976	113.457	115.469	112.050
3차 산업	도매업	109.730	110.950	110.431	108.354
	소매업	116.680	120.389	123.395	119.834
	운송, 물류 유통	113.484	117.549	119.611	103.584
	정보	142.545	153.585	164.264	169.990
	금융, 보험, 부동산, 대여	104.288	106.100	108.176	108.494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	116.872	123.568	129.199	126.159
	교육, 헬스 케어, 복지	111.886	114.997	118.248	110.728
	예술, 공연, 음식	113.644	115.686	118.019	82.895
	기타 서비스	102.423	105.804	105.811	92.653
					95.247

▲자료: 미경제분석국(BEA), 9/30 발표자료

5. 미국 시장의 특징

(1) 일반

미국의 2020년 경상 GDP는 21,936조 달러로 전 세계 경제력의 24.7%를 차지해 세계 최대 규모의 시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수입시장 규모는 2020년 세계 수입액 19조 달러의 8.24%인 1.4조 달러를 기록해 세계 최대 수입시장의 자리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 2021년 1분기 기준 1인당 실질 GDP는 5만 7,664달러이며 GDP 대비 개인소비지출 비중이 68.2%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이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인구가 약 2억 3,124만 명이다. 일부 수입규제가 존재하지만 불필요한 규제와 진입장벽이 낮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으로 평가된다. 또한 세계에서 유입되는 다양한 인적자원과 최고의 교육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면서 기업들이 풍부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장으로 평가된다.

(2) 시장 특징 및 소비 성향

미국은 단일국가 시장이나 다양하고 복잡한 시장구조를 띠고 있다. 소득 수준, 인종, 세대에 따라 차별화된 소비패턴으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특화된 틈새시장이 병존하는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 소수 민족, LGBT 의 구매력이 확대됨에 따라 이들을 타겟으로 한 상품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베이비 부머가 출산한 15~34세의 밀레니얼 세대가 미국 시장의 가장 큰 소비층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성적 소수자인 LGBT 가 틈새 시장의 소비층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핵심적 소비층으로 부각되고 있는 Z세대를 필두로 기존의 이분법적 성별을 따르지 않으려는 ‘젠더리스(Genderless)’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기존의 유

니섹스(Unisex)에서 한발 더 나아간 중성적인 패션을 추구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남성들의 소비 증가가 여성 소비자들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면서 남성 패션 및 의류 품목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소매업체들이 소비자를 특정해서 제품과 마케팅을 제공하기 쉬워지고 있으며 소셜네트워크의 대중화로 개인화된 쇼핑경험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의 여파로 온라인 매출이 증가하면서 소비자의 구매 방식이 빠르게 디지털화되면서 온라인 쇼핑이 보편적 소비 방식으로 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들의 지폐 사용이 감소하면서 비대면 결제를 위한 가상 결제 시스템이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다.

(3) 미국 소비자 특징

미국 소비의 약 1/3을 차지하는 밀레니엄 세대는 급격한 기술의 발전, 금융위기 등을 경험하면서 이전 세대와 달리 개인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위해 소비하는 성향을 보인다. 전체 인구의 17.1%를 차지하는 히스패닉의 경우 최근 10년 내 빠른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오는 2060년에는 전체인구의 3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히스패닉 인구의 75%가 일부 지역에 집중 거주하고 있으나 향후 10년간 소비가 2배 이상 증가하여 전체 소매지출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소비자 세대별 특징

베이비 부머	현황	1946-196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 전체인구의 26%를 차지 가장이 55세 이상인 가구가 4,700만가정 정도로 주요 소비계층으로 성장 미국 전체 부의 60% 보유/ 총 소비자 지출의 40% 차지
	특징	육아지출이 사라지면서 높은 가처분소득(연간 지출액 2.3조 달러 추정) 능숙한 인터넷 사용, 적극적인 외모 및 건강관리, 각별한 손주사랑 식품(92%), 가정용품(73%), 의류(56%) 등의 성장을 주도
밀레니엄	현황	1980년대 초반-1990년대 후반 태생. 전체인구의 23.5% 차지 2020년까지 소비의 1/3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특징	구매력 상승(연간 지출액 1.3조 달러) 디지털 기기와 친숙하며, 인터넷 사용이 높은 디지털 네이티브 사회적 책임의식이 강해 자신의 신념, 가치 등이 투영되는 브랜드 구매 전문가보다는 가족, 친구, 유명인사에 따른 구매 선호 브랜드 참여도가 높고, 감각쇼핑, 편의성을 중시 2020년까지 미국 소비의 약 1/3을 감당할 것으로 예상
Z세대	현황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중반에 태어난 세대로 디지털 환경 속에 성장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2020년 전체 소비자의 40%에 이를 것으로 예상
	특징	SNS 상에서 다양한 정보 접근 경로를 통해 신중하고 실용적인 소비활동을 추구 이전 세대보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 인종, 성별 등에 관대함 공정한 생산 과정, 사회 공헌, 유기농 등 윤리적 가치를 추구하는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음 다른 선진국 대비 미국 내 Z세대의 소득 수준이 높아 미국은 Z세대를 겨냥한 마케팅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예상
히스패닉	현황	전체 인구의 17.1% 차지(2060년 31% 예상) 히스패닉 인구의 75%가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일리노이, 애리조나, 뉴저지, 콜로라도 주에 거주 향후 10년 동안 히스패닉 소비는 2배 이상 증가하여 전체 미국 소매 부문 지출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특징	젊은 연령층(히스패닉 중간연령은 27세). 구매력 상승세(연간지출액 1.2조 달러), 오감 쇼핑, 브랜드 제품 선호. 가족, 친구가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침

▲자료: 미션서스국, KOTRA

미국 소비자 그룹별 특징

	현황	미 통계청에 의하면 미국의 여성은 전체 소비자 구매력의 85%에 달하는 구매 결정권을 보유(2015년 기준)
여성 경제 시대	특징	<p>미국에서 여성경제(SHEconomy) 시대가 부상하면서 여성전용 제품과 서비스 시장의 성장 예상</p> <p>여성은 가정을 위해 내리는 거의 모든 구매 결정권과 사회생활을 병행하면서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서의 지위 확보</p> <p>건강과 행복을 위한 소비재와 의료 서비스, 피트니스 서비스 등에 관심</p> <p>다양한 여성용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p>
히스 패닉	현황	<p>전체 인구의 17.1% 차지(2060년 31% 예상)</p> <p>히스패닉 인구의 75%가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일리노이, 애리조나, 뉴저지, 콜로라도 주에 거주</p> <p>향후 10년 동안 히스패닉 소비는 2배 이상 증가하여 전체 미국 소매 부문 지출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p>
	특징	젊은 연령층(히스패닉 중간연령은 27세). 구매력 상승세(연간지출액 1.2조 달러), 오감 쇼핑, 브랜드 제품 선호. 가족, 친구가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침

▲ 미센서스국, KOTRA

(4) 미국 투자 환경

미국은 투자 규제에 대한 일반법이 없고 개별법을 따르고 있어 개별법 및 주 정부 관할 관청의 법률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외국인 직접 투자에 장벽이 매우 낮으며 단독 투자 및 합작 투자 모두 가능하다. 외국인이 기업을 인수할 경우 미 상무부에 통보해야 하며 상장기업을 인수할 경우에는 미 증권거래 위원회(SEC)에서 관여한다. 외국인 유치활동은 주 정부 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각 주 정부가 해당 주의 경제개발,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각종 세액감면, 보조금 지원, 토지 무상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II 미국 경제 현황

1. 실물 경제
2. 금융시장
3. 대외 거래
4. 한미간 투자 현황

1. 실물 경제

(1) 개요

2021년 미국 경제는 1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6.3%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보였으며 고용시장도 회복세가 지속되었다. 물가는 팬데믹 전후의 기저효과와 경제 재개 이후의 소비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승세를 기록하였다. 금리(국채 10년)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경제 성장세 확대 등의 영향으로 1분기에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였으며 2분기 들어 등락을 거듭하였다.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상승 기조를 지속하였으며 달러화는 금리상승, 경제 성장세 등의 강세 요인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의 약세 요인이 교차하면서 등락을 거듭하였다. 경제 성장률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인소비심리가 호전되면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GDP 및 주요 부문별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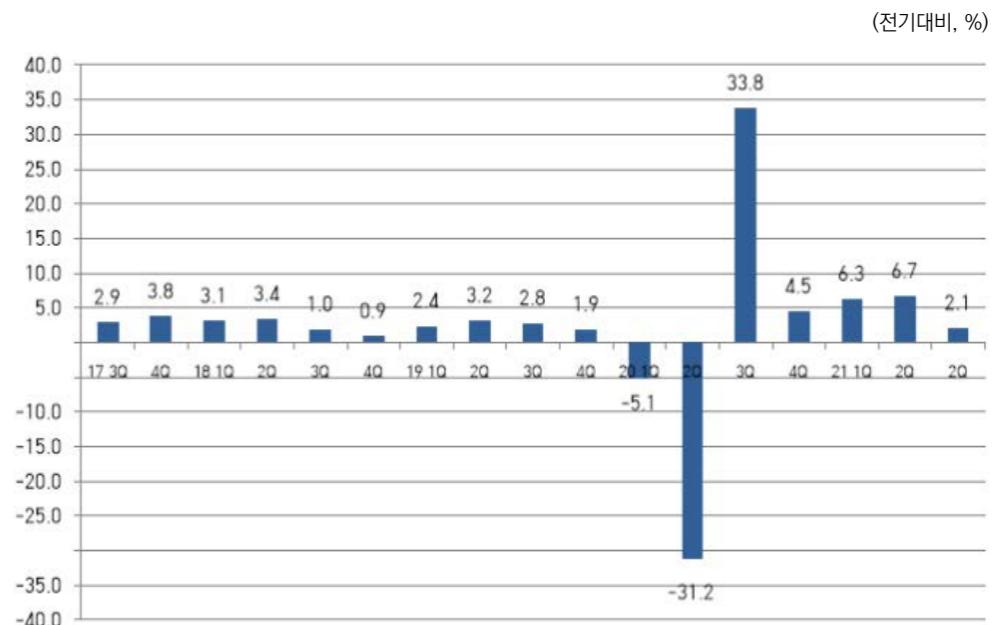
내역	2019년	2020년	2021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GDP 성장률	2.3	-3.4	6.3	6.7	2.1
개인소비	2.2	-3.8	11.4	12.0	1.7
상품	3.4	4.6	27.4	13.0	-8.4
(내구재)	4.3	7.7	50.0	11.6	-24.4
(비내구재)	2.9	3.1	15.9	13.9	2.6
서비스	1.7	-7.5	3.9	11.5	7.6
민간국내총투자	3.4	-5.5	-2.3	-3.9	11.6
고정투자	3.2	-2.7	13.0	3.3	-1.1
(비주거)	4.3	-5.3	12.9	9.2	1.5
(구조물)	2.0	-12.5	5.4	-3.0	-5.0
(설비)	3.3	-8.3	14.1	12.1	-2.4
(거주)	-0.9	6.8	13.3	-11.7	-8.3
수출	-0.1	-13.6	-2.9	7.6	-3.0
수입	1.2	-8.9	9.3	7.1	5.8
정부 소비지출	2.2	2.5	4.2	-2.0	0.9

▲ 자료: 미상무부 경제분석국, 11/24 발표자료

(2) GDP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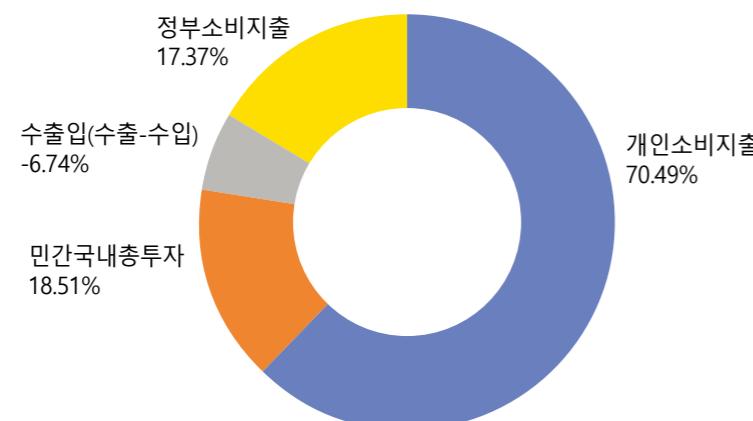
미국의 GDP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0년 1분기와 2분기 각각 전기대비 -5.1%, -31.2% 감소하며 연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전기대비 33.8%, 4.5%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세는 2021년에도 이어져 1분기에는 전기대비 6.3% 증가하였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집행하고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확대되면서 경제 활동이 재개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2분기에도 기업들의 사업장 재개, 백신 접종 확대, 정부의 대규모 지원 등의 영향으로 전기대비 6.7% 증가하였다. 3분기 들어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등의 영향으로 경제 활동이 정체되면서 전기대비 2.1% 증가를 기록하였다.

2014-2018 GDP 성장률 추이



▲ 자료 : 미상무부 경제분석국, 11/24 발표자료

주요부분 GDP 비율(2021년 3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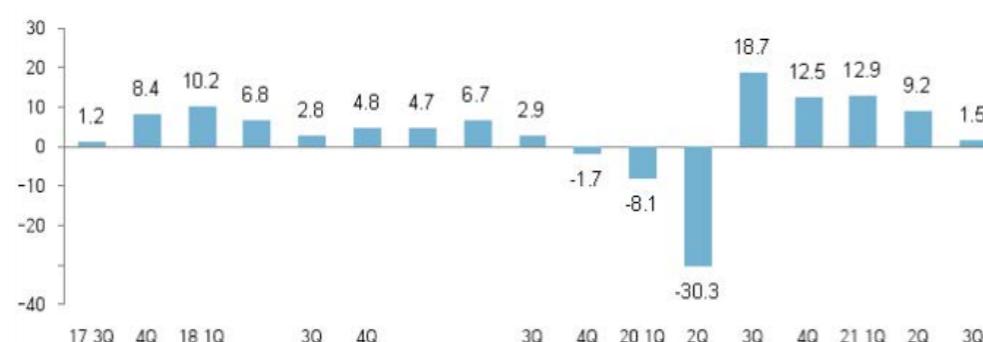
▲ 자료 : 미상무부 경제분석국, 11/24 발표자료

(3) 경기

기업 설비투자

2021년 1분기 기업 설비투자(비거주 기준)는 전년도 4분기에 비해 12.9% 증가하였다. 2~3분기 각각 전기대비 9.2%, 1.5% 증가하면서 전년도 3분기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갔다.

설비 투자 증가율(%)



▲ 주: 비주거용 고정투자(전기대비) / 자료: 미상무부 경제분석국, 11/24 발표자료

산업생산 및 설비 가동률

2021년 1월 산업생산은 전기, 가스 등 유트리티 생산이 감소하였으나 제조업과 광업이 증가하면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2월 들어 이례적인 한파의 영향으로 유트리티 생산이 증가하였으나 제조업과 광업이 대폭 감소하였다. 3월 설비 가동률이 정상화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2분기에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며 6월 제조업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서부 지역의 폭염에 따른 전기 수요 증가 및 유가 상승 등으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3분기 들어 노동 공급 부족, 아시아 주요 국가의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제약으로 증가세가 주춤하였다. 설비가동률은 1~3분기 모두 전기대비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장기(1972~2020년)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산업생산 및 설비가동률 추이

(전기대비,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산업생산	-0.8	-6.7	-42.4	44.5	8.2	4.0	6.4
(제조업)	-2.0	-5.7	-44.7	55.8	11.1	2.8	5.0
설비가동률	77.4	75.3	65.6	71.9	73.4	74.1	75.2
(제조업)	75.8	74.4	64.3	71.9	74.0	74.5	75.4

▲ 자료: 미연준(FRB), 11/17 발표자료

ISM 제조업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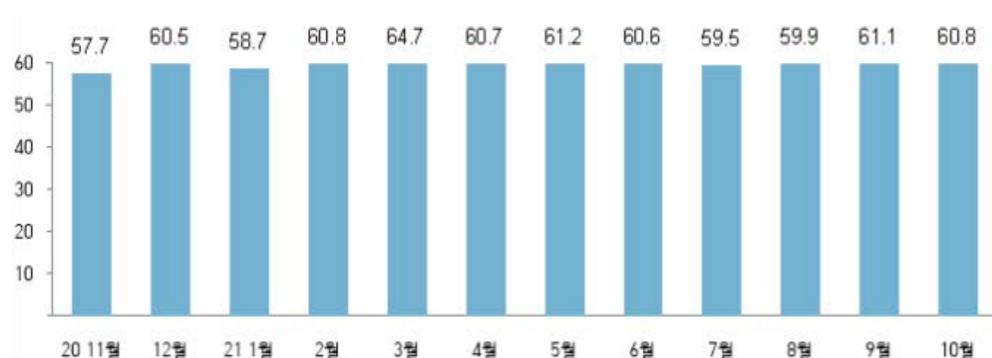
2021년 ISM 제조업지수는 기준치(50)을 크게 상회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1월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2월 중 경제활동이 점진적으로 재개되면서 2004년 5월의 61.4 이후 최고치인 60.8을 기록하였다. 3월 기업업황의 빠른 개선으로 64.7을 기록해 1983년 12월의 69.9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4월 들어 전월대비 하락하였으나 5월 다시 상승하였으며 6월과 7월 투입 원료 공급차질 등으로 인해 소폭 하락하였다. 8월과 9월 모두 전월대비 상승하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0월 전월대비 소폭 하락하였다.

ISM 제조업지수 추이

내역	2019년	2020년	2021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ISM 제조업지수	51.2	52.5	61.4	60.8	60.2

▲ 자료: 미공급관리자협회(ISM), 11/21 발표자료

ISM 제조업지수(월별)



▲ 주: 지수가 50을 넘을 경우 미국 제조업 경기 확장을, 50이하일 경우 수축을 의미

자료: 미공급관리자협회(ISM), 11/21 발표자료

개인소득

2021년 1월 개인소득은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경기부양 대책이 반영되면서 전월 대비 9.9% 증가하면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2월 전월대비 7.2% 감소하였으나 3월 추가 경기부양책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21.0% 증가하였다. 5월과 6월 각각 전월대비 13.6%, 2.2% 감소하였으나 6~8월 각각 전월대비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소비자심리

1월과 2월 소비자신뢰지수(컨퍼런스보드 기준)는 백신보급 등에 대한 기대로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약해지면서 크게 상승하였다. 3월 고용시장 개선이 예상되면서 팬데믹 이전인 2020년 3월 118.8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4월과 5월

소득여건 및 고용시장 개선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유지하였으며 6월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2020년 2월(132.6) 이후 최고 수준인 128.9를 기록하였다. 7월 경제활동의 점진적 정상화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8월 델타 변이 확산, 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로 115.2로 하락하였다. 9월 델타 변이 확산, 단기 성장 전망에 대한 우려 등의 영향으로 109.3으로 하락하였다.

개인소비 지출

개인소비지출은 2019년 말 확정된 경기부양 정책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3.3% 증가하였다. 2월 전월의 증가에 따른 반사효과, 개인소득 부진의 영향으로 감소하였다. 3월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소득증대 등으로 소비여건이 개선되면서 전월대비 5.2% 증가하였다. 4월 전월대비 1.0% 소폭 증가하였으며 5월 재난지원금 지급 축소, 물가상승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변화가 없었다. 6월 고용사정 회복에 따른 소득여건의 개선과 경제활동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되면서 서비스 소비가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1.1% 증가하였다. 7월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 구매력이 하락하면서 전월대비 0.1% 감소하였다. 8월 소득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비내구재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9월 연방정부 지원금 종료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면서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소매판매

소매판매는 2019년 말 재난지원금 지급의 영향으로 1월 전월대비 7.6% 증가하였으나 2월 계절적 영향으로 소매 판매가 감소하면서 전월대비 2.9% 감소하였다. 3월 재난지원금 지급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11.3%로 크게 증가하였다. 4월 소비 지출이 정체되면서 전월대비 0.9%로 소폭 증가하였다. 5월 전월대비 1.4% 감소하였으나 6월 백신접종 확대로 경제활동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전월대비 0.9% 증가하였다. 7월 델타변이 확산과 자동차 공급 차질, 서비스로의 소비 이동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1.6% 감소하였다. 8월 자동차, 휴발유, 식품 서비스, 건설자재를 제외한 핵심 소매판매가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1.2% 증가하였다. 9월 개학 시즌과 취업 등의 영향으로 의류, 액세서리 판매가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0.8% 증가하였다.

▶ 소매 매출 및 개인소비 추이

(단위: 전월대비, %)

구분	2020년		2021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개인소득	0.7	9.9	-7.2	21.0	-13.6	-2.2	0.2	1.2	0.3	-1.0	
소비자 신뢰지수 ¹⁾	80.7	79.0	76.8	84.9	88.3	82.9	85.5	81.2	70.3	72.8	
소비자신뢰지수 ²⁾	87.1	88.9	90.4	109.0	117.5	120.0	128.9	125.1	115.2	109.8	
개인소비지출	-0.5	3.3	-1.1	5.2	1.0	0.0	1.1	0.0	1.1	0.6	
소매판매	-1.2	7.6	-2.9	11.3	0.9	-1.4	0.9	-1.6	1.2	0.8	

▲주: ¹⁾미시건대 기준, ²⁾컨퍼런스보드 기준

자료: 미상무부, 노동통계청(BLS), 미시건대, 컨퍼런스보드

▶ PCE 물가 및 소비자물가 추이

(전년동월대비, %)

구분	2019년		2020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PCE물가	1.2 (0.4)	1.4 (0.3)	1.6 (0.2)	2.5 (0.6)	3.6 (0.6)	4.0 (0.5)	4.0 (0.5)	4.1 (0.4)	4.2 (0.4)	4.4 (0.6)	
근원 PCE 물가	1.4 (0.3)	1.5 (0.3)	1.4 (0.1)	1.9 (0.4)	3.1 (0.7)	3.4 (0.5)	3.5 (0.4)	3.6 (0.3)	3.6 (0.3)	3.6 (0.2)	
소비자물가지수 (CPI)	1.4 (0.2)	1.4 (0.3)	1.7 (0.4)	2.6 (0.6)	4.2 (0.8)	5.0 (0.6)	5.4 (0.9)	5.4 (0.5)	5.3 (0.3)	5.4 (0.4)	

▲주: ()는 전월대비(%) / 자료: 미노동통계국, 미상무부 경제분석국, 11/24 발표자료

물가

2021년 물가는 팬데믹 전후의 기저효과 및 경제 재개 이후 소비 수요 증가 등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1월 물가는 소비수요 회복, 에너지 가격 낙폭 축소 등으로 오름세가 확대되고 물가상승 기대심리도 확산되었다. 2월 수요 및 공급측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면서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3월에도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수요 증가, 기저효과 등으로 오름세가 확대되었으며 4월 이후 가파른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1월 PCE 물가는 서비스 물가 중심으로 오름세가 확대되었으며 2월 수요 및 공급측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서비스 가격 상승,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3월 빠른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수요 증가, 기저효과 등으로 재화 및 서비스 가격이 모두 상승하면서 오름세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5월과 6월 소비수요 증대, 공급 병목현상,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4월에 이어 높은 오름세를 유지하였다. 7월 에너지 가격 상승, 공급 제약 등으로 재화 가격이 높은 상승률을 지속하고 서비스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8~9월 에너지 가격 상승, 공급망 문제 등으로 재화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서비스 가격도 상승하면서 오름세가 확대되어 9월에는 1991년 1월 4.5%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4) 고용시장

고용시장은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1분기 GDP 성장률이 6.4%를 기록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인 회복세를 지속하였다. 1월 중 경기회복 속도가 둔화되면서 회복세가 약화되었다. 2월 실업률 하락, 취업자수 증가 등 회복세를 지속하였으나 장기실업 증가,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등이 불안요소로 작용하였다. 3월 고용지표 개선이 이어지면서 고용시장 회복세가 강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4월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가 감소하고 경제활동참가 인구가 증가하는 등 회복흐름을 나타냈다. 6월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하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회복세를 유지하였으며 7월 취업자수 증가 및 실업률 하락 등으로 견조한 회복세를 지속하였다. 8월 취업자수 증가폭은 전월대비 크게 축소되었으나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수가 감소하고 실업률이 하락하면서 기조적 회복흐름을 유지하였다. 9월 취업자수 증가폭이 전월대비 축소되었으나 10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전월보다 확대되었다.

실업률

2020년 실업률은 1월 6.3%로 시작하여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수의 감소로 인해

2월과 3월에는 각각 6.2%, 6.0%로 하락하였다. 4월 경제활동인구 증가의 영향으로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나 5월과 6월 전월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다. 6월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40만 명을 하회하였다. 7월 취업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5.4%까지 하락하였으며 8월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수가 감소하면서 5.2%로 하락하였다. 9~10월 실업률은 각각 4.8%, 4.6%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경제활동참가율

1월 경제활동참가율은 전월에 비해 하락한 61.4%로 장기 실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노동시장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2월 이후에도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과 장기 실업자 수의 증가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되었다. 3월 백신 보급 및 경제활동 재개에 힘입어 전월대비 소폭 상승했으며 4월 이후 경제활동참가 인구가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다.

비농업 취업자수

비농업부문 취업자수는 1월 23.3만 명 증가에 이어 2월 민간 부문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46.8만 명 증가하면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3월 민간 및 정부 부문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증가폭이 확대된 91.6만 명이 증가하였다. 4월 제조업 부문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5월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6월 서비스업의 증가 및 교육서비스 호조로 증가폭이 더욱 확대되어 96.2만 명을 기록하였다. 7월 민간 부문과 정부 부문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전월에 이어 큰 폭으로 증가한 105.3만 명을 기록하였다. 8월 제조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의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면서 2.35만 명 증가를 기록하였다. 9월 대면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나 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정부부문이 감소하면서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10월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전월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주당 평균노동시간 및 평균임금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1월 35시간을 기록하였으나 2월 34.6시간으로 감소하였다. 3월과 4월 각각 34.9시간으로 증가하였으나 5월 34.8시간으로 감소하였다. 6월 이후 9월을 제외하고 34.7시간을 유지하였다. 제조업 평균임금은 1월 23.22달러로

시작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9월 24.27달러를 기록하였다.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은 3월을 제외하고 모두 증가하였다.

2019년 고용시장 주요지표

(전년동월대비,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자수 (만명)	86.6	80.5	72.2	56.2	42.9	39.4	39.5	35.6	34.1	28.5
비농업취업자수 증가 (만명)	23.3	46.8	91.6	26.9	61.4	96.2	105.3	23.5	31.2	53.1
실업률(%)	6.3	6.2	6.0	6.1	5.8	5.9	5.4	5.2	4.8	4.6
경제활동참가율(%)	61.4	61.4	61.5	61.7	61.6	61.6	61.7	61.7	61.6	61.6
주당평균노동시간(시간)	35.0	34.6	34.9	34.9	34.8	34.7	34.7	34.7	34.8	34.7
제조업 평균임금 (달러/시간)	23.22	23.29	23.33	23.48	23.58	23.7	23.84	23.96	24.24	24.27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 (m/m)	0.0	0.3	-0.1	0.7	0.5	0.4	0.4	0.4	0.6	0.4

▲자료 : 미노동통계청

(5) 주택시장

2020년 주택시장은 수요에 비해 주택재고가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었으며 주택 허가 및 착공 등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건설활동 호조 흐름이 유지되었다. 원자재 가격 상승, 인력난 등이 건설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주택가격 상승,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한 주택 매도심리 확대 등이 주택투자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주택판매

2021년 1월 기존주택판매는 주택 수요 증가와 저금리 기조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23.1% 증가하였다. 2월 중 모기지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증가율은 하락하였으나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3~6월 지속적인 주택 수요를 바탕으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조치로 인한 판매 급감의 기저효과가 반영되면서 전년동월대비 각각 12.3%, 33.9%, 44.1%, 23.1% 증가하였으나 7월 들어 증가율이 둔화되었다. 8월 높은 주택가격 부담, 2020년 큰 폭의 판매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2020년 6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였다.

신규주택판매

신규주택판매는 1월 주택 수요 증가 및 저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31.3% 증가하였다. 2월 모기지 금리 상승 등으로 증가율이 다소 하락하였으나 3~4월 지속적인 주택 수요 및 2020년 봉쇄조치로 인한 판매 급감의 기저효과가 반영되면서 전년동월대비 각각 40.1%, 36.8%로 크게 증가하였다. 6월 주택 매물 부족,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한 주택구입능력 위축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8.6%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7~9월 높은 주택가격, 2020년 큰 폭의 판매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반영되면서 전년동월대비 각각 26.7%, 28.1%, 17.6% 하락하였다.

주택허가건수 및 주택착공건수

주택허가건수는 1월 전년동월대비 21.5% 증가하였으며 이후에도 빠른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4월과 5월에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58.4%, 35.1% 증가하였으나 7월 증가율이 둔화되었다. 9월 전년동월대비 0.2% 하락하였다. 주택착공건수는 1월 전년동월대비 2.3% 증가하였으나 2월 한파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8.9% 감소하였다. 3~5월 각각 전년동월대비 35.1%, 61.4%, 52.4% 증가하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6월 전년동월대비 29.6% 증가하였으나 7월 전년동월대비 2.5% 증가하며 증가폭이 둔화되었다. 8월 전년동월대비 14.8% 증가하였으나 9월 기상악화 및 공급 차질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둔화되어 전년동월대비 7.4% 증가하였다.

미국 주택시장 현황

구분	(전년동월대비,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기존주택판매	23.1 (0.6)	9.5 (-6.6)	12.3 (-3.7)	33.9 (-2.7)	44.1 (-0.9)	23.1 (1.4)	1.7 (2.0)	-1.5 (-2.0)	-2.3 (7.0)	
신규주택판매	31.3 (4.3)	12.7 (-18.2)	40.1 (20.7)	36.8 (-5.9)	4.1 (-5.9)	-18.6 (-6.6)	-26.7 (1.0)	-28.1 (1.5)	-17.6 (14.0)	
주택허가건수	21.5 (10.4)	16.8 (-10.8)	27.0 (2.7)	58.4 (0.3)	35.1 (-3.0)	23.0 (-5.1)	5.7 (2.6)	13.1 (6.0)	-0.2 (-7.7)	
주택착공건수	2.3 (-6.0)	-8.9 (-10.3)	35.1 (19.4)	61.4 (-9.5)	52.4 (3.6)	29.6 (6.3)	2.5 (-7.0)	14.8 (3.9)	7.4 (-1.6)	

▲주: ()는 전월대비(%) / 자료 : 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 미션서스국

20대 도시 평균 주택가격(S&P Case-Shiller 지수)

주요도시 평균주택가격은 1월 전년동기대비 11.1% 상승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후에도 빠른 상승세를 이어가 6~8월에는 각각 전년동기대비 19.1%, 19.9%, 19.7%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미국 20대 도시 평균주택가격 현황

구분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월대비	1.2	1.2	1.6	1.6	1.8	1.8	1.5	1.2	1.0	
전년동기대비	11.1	11.9	13.3	14.9	17.0	19.1	19.9	19.7	19.1	

▲주: ()는 전월대비(%) / 자료 : S&P

2. 금융시장

2021년 금리는 경제 성장세 확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등으로 1분기 상승하였으며 2분기에는 등락을 반복하였다. 3분기 들어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중국 형다그룹 관련 불확실성, 에너지 가격 상승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하였다.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상승기조를 지속하였으며 달러화는 금리상승, 빠른 경제 성장세 등의 강세 요인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의 약세 요인이 교차하면서 등락을 거듭하였다.

(1) 금 리

시장금리

2021년 시장금리(국채 10년)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대두되면서 2020년 3월 19일의 1.14% 이후 처음으로 1.0%를 상회하였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연 우려, 연준 인사들의 완화적 발언 등의 영향으로 등락을 거듭하였으나 추가 재정부양책의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이후 경제성장 전망이 개선되고 인플레이션 기대 확산, 적극적 재정지출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3월 말에는 1.74%를 기록하였다. 5월 들어 경제지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완화적 정책방향, 팬데믹 관련 불확실성 대두, 경제회복 기대의 선반영 인식 등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하였다. 6~7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고용지표, 경기회복세 둔화, 고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약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 등으로 하락하였다. 8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 연준 의장의 완화적 발언 등에도 불구하고 연내 자산 매입 축소 시행 가능성에 따라 상승하였다. 9월 중국 형다그룹 관련 불확실성, 인플레이션 우려, 연준의 테이퍼링(tapering) 임박 전망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10월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 임시 증액 합의, 에너지 가격의 지속적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상승하였다.

미국 국채금리 증감률 추이

(단위: %)

구분	2020년		2021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국채 3개월물	0.09	0.06	0.04	0.03	0.01	0.01	0.05	0.06	0.04	0.04	0.05	
국채 2년물	0.13	0.11	0.14	0.16	0.16	0.14	0.25	0.19	0.2	0.28	0.48	
국채 5년물	0.36	0.45	0.75	0.92	0.86	0.79	0.87	0.69	0.77	0.98	1.18	
국채 10년물	0.93	1.11	1.44	1.74	1.65	1.58	1.45	1.24	1.3	1.52	1.55	
국채 30년물	1.63	1.87	2.17	2.41	2.3	2.26	20.6	1.89	1.92	2.08	1.93	

▲주: 해당 월말 기준 / 자료: 미연준(FRB) 10/18 발표 자료

회사채 스프레드

2021년 회사채 스프레드는 1월 재정부양책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축소되었다. 2월 2018년 2월 90bp 이후 최소폭으로 축소되었으며 3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강화되면서 전월에 비해 더욱 축소되어 90bp를 기록하였다. 4월 이후에도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업황 개선 기대 등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9월에는 84bp를 기록하였다. TED 스프레드는 1월 단기자금시장의 원활한 유동성이 반영되면서 0.14%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2~4월 각각 0.15%, 0.16%, 0.17%로 낮은 수준에서 안정세를 지속하였다. 5~10월에도 각각 0.14%, 0.1%, 0.08%, 0.07%, 0.08%, 0.07%로 축소되어 낮은 수준에서 안정세를 지속하였다.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 현황

(단위: bp)

구분	2020년		2021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회사채 스프레드	95	96	92	90	91	91	88	90	91	84	86	

▲주: 해당 월말 기준, 투자등급 회사채의 정부채 대비 스프레드
자료: Bloomberg

TED 스프레드 증감률 추이(%)



▲ 자료: 미연준(FRB) 12/3 자료

개선 등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미국 주가 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다우존스	29,983	30,932	32,982	33,875	34,529	34,503	34,935	35,361	33,844	35,820
나스닥	13,071	13,192	13,247	13,963	13,749	14,504	14,673	15,259	14,449	15,812

▲ 주: 해당 월말 기준 / 자료: Bloomberg

(2) 주가

주가(다우존스)는 1월 대규모 재정부양책에 대한 기대와 코로나19 재확산, 주가 고평가에 대한 우려가 교차되면서 횡보하다가 월말 GameStop 사태로 인해 하락 마감하였다. 2월 GameStop 관련 매도세가 진정되고 추가 재정부양책 기대 등에 힘입어 2월 24일 사상최고치(31,962)를 경신하며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2월 말 금리상승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3월 금리 상승 부담에도 불구하고 백신 보급 및 경제활동 재개, 대규모 재정지출 등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3월 29일 사상최고치(33,171)를 경신하면서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4월에 이어 5월에도 빠른 경기 회복세, 주요 기업의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사상최고치 경신을 거듭하면서 상승세를 유지하였다. 6월 FOMC 회의 전후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하락하였으나 월말에는 통화정책에 대한 우려 완화,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상승하였다. 7월에도 기업실적 호조, 주요 국의 완화적 통화 기조 유지 등으로 상승세를 유지하였으며 8월 고용지표 개선, 기업실적의 지속적 개선, 연준의 조기 금리인상 우려 완화에 힘입어 경기회복 지속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유지하였다. 9월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중국 협다그룹 관련 불확실성 우려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10월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불확실성 해소, 주요 기업의 실적 호조, 위험자산 투자심리

(3) 환율

2021년 미 달러화는 경기회복에 따른 경제 성장세, 장기 국채금리 상승 등 강세 요인과 인플레이션 우려, 유로지역의 경제활동 재개 등 약세 요인이 교차하면서 2020년 말 수준 내외로 등락을 거듭하였다.

달러화

1월 달러화는 주가 변동성 확대로 인한 위험회피 심리 강화 등으로 강세를 보였으며, 2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지표 발표, 장기 국채금리 상승 흐름,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위험자산 선호 약화 등으로 강세폭을 확대하였다. 인플레이션 우려 등의 약세 요인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강세를 보였다. 3월 미국 국내 경기회복세 및 유럽지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 등으로 강세를 유지하였다. 4월 주가 상승 등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금리 하락, 유럽지역 백신 접종 확대 및 경제지표 호종 등으로 약세를 보였으며, 5월 유럽지역의 경기개선 기대에 따른 유로화 및 파운드화 강세, 미국 국채금리 하락 등의 인해 약세를 유지하였다. 6월 FOMC 회의 결과의 영향, 유럽지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 우려 등으로 강세로 전환되었다. 7월 연준의 정책기조 정상화 시점 지연 기대 등의 약세 요인과 유럽지역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강세 요인이 교차하면서 보합세를 보였다. 8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 둔화 우려 등의 강세 요인과 연준의 장의 완화적 발언 등의 약세 요인이 교차하면서 보합세를 나타냈다. 9월 미국 정부

의 부채 한도 및 중국 헉다그룹 관련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미국 국채 금리 급등 등의 영향으로 강세를 보였다. 10월 미국 국채 금리 상승, 연준의 정책금리 조기인상 우려 등의 강세요인과 유가상승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위험자산 투자심리 개선 등의 약세요인이 교차하면서 보합세를 나타냈다.

유로/달러 추이



엔/달러 추이



원화/달러

2021년 원달러 환율은 1월 글로벌 투자심리 개선, 한국의 수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미 달러화 지수 상승, 외환수요 우위 여건 등으로 상승하였다. 2월 한국의 수출지표 호조, 미국 경기부양책 통과 기대 등의 투자심리 개선으로 하락하였으나 미국 국채금리 상승,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반등하였다. 3월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달러화 강세로 상승하였으나 한국의 경제지표 개선, 주요국의 경제회

복 기대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등으로 반락하였다. 4월 달러화 약세, 한국의 경제지표 호조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였다. 5월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상승하였으나 위안화 강세, 역외투자자 매도 등의 영향으로 반락하였다. 6월 이후 FOMC 회의 결과, 한국 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 등의 영향으로 상승하였으나 7월 말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8월 달러화 지수 상승, 한국의 코로나19 확산 지속 등으로 상승세를 유지하였으나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조기 인상 우려 완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9월 이후 연준의 테이퍼링 가시화 등으로 인한 달러화 강세,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및 중국 헉다그룹 관련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상승하였다. 10월 들어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나 미국 주요 기업실적 호조, 중국 헉다그룹 관련 불안정성이 완화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소폭 하락하였다.

원화/달러 추이



미국 환율 추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달러/유로	1.2135	1.2093	1.1743	1.203	1.2194	1.1848	1.1864	1.18	1.1577	1.1552	1.1302
엔/달러	104.64	106.64	110.61	109.33	109.83	111.05	109.7	110.05	111.5	114.03	113.46
원화/달러	1118.3	1123.3	1126.7	1115.5	1114.4	1130.4	1151.8	1158.3	1183.7	1174.9	1194.4

▲ 주: 해당 월말 및 11월 26일 기준 / 자료: 미연준(FRB)

3. 대외 거래

(1) 수출입 총괄

미국의 무역 규모

2020년 세계 수출은 17조 3,674억 달러로 미국의 수출은 전체의 8.24%에 해당하는 1조 4,31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세계 수입은 17조 5,376억 달러로 미국의 수입은 전체의 13.32%에 해당하는 2조 3,36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21년 세계 수출(6월 누적)은 10조 4,654억 달러로 미국의 수출은 전체의 8.06%에 해당하는 8,44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세계 수입은 10조 4,581억 달러로 미국의 수입은 전체의 12.85%에 해당하는 1조 3,44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세계 수입규모 및 미국 수입규모

(십억 달러,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6월 누적)
세계수입	19,529.88	18,982.71	17,537.69	10,458.14
미국수입	2,542.73	2,498.40	2,336.57	1,344.05
미국비중	13.01	13.16	13.32	12.85
순위	1	1	1	1

▲자료: 국제통화기금(IMF)

수출

수출 규모는 2018년 전년대비 7.6% 증가하였으나 2019년과 2020년 각각 전년대비 1.1%, 13% 감소하였다. 2021년(6월 누적) 전년대비 22.2% 증가하였다.

수입

수입은 2018년 전년대비 8.5% 증가하였으며 2019년 전년대비 1.7% 감소하였다. 2020년 전년대비 6.5% 감소하였으나 2021년(6월 누적) 전년대비 24% 증가하였다.

세계 수출규모 및 미국 수출규모

(십억 달러,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6월 누적)
세계수출	19,260.03	18,748.76	17,367.41	10,465.40
미국수출	1,664.23	1,641.11	1,431.58	844.34
미국비중	8.64	8.75	8.24	8.06
순위	2	2	2	2

▲자료: 국제통화기금(IMF)

미국 수출입 추이

(백만 달러,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6월 누적)
수출	1,664.05 (7.6)	1,645.17 (-1.1)	1,431.40 (-13.0)	839.95 (22.2)
수입	2,542.73 (8.5)	2,498.40 (-1.7)	2,336.57 (-6.5)	1,336.50 (24.0)
수지	-878.67	-853.22	-905.17	-496.54

▲주: ()는 전년대비 / 자료: 국제통화기금(IMF)

(2) 주요 국가별 수출입

미국의 주요 교역국은 멕시코, 캐나다, 중국, 일본, 독일, 한국, 영국, 대만, 인도, 스위스 등이다. 2021년(6월 누적) 미국의 전체 교역액은 2조 1,764억 달러이며, 주요 10대 교역국과의 교역은 1조 4,227억 달러 달러로 전체 교역액의 65.37%를 차지하였다. 10대 교역국의 교역액을 기준으로 멕시코(22.49%), 캐나다(22.26%), 중국(21.14%)의 교역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한국(5.5%)은 2020년에 이어 6위를 유지하였다.

미국 주요 국가별 수출입

순위	전체 및 국가명	(백만 달러, %)				
		수출액	수입액	수지	교역액	비중
	10개국 총계	533,470	889,328	-355,854	1,422,798	100.0
1	멕시코	133,529	186,440	-52,910	319,969	22.49
2	캐나다	148,495	168,236	-19,741	316,731	22.26
3	중국	71,087	229,635	-158,548	300,722	21.14
4	일본	36,757	67,070	-30,313	103,827	7.30
5	독일	31,977	65,458	-33,480	97,435	6.85
6	한국	33,179	45,122	-11,942	78,301	5.50
7	영국	30,399	27,380	3,019	57,779	4.06
8	대만	17,901	34,790	-16,888	52,691	3.70
9	인도	18,686	33,562	-14,876	52,248	3.67
10	스위스	11,460	31,635	-20,175	43,095	3.03

▲주: 2021년 6월 누적 교역액 기준 / 자료: kita.net

수출

미국의 주요 수출국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 일본, 한국, 독일, 영국, 네덜란드, 브라질, 인도 등으로 2020년 미국의 수출은 인도(-20.4%), 브라질(-18.7%), 멕시코(-17.0%), 영국(-14.7%), 캐나다(-12.7%), 일본(-14.1%), 한국(-10.0%) 등 중국(16.9%)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하였다.

2021년(6월 누적) 주요 10대 수출국에 대한 수출이 전년대비 모두 증가하였다. 증가율이 높았던 국가는 중국(43.6%), 인도(42.7%), 멕시코(34.8%), 한국(26.0%), 캐나다(24.8%), 브라질(19.4%), 독일(15.9%), 네덜란드(12.6%), 일본(10.7%), 영국(2.4%) 순으로 증가하였다.

미국 주요 국가별 수출 현황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20년		2021(6월 누적)	
		금액	증감	금액	증감
1	캐나다	255,149	-12.7	148,495	24.8
2	멕시코	212,672	-17.0	133,529	34.8
3	중국	124,649	16.9	71,087	43.6
4	일본	64,098	-14.1	36,757	10.7
5	한국	51,218	-10.0	33,179	26.0
6	독일	57,795	-4.1	31,977	15.9
7	영국	59,010	-14.7	30,399	2.4
8	네덜란드	45,521	-11.1	25,649	12.6
9	브라질	35,047	-18.7	20,497	19.4
10	인도	27,395	-20.4	18,686	42.7

▲주: 2021년 6월 누적 수출액 기준 / 자료: kita.net

수입

미국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 독일, 베트남, 한국 등으로 2020년 미국의 수입은 베트남(19.4%), 대만(11.4%), 아일랜드(6.0%)를 제외하고 모두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일본(-16.8%), 캐나다(-15.4%), 인도(-11.2%), 독일(-9.7%), 멕시코(-9.1%) 등에 대해 높은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2021년(6월 누적) 모든 주요 수입국에 대한 수입이 증가하였다. 인도(48.3%), 베트남(44.8%), 캐나다(33.5%), 멕시코(29.4%), 중국(26.7%), 대만(25.7%), 한국(23.3%), 독일(20.0%), 일본(17.7%) 등에 대해 전년대비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미국 주요 국가별 수입 현황

순위	국가명	2020년		2021년(6월 누적)	
		금액	증감	금액	증감
1	중국	435,449	-3.7	229,635	26.7
2	멕시코	325,394	-9.1	186,440	29.4
3	캐나다	270,382	-15.4	168,236	33.5
4	일본	119,512	-16.8	67,070	17.7
5	독일	115,120	-9.7	65,458	20.0
6	베트남	79,645	19.4	47,831	44.8
7	한국	76,020	-1.9	45,122	23.3
8	아일랜드	65,473	6.0	34,874	7.0
9	대만	60,428	11.4	34,790	25.7
10	인도	51,190	-11.2	33,562	48.3

▲주: 2021년 6월 누적 수입액 기준 / 자료: kita.net

(3) 주요 품목별 수출입

2021년(6월 누적) 미국의 수출 1위 품목은 석유 화학이며, 10대 수출 품목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품목은 석유화학 및 기타화학으로 전년대비 91.7% 증가하였다. 미국의 수입 1위 품목은 자동차이며, 10대 수입 품목 중 수입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석유화학으로 전년대비 70.6% 증가하였다.

수출

미국의 수출 품목 1위(수출액 기준)는 석유 화학으로 2020년 전년대비 30.6% 감소하였으며 2020년(6월 누적) 전년대비 12.7% 증가하였다. 상업용 비행기는 2020년 전년대비 43.0% 감소하였으며 2021년(6월 누적) 전년대비 9.3% 감소하였다. 석유와 역청유(원유)는 2020년 전년대비 23.0% 감소하였으며 2021년(6월 누적) 전

년대비 18.3% 증가하였다. 2021년(6월 누적) 10대 수출 품목 중 상용업 비행기(-9.3%)를 제외하고 모두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석유가스와 기타 가스(91.7%), 금(86.8%), 승용차 및 기타 차량(57.5%), 면역 용품(33.7%), 자동차용 부품(26.5%), 전화기 및 영상 송수신기(25.5%)는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미국 주요 수출 품목별 현황

순위	HS코드	품목명	2020년		2021년(6월 누적)	
			금액	증감	금액	증감
1	2710	석유화학	60,709	-30.6	36,570	12.7
2	8800	상업용 비행기	71,580	-43.0	35,802	-9.3
3	2709	석유와 역청유(원유)	50,286	-23.0	31,016	18.3
4	2711	석유가스와 기타 가스	33,345	9.2	29,650	91.7
5	8703	승용차 및 기타 차량	45,643	-18.7	28,285	57.5
6	8542	전자집적회로	44,213	10.3	25,787	18.8
7	9880	전화기 및 영상 송수신기	34,453	-9.0	20,123	25.5
8	8708	자동차용 부품	33,166	-22.9	17,847	26.5
9	3002	면역물품	26,091	0.9	16,868	33.7
10	7108	금(백금 포함, 비가공 1차제품)	20,562	19.7	15,913	86.8

▲주: 2021년 6월 누적 수출액 기준 / 자료: kita.net

수입

미국의 수입 품목 1위(수입액 기준)는 자동차로 2020년 전년대비 18.8% 감소하였으나 2021년(6월 누적) 전년대비 30.5% 증가하였다. 2020년 10대 수입 품목 중 자동차용 부품(45.7%), 원유(40.9%), 자동차(30.5%), 유·무선 통신기기(21.6%), 자동차용 부품(20.5%), 수출 후 반품제품(10.8%), 면역물품(7.8%), 의약품(0.7%) 등 전년대비 모두 증가하였다.

▶ 미국 주요 수입 품목별 현황

순위	HS코드	품목명	2020년		2021년(6월 누적)	
			금액	증감	금액	증감
1	8703	자동차	143,589	-18.8	75,307	30.5
2	2709	원유	76,495	-39.7	56,239	40.9
3	8471	자동자료처리기기	103,654	15.0	53,600	20.5
4	8517	유·무선 통신기기	93,539	-6.7	47,198	21.6
5	3004	의약품	81,373	3.8	41,845	0.7
6	9801	수출 후 반품제품	77,841	-9.9	41,267	10.8
7	8708	자동차 부품	58,562	-13.9	35,788	45.7
8	2710	석유화학	34,480	-42.3	29,029	70.6
9	3002	면역물품	51,259	19.7	27,062	7.8
10	8542	전자집적회로	31,779	-3.6	19,598	26.9

▲주: 2021년 6월 누적 수입액 기준 / 자료: kita.net

(4) 한미 교역 현황

한미 교역 규모

미국은 한국의 주요 교역국으로 2021년(9월 누적) 수출 기준과 수입 기준에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 규모의 교역국이다. 최근 10년 동안 한국의 대미 교역액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왔다. 2009년 경기침체로 인해 수출(-18.8%)과 수입(-24.3%)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경기회복이 시작된 2010년 수출(32.3%)과 수입(39.1%) 모두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2012년 한미 FTA 체결 이후 양국 상품 교역규모는 2011년 1,007억 달러에서 2013년 1,035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교역 규모가 확대되었다. 2015년과 2016년 대미수출 및 수입이 전년대비 모두 감소되면서 교역규모가 축소되었으나 2017년과 2018년 대미수출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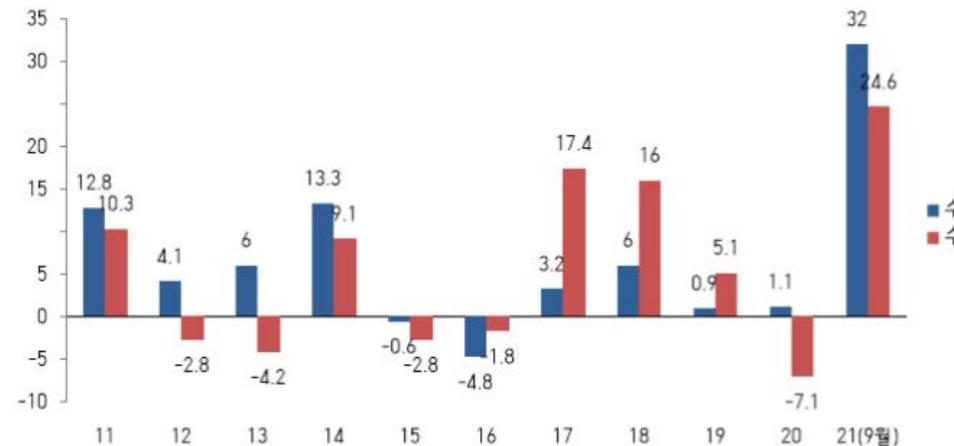
수입은 전년대비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대미 수입은 전년대비 각각 17.4%, 16.0% 증가하였다. 2020년 한국의 대미수출은 741억 달러로 전년대비 1.1% 증가하였고 대미수입은 574억 달러로 7.1% 감소하면서 대미 무역수지는 16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21년(9월 누적) 대미 수출은 전년대비 32.0%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24.6% 증가하였다. 무역수지는 1998년 이후 한국의 흑자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2011년 116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5년에는 250억 달러로 흑자폭이 확대되었으나 2016년 232억 달러, 2017년 178억 달러, 2018년 138억 달러, 2019년 114억 달러로 흑자폭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었으며, 2020년 166억 달러, 2021년(9월 누적) 16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 한미 교역 추이

년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감	금액	증감	
2011년	56,208	12.8	44,569	10.3	11,639
2012년	58,525	4.1	43,341	-2.8	15,184
2013년	62,052	6	41,512	-4.2	20,541
2014년	70,285	13.3	45,283	9.1	25,002
2015년	69,832	-0.6	44,024	-2.8	25,808
2016년	66,462	-4.8	43,216	-1.8	23,246
2017년	68,610	3.2	50,749	17.4	17,860
2018년	72,720	6	58,868	16	13,852
2019년	73,344	0.9	61,879	5.1	11,465
2020년	74,116	1.1	57,492	-7.1	16,624
2021년 (9월 누적)	70,938	32.0	54,880	24.6	16,058

▲자료: kita.net

대미 수출입 증감률 추이(%)



▲주: 전년대비 / 자료: kita.net

품목별 수출 현황

한국의 대미수출액은 2020년 741억 달러로 전년대비 1.1% 증가하였으며 2021년(9월 누적) 수출액은 전년대비 32.0% 증가한 70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대미 수출품목 1위는 차량 및 부속품으로 2020년에는 전년대비 2.3% 감소한 210억 달러, 2021년(9월 누적)에는 전년대비 21.3% 증가한 17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20년 전기기기(14.5%), 원자로 및 보일러(11.9%), 기기(5.0%)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선박과 수상구조물(-69.1%), 광물성 연료(46.2%), 유기화학물(-28.1%), 철강(-23.7%), 철강 제품(-21.5%), 차량 및 부속품(-2.3%), 플라스틱(-0.6%)은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미국 주요 품목별 수출 현황

순위	HS 코드	품목명	2020년		2021년(9월 누적)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총계			74,116	1.1	70,938	32.0
1	87	차량 및 부속품(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	21,086	-2.3	17,916	21.3
2	84	원자로, 보일러, 기계류 및 부품	16,697	11.9	14,992	23.6
3	85	전기기기 및 부품	14,446	14.5	13,557	26.3
4	27	광물성연료, 광물유,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2,358	-46.2	3,483	92.4
5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2,952	-0.6	3,238	48.6
6	89	선박과 수상구조물	1	-69.1	2,138	314,578.9
7	73	철강 제품	1,522	-21.5	1,668	46.5
8	72	철강	1,063	-23.7	1,555	106.9
9	90	기기(광학, 사진용, 영화용, 측정, 검사, 정밀 및 의료용) 및 부품과 부속품	1,583	5.0	1,340	18.5
10	29	유기화학품	894	-28.1	1,119	60.7

▲자료: kita.net

품목별 수입 현황

한국의 대미수입액은 2020년 전년대비 7.1% 감소한 574억 달러였으며, 2021년(9월 누적)에는 전년대비 24.6% 증가한 54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대미 수입품목 1위는 광물성 연료로 2020년에는 전년대비 24.0% 감소한 118억 달러, 2021년(9월 누적)에는 전년대비 55.5% 증가한 14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20년 차량 및 부속품(30.1%), 곡물(8.9%), 원자로 및 보일러(7.1%), 기기(0.3%)는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광물성 연료(24.0%), 전기기기(-6.8%), 플라스틱(-6.4%), 육/식용 설육(-3.7%), 유기화학품(-0.8%)는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2021년(9월 누적) 유기화학품(-2.9%)를 제외하고 차량 및 부속품(58.3%), 광물성연료(55.0%), 곡물(44.4%), 의료용품(38.6%), 원자로 및 보일러(28.1%), 기기(18.3%), 육/식용 설육(11.2%), 전기기기(7.2%)는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미국 주요 품목별 수입 현황

순위	HS 코드	품목명	(백만 달러, %)			
			2020년		2021년(9월 누적)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총계			57,492	-7.1	54,880	24.6
1	27	광물성연료, 광물유, 종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11,870	-24.0	14,384	55.0
2	84	원자로, 보일러, 기계류 및 부분품	8,065	7.1	7,906	28.1
3	85	전기기기 및 부분품	6,063	-6.8	4,855	7.2
4	90	기기(광학, 사진용, 영화용, 측정, 검사, 정밀 및 의료용) 및 부분품과 부속품	4,117	0.3	3,643	18.3
5	87	차량 및 부속품(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	2,899	30.1	3,219	58.3
6	02	육, 식용설육	2,282	-3.7	1,985	11.2
7	88	항공기와 우주선 및 부분품	1,538	6.5	1,570	38.6
8	29	유기화학품	1,999	-0.8	1,422	-2.9
9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1,167	8.9	1,409	44.4
10	38	각종 화학공업생산품	1,619	-6.4	1,256	3.0

▲자료: kita.net

가공 단계별 수출입 현황

산업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차 산품	112	66.1	10,523	29.8	-10,411
소비재	18,036	18.2	9,993	25.9	8,043
자본재	12,331	47.1	9,687	17.4	2,644
중간재	40,385	34.9	24,559	26.0	15,826
기타	74	-20.2	119	-48.6	-45

▲주: 2021년 9월 가공 단계별 수출입 누적 기준 / 자료: kita.net

가공 단계별 현황

2021년(9월 누적) 한국의 가공 단계별 대미수출은 1차 산품(66.1%), 소비재(18.2%), 자본재(47.1%), 중간재(34.9%)는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기타(-20.2%)는 감소하였다. 가공 단계별 대미수입은 1차 산품(29.8%), 소비재(25.9%), 자본재(17.4%), 중간재(26.0%)는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기타(-48.6%)는 감소하였다.

4. 한미간 투자 현황

(1) 일 반

한국의 2020년 해외직접투자 신고건수는 10,560건, 신고금액은 717억 4,400만 달러였으며 2021년(6월)의 신고건수는 4,936건, 신고금액은 361억 3,6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 신고금액은 2011년 165억 8,800만 달러에서 2012년과 2013년 각각 69억 9,800만 달러, 58억 6,300만 달러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4년 94억 6,400만 달러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05억 5,400만 달러, 179억 2,6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7년과 2018년 신고건수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신고금액은 전년대비 하락하여 각각 137억 7,100만 달러, 127억 3,9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9년 170억 9,700만 달러를 하였으며 2020년 신고건수는 전년대비 하락하였으나 신고금액은 181억 5,900만 달러를 상회하였다. 2021년(6월 누적) 신고금액은 125억 4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해외 직접투자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6월 누적)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전체 투자	12,893	59,613	13,712	83,757	10,560	71,744	4,936	36,136
미국	1,950	12,739	2,086	17,097	1,929	18,159	945	12,504
케이만군도	308	5,838	519	14,282	370	7,648	230	3,744
캐나다	103	1,803	115	4,682	93	2,566	55	2,777
중국	1,427	5,704	1,346	5,941	913	4,691	399	2,756
네덜란드	53	848	51	215	56	1,096	30	2,064
오스트레일리아	144	303	119	880	122	985	66	1,725
룩셈부르크	123	3,978	176	5,058	148	5,637	81	1,723
베트남	2,785	3,741	3,086	6,657	2,092	2,956	836	1,501
헝가리	50	408	99	889	100	203	32	717
싱가포르	512	3,167	529	4,327	503	5,674	221	625
홍콩	390	4,046	394	2,902	248	2,071	123	570
건지	16	705	21	1,188	22	2,035	16	565
브라질	64	385	54	228	53	293	35	523
일본	897	1,503	876	1,381	640	1,875	314	495
영국	169	1,958	151	2,691	115	1,738	48	470

▲주: 2021년 6월 누적 신고금액 순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의 대미 직접 투자 추이(%)



▲주: 2021년 6월 누적(잠정치)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 대미 직접투자 업종별 현황

업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6월)
합계	12,738,780	17,096,889	18,158,853	12,504,032
금융 및 보험업	6,828,942	7,164,333	6,358,475	4,945,406
부동산업	2,074,437	2,527,091	3,326,560	2,299,541
제조업	1,620,084	3,994,747	2,672,205	1,790,72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08,170	493,715	524,686	1,427,575
도매 및 소매업	491,635	808,452	627,977	1,142,148
정보통신업	501,268	316,602	2,817,709	422,141
운수 및 창고업	233,503	752,462	134,467	168,28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249,709	431,071	341,017	139,773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1,533	58,962	55,668	69,184
광업	81,293	2,000	89,558	24,051
건설업	56,893	26,250	89,408	23,770
숙박 및 음식점업	165,658	421,635	993,053	20,410
농업, 임업 및 어업	2,502	2,043	17,082	16,25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6,860	32,305	38,725	13,0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2,948	44,870	27,464	1,36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530	6,355	2,840	310
교육 서비스업	17,520	11,190	41,660	100

▲주: 2020년 6월 누적(잠정치), 2020년 신고금액순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 한국의 업종별 대미 직접투자

2021년(6월 누적)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에서 신고금액이 가장 높은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으로 전체의 39.55%인 49억 4,54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금융 및 보험업은 2018년 68억 2,894만 달러에서 2019년 71억 6,433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2020년 63억 5,847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부동산업은 2018년 20억 7,443만 달러에서 2019년 39억 9,474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2020년 33억 2,656만 달러로 감소하였으며 2021년(6월 누적) 22억 9,954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제조업은 2018년 16억 2,008만 달러에서 2019년 25만 2,709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2020년 26억 7,220만 달러로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2021년(6월 누적) 17억 9,072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들 업종 이외에도 전문 서비스업(11.42%), 도소매업(9.13%), 정보통신업(3.38%), 운수 및 창고업(1.35%) 등의 업종에 대한 직접투자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3) 투자자 규모에 따른 대미 직접투자

2020년 대기업의 대미 직접투자 규모는 181억 1,590만 달러로 전년대비 6.21% 증가하였으며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 개인기업, 기타(비영리기관 등)의 신고금액은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중소기업, 개인은 감소하였다. 2021년(6월 누적) 직접투자 규모는 125억 400만 달러로 대기업 59억 7,200만 달러, 중소기업 31억 8,800만 달러, 개인기업 800만 달러, 개인 4억 6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투자자 규모별 대미 직접투자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6월 누적)		(단위: 백만 달러)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합계	1,950	12,739	2,086	17,097	1,929	18,159	945	12,504	
대기업	461	7,203	450	8,863	488	9,945	248	5,972	
중소기업	1,061	2,886	1,193	5,388	1,009	3,853	543	3,188	
개인기업	10	6	31	15	38	33	10	8	
개인	380	245	374	326	353	196	125	406	
기타	38	2,398	38	2,505	41	4,131	19	2,930	

▲주: 2021년 6월 누적(잠정치)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21년(6월 누적) 투자비율별 직접투자는 100% 투자가 85억 300만 달러, 50% 초과~100%미만 투자는 21억 9,800만 달러, 50% 투자는 900만 달러 기록하였다. 10%이상~50%미만 투자는 16억 8,200만 달러, 10% 미만 투자는 1억 1,2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 투자 비율별 대미 직접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6월 누적)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10%미만	198	93	192	240	126	212	46	112
10%이상~50%미만	197	1,893	179	2,617	202	1,792	110	1,682
50%	43	49	36	91	22	2,019	10	9
50%초과~100%미만	240	2,544	238	2,258	242	2,937	125	2,198
100%	1,272	8,159	1,441	11,892	1,337	11,198	654	8,503

▲주: 2021년 6월 누적(잠정치)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4) 투자 비율별 대미 직접투자

2020년 투자비율별 직접투자는 100% 투자가 111억 9,800만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50%초과~100%미만 투자는 29억 3,700만 달러, 50% 투자는 20억 1,900만 달러, 10%이상~50%미만 투자는 17억 9,200만 달러, 10% 미만 투자는 2억 1,2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III 국제 통상 이슈

1.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정책
2.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지속
3. 코로나19로 인한 국제통상질서의 변화
4. 디지털무역 동향과 시사점
5. 환경과 무역

1.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정책

(1)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정책 추세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미국의 국제 리더십 부활과 국제 공조 체계 구축 그리고 강력한 대중 전략을 추진하였다. 과거 포괄적 전략이 결여된 불규칙적 통상정책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며 보편적 가치를 반영한 차별화된 통상정책에 중점을 두면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차별성과 연속성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 손상되었다고 평가되는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국제적 연대를 강조한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했던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여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보편적 연대를 주도하거나 '글로벌 최저 법인세(global minimum corporate tax)'와 같은 국가별 참여가 선택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선택적 연대를 취하였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미국의 재량권을 발휘하여 압박하였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한 압박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의 연속성을 가진 '미국 중산층 우선주의'를 가치로 자국중심주의 통한 미국 내 일자리 창출, 중산층 성장, 경제적 소외계층을 위한 무역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대중 압박 정책을 시행하면서 중남미와 중동지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외교 및 안보 역량을 분산시켰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중남미와 중동 지역에 개입을 축소하거나 신중한 입장으로 선회하고 대중 정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2)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정책 내용 및 전망

가. 미국 무역정책 추세

무역대표부(USTR)의 '2021 통상정책 어젠다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통한 경제회복, 강력한 노동 및 환경 기준을 포함한 무역협정 추진,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 강화를 골자로 한 9대 통상정책의 우선 순위를 제시하였다.

트럼프 vs 바이든 무역정책 의제 비교

트럼프	바이든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창출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경제 재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	노동자 중심의 무역 강조
미국 경제를 위한 NAFTA 개정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체계 구축
공정한 대일 무역제도 확립	인종 및 소외지역 포용 경제 성장
WTO 시스템 개혁	포괄적 대중전략 수립(노동, 인권 등 포함)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확대 및 강화	동맹국 협력 강화, WTO 시스템 복원
영국, EU, 캐나다 무역협정 체결	농축산, 수산업 육성
301조 등 무역구제 조치 확대	글로벌 경제 번역 공동 추구
WTO 체제 내 미국의 권리 보호	통상규범 및 무역협정 집행 강화

▲ 자료: USTR 통상정책 어젠다 보고서(2020, 2021)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회복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 분쟁이 2020년 1월 15일 양국 간 1단계 무역합의로 잠정적으로 갈등이 봉합된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대미 수입 확대의 비현실성과 근본적인 개혁 없는 합의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특히 중국 측의 합의 이행이 미흡할 경우 미국의 상시 신규 관세 부과 및 인상이 가동될 수 있어 양국 간의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노동자 중심의 통상정책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통상정책을 통해 '보다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무역 정책들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강력하고 이행 가능한 노동 기준을 향후 무역협정에 포함시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 안보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강제 노동·착취적인 노동 조건을 금지하는 약속을 확보하고 불공정 무역관행으

로 취득한 교역상대국의 비교우위 억제,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투명성·책임감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위적 환율조작으로 인한 미 노동자의 피해에 대해서 재무부·상무부·USTR 공동 대응하고 불공정 노동관행에 대해서 적극적인 무역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지속가능한 환경·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양자·다자 협력을 추진하고 통상정책 의제로 강력한 환경 기준을 수립하고 이행을 강조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기후 관련 기술 혁신과 생산, 재생 에너지 공급망 확대 등을 통해 2050년 이전까지 온실 가스 감축 및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환경의무 불이행 국가에 대해서는 동맹국과 공동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인종 평등 제고 및 소외계층 지원

무역정책의 유색인종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는 등 인종간 격차 및 인종차별을 고려한 통상정책을 표명하였다.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무역관행 대응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정하고 무역 의무 이행을 추진하며 과잉 생산에 따른 시장 왜곡을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강압적·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미국 노동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미국의 기술적 우위·국익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대중국 통상정책에 대한 지속적·포괄적인 검토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국 정부의 신장위구르 자치구 강제징용, 인권유린 등의 문제를 대중국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울 예정이다. 또한 철강, 알루미늄뿐 아니라 광섬유, 태양광 등 주요 부문에서의 과잉 생산 문제를 내세워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우방·동맹국과의 파트너십 강화

미국의 리더십 회복과 우방·동맹국과의 관계 회복을 우선 과제로 삼고 WTO 신임 사무총장 및 주요 교역국들과 협력하여 불평등 확대, 디지털 전환 등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WTO의 실질적 규범과 절차에 대한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동맹국의 파트너십을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높은 수준의

규범을 제정하고, 국제 무역규범에서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농축산·수산업 육성

포괄적 전략이 결여된 기존의 불규칙적 통상 조치로 인한 농업 부문의 부담을 고려하고 농축수산업계 보호를 위해 농축수산업계 세계 시장 진출 기회 확대, 글로벌 농업 통상규범 집행을 통한 생산자 보호 등 '보다 스마트한 통상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등한 경제성장과 규범준수

글로벌 공정 경제성장 및 수요 확대정책을 통한 미국 경제의 이익 추구하는 한편 임금격차 축소, 노조 가입 확대, 노동환경 개선, 노동착취 및 강제노동 억제, 여성 경제적 권리 증진 등 기존 통상정책의 공정한 성장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평가를 통상정책 의제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무역규칙 준수 강화

교역 상대국의 무역규범 위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교역 상대국의 미국기업 차별 및 시장접근 제한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노동·환경 기준을 포함한 포괄적 무역협정을 시행하고 미국 노동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국가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제재수단 모색하며 동맹국과 공동으로 무역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정책 전망

바이든 행정부는 '보다 나은 재건'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경제 회복을 정책기조로 삼고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차별화된 통상정책,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무역규범 수립·이행을 강조하고 노동, 환경, 디지털 등의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글로벌 규칙을 수립하고 이행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WTO로 대변되는 다자무역체제 및 양자 무역협정 등 모든 무역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국제 리더십 회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동맹 협력을 강조하며 민주주의, 불평등 해소 등 미국이 중시하는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무역규범 수립과 이행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지속

(1) 미국의 대중국 무역정책 가시화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국 교역 관계 개선을 위한 포괄적 검토 이후 미국 노동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새로운 대중 통상정책을 제시하였다. 미국은 그동안의 중국의 무역 관행이 강압적·불공정하다고 평가하고 이에 과거의 단편적인 방식이 아니라 '전체적인 대중 통상전략 개발'이라는 틀에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가. 코로나19 위기의 영향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비관세장벽을 포함한 시장접근 제한(비관세장벽 포함), 강제노동 프로그램, 다양한 업종의 과잉생산 문제, 불공정 보조금 및 수입대체, 수출보조금, 강압적 기술이전 요구, 미국의 지재권 침해 및 불법 취득,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에 대한 검열 및 제한, 상호주의에 위배되는 중국 내 미국기업에 대한 불공정 대우 등을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파악하고 있다.

나. 인권탄압 배격·대응

신장위구르 지역의 소수민족 및 특정 종교인 대상 강제노동과 관련된 광범위한 인권침해 문제를 대중 무역의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강제노동의 결과로 생산된 제품 소비 및 노동자 불이익을 배격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의 강제노동에 대응하고 기업의 책임감을 제고하기 위해 무역 의제에

서 모든 대안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다. 동맹국 협력 강화

미국은 중국의 무역집행을 강화하고 국제무역 규범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중국을 압박한다는 입장이다.

라. 내부 경쟁력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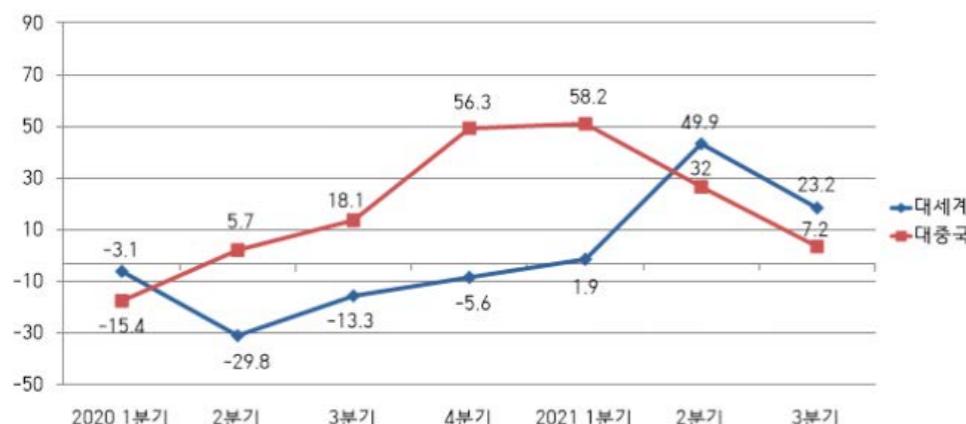
미국 내 노동자, 인프라, 교육, 혁신 부문의 투자를 통해 국내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중국 경제정책으로부터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응할 것을 보인다.

(2) 미국과 중국의 관계 현황

가. 미국의 대중국 수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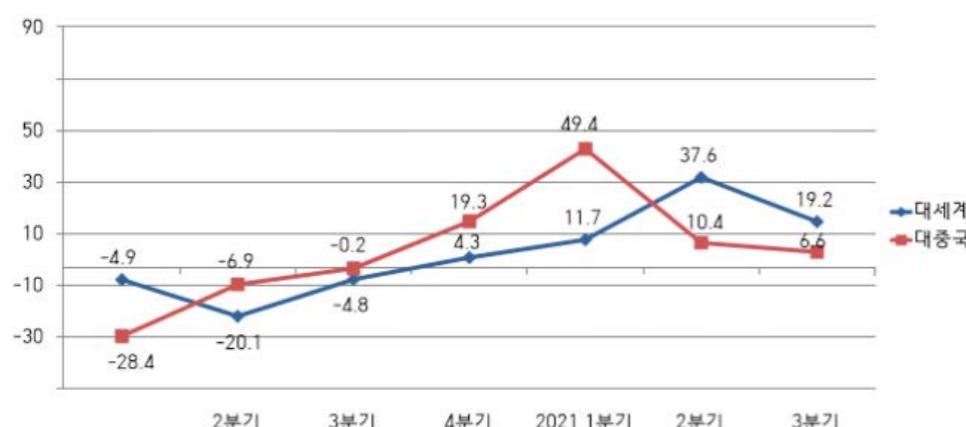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2020년 미국의 전체 수출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2월 14일 미중 1단계 무역협정 발효 이후 4월부터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2021년 1분기와 2분기에는 각각 전년대비 58.2%, 49.9% 증가하였다. 미국의 대중국 수입은 2020년 1~3분기 각각 전년대비 2.84%, 20.1%, 4.8% 감소하였으나 4분기 전년대비 4.3% 증가하였으며 2021년 1~3분기에는 각각 전년대비 11.7%, 37.6%, 19.2% 증가하였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 현황



▲ 자료: kita.net

미국의 대중국 수입 현황



▲ 자료: kita.net

나. 1단계 무역합의 이행에 대한 평가

미중 무역 분쟁은 2020년 양국 간 1단계 무역합의로 잠정적으로 갈등이 봉합된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대미 수입 확대의 비현실성과 근본적인 개혁이 없는 합의라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은 지적재산권, 기술이전, 농업, 금융서비스, 통화 및 외환

분야에 대해 중국의 구조적인 개혁에 대해 중국이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많은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1단계 무역합의에서 중국의 국가 중심적이고 비시장 무역 관행에 대한 논의가 되지 않아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보조금, 과잉 생산, 국유기업, 지적재산권 도용, 사이버 보안, 데이터 국내화 요건, 국경간 데이터 이전 제한, 경쟁정책 및 규제 투명성 등을 포함한 2단계 무역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무역협상이 개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편 양국은 2021년 10월 무역합의 이행과 무역 교류협력 확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산 이외 대안 수입품이 없을 경우 대중 관세 적용을 배제하던 '표적 관세 배제 절차(TTEP, Targeted Tariff Exclusion Process)'을 다시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총 3,7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제품에 최대 25%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기업의 신청을 받아 특정제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였지만 2020년 말 대부분 실효된 바 있다.

향후 미국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21세기 공정무역 규범을 마련하고 시장경제 및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경쟁을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동맹국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을 계속 견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상호 추가관세 부과 진행경과

	미국 → 중국 추가관세 부과	중국 → 미국 추가관세 부과
2018년 7월	340억불(818개 품목, 25%)	338억불(545개 품목, 25%)
2018년 8월	160억불(279개 품목, 25%)	142억불(333개 품목, 25%)
2019년 5월	2,000억불(5,745개 품목, 10% → 25%)	580억불(5,207개 품목, 5~10% → 5~25%)
2019년 9월	1,100억불(3,243개 품목, 15%) 관세부과(1,600억불 15% 관세 부과예고)	285억불(1,717개 품목, 5~10%) 관세부과
2020년 1월	1단계 무역 합의안 서명	

▲ 자료: kita.net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주요내용

수입 확대	- 미국 농산물 수입 연 400억 달러로 확대(기존 240억 달러에 160억 추가) - 2년 간 대미수입 2천 억 달러 확대(제조, 농산품, 에너지, 서비스 포함)
관세 인하	- 2019년 12월 예정이었던 관세(1,560억달러) 취소 - 관세(1,110억달러) 인하(15%→7.5%) - 기존 25% 관세 유지(2,500억 달러)
기술 이전	중국의 기술이전 강제 요구 관행 금지 및 지재권 보호 강화
금융/환율	금융시장 개방 및 위안화 평가절하 금지 등 세부 합의
이행/분쟁조정	중국 측의 합의 불이행 방지를 위한 강제조치(관세 복원 등) 양국은 실무/차관/장관급 단계별 분쟁해결 장치 마련

▲ 자료: USTR, Inside Trade, kita.net

(3) 전망 및 한국기업에 주는 시사점

중국은 미국이 양국의 무역갈등을 악화시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대화를 통한 대중 무역 관계를 처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단계 무역 합의에서 중국은 특정 미국 산업에 대한 구매를 합의한 바 있으나 구매 이행률이 저조한 수준이며 중국산 구매율을 높일 것을 요구하는 등 무역합의와 다른 행보를 견지하고 있어 양국의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피터슨 경제 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전체 미국산 상품 구매이행률은 2020년 59%, 2021년 8월까지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1단계 무역합의 이후에도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이 지속되면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하고 대중 무역 강경책을 유지해 무역합의의 완전이행을 압박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무역합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당분간 대중 무역 추가 조치는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중심의 무역정책을 위해 동맹국과의 공조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보이나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WTO 등 다자무역체제 및 양자 무역협정 등 모든 무역협상에서 '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무역규범 수립 및 이행'을 강조하고 노동, 환경, 디지털 등의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글로벌 규칙 수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국이 중시하는 민주주의, 불평등 해소 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국제무역규범 수립과 이행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갈등은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불안정한 통상환경에 대비한 산업 전략 및 통상정책과 분석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미국이 추진하는 노동, 환경, 디지털 관련 정책 동향을 주시하여 이에 대한 사전적·전략적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의 미중 수출입 구조를 분석하여 무역분쟁의 확산을 대비한 중장기적 글로벌 수출입 전략이 필요하며 무역안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3. 코로나19로 인한 국제통상질서의 변화

미중 무역분쟁 중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해 국제 무역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글로벌 경제 생태계 속에 있는 국가와 기업들의 글로벌 리스크 관리 및 불확실성 극복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세계경제의 호황기에 야기된 것과는 달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보호무역이 확산되는 중에 발생하였다. 글로벌 리더십의 부재 속에 다자주의가 약화되고 국제적 공조가 부진하면서 세계화의 취약성과 탈세계화가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었다.

(1) WTO에 대한 이해

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붕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던 글로벌 가치사슬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위기를 맞으면서 원자재와 부품 공급을 다른 국가에서 의존하던 기업들, 특히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의약품과 필수 방역 장비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붕괴와 외국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 등으로 자국의 보건 안전에 위협을 받았다. 자유무역과 경제적 효율성을 기반으로 효율성만을 추구하여 특정 소수국가에 의존하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가 국제적 위기에 취약성을 노출하면서 효율성보다 회복 탄력성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 간의 생산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나. 수출통제 조치 및 국경봉쇄 조치의 확산

보건 위기로 인한 의료용품 및 장비에 대한 초과수요와 공급부족 사태를 해결하

기 위해 각국이 의료용품에 대한 수출 통제 및 제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국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이 저해되었다. 특히 의료용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심각한 보건 위기에 직면하였으며 갑작스런 수출통제 조치로 인해 불확실성은 가중되었다. 또한 코로나19의 확산을 우려한 국경봉쇄 조치로 여행 및 관광서비스 등 국경간 서비스 무역이 타격을 받았다.

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국가개입 확대

국내 수요 감소, 수출 부진 등을 타개하기 위해 각국 정부의 국내 산업 보호가 확대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자금난에 직면한 국내기업이 외국자본에 의해 매수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제한을 강화하고 통상정책을 산업정책과 연계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가 증가하였다. 유럽의 경우, 해외여행의 급감으로 경영난에 직면한 항공업계를 국유화하거나 의료체계가 붕괴된 경우 민간병원을 한시적으로 국유화하기도 하였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나서면서 국가간 통상갈등은 증가하고 국제적 협력이 어려워졌다.

라. 리쇼어링 정책의 등장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했던 오프쇼어링(off-shoring)이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국내로 다시 이전하는 리쇼어링(reshoring)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 및 국가안보에 중요한 산업에 대한 중국 등 소수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우 국제적 위기 시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미국의 경우 보건 산업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국산 의약품 등에 대한 수입은 억제하고 의료장비 및 의약품에 대한 국내 생산을 높이기 위해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리쇼어링을 검토하거나 일본의 경우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생산거점을 국내로 이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회복탄력성과 재고비축을 위해 각국의 리쇼어링을 위한 지원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 디지털무역협상의 진전

디지털 재사회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서비스 무역이 급성장하였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비대면 거래방식의 산업이 성장하고 원격근무 관련 산업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외래환자의 대면 진료를 줄이기 위해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스트리밍 트래픽이 폭증하고 글로벌 온라인 게임산업이 급성장하였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방역에 적극 활용되면서 데이터 공유 및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한편 대량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를 위한 국내 및 국가간 정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

바. 다자통상체제의 약화

미중 무역분쟁과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탈퇴 등 글로벌 무역의 긴장 속에서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를 모색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다.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약화되고 중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글로벌 리더십의 부재가 부각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우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공조가 성공적으로 이뤄진 반면, 코로나19의 경우 국가의 보건체제가 위협을 받으면서 개방적 무역환경을 유지하면서 국제간 협력을 모색했던 다자적 국제통상질서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2) 코로나19 이후 통상 환경의 변화 전망

가. 국가개입 확대 및 자국기업 지원 강화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자국 기업의 지원의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난에 직면한 자국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종료 이후에도 자국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각종 수입규제 조치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지원책들이 향후 글로벌 무역에서 불공정 경쟁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OECD는 각국 정부의 지원정책이 글로벌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투명하고, 한시적이며, 기업간 차별 없이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나. 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투자제한 강화

주요국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된 자국기업들이 중국 등 다른 국가에 저가로 매수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업종에 대한 국유화 조치 등이 확대되는 등 코로나19 이후에도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리쇼어링 확대 유도

주요국은 보건제품 및 국가 핵심 산업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코로나19로 부각된 리쇼어링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리쇼어링 인센티브와 정부구매 시 국내산 구매를 의무화하는 조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라. 미중 주도권 경쟁 심화

2018년부터 본격화된 미중 무역분쟁은 코로나19로 인해 양국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긴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인프라가 취약한 국가에 대한 중국의 의료용품 지원과 향후 경기회복에 필요한 국가대출 및 인프라 건설 투자 확대 등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경우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마. 온라인 비즈니스의 성장 및 디지털 무역 논의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기술을 기반한 비대면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서비스업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전반이 디지털 재사회화가 이뤄지면서 온라인 기술을 활용한 동영상 스트리밍, 화상 회의, 온라인 게임, 온라인 교육, 클라우드 등의 서비스와 온라인 쇼핑 등 비대면 거래방식이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의 디지털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고 온-오프라인 활동의 융합(O2O)이 일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상의 차별적 무역장벽을 제

거하기 위한 국제규범을 논의하기 위한 복수국간 전자상거래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3) 국제 물류대란의 배경, 현황 및 전망

가. 국제 물류대란의 배경

코로나-19 신종 변이 '오미크론'이 가뜩이나 물류 병목현상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승을 부리면서 문제가 계속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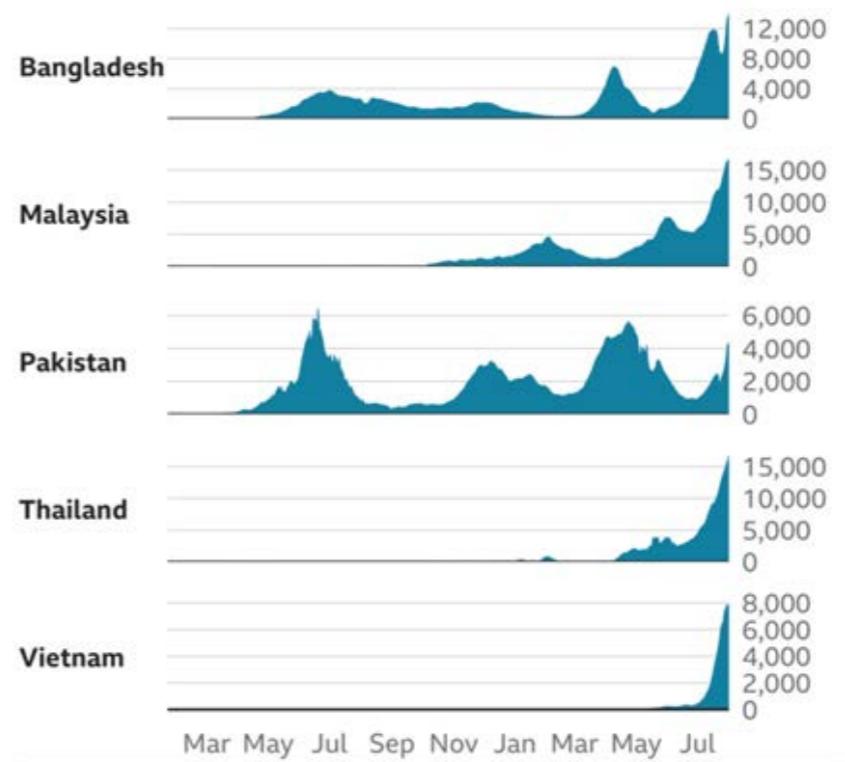
2021년 하반기 현재 전세계적인 공급망 병목 현상은 세계 경제를 계속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공급망 병목현상은 2020년 3월 12일에 공식 선포된 코로나 19 팬데믹부터 연관되었다. 당시 110여개국의 12만여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면서 물류, 항공, 여행, 공장 가동 등이 중단되면서 세계는 글로벌 경제 셧다운에 들어갔다. 또한 사람간의 물리적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업을 화상강의로, 회의 및 업무는 재택에서 하게 되었다. 이에 공장들은 가동이 어려워져 생산을 멈추었고, 이에 따라 물류 기업들은 수요 감소로 운항 및 운행을 크게 줄였다. 그러나 올해 시간이 가면서 수요가 급증하자, 수요에 대한 공급 전망을 예상치 못한 기업들과 국가들의 선제적인 선제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수요과 공급 사이에 큰 괴리가 생기게 되었다. 여기다 원자재 부족 현상까지 발생해, 가격도 크게 오르면서 소비자들에게 이같은 비용이 전가되고 있다.

수급 괴리 관련해 팬데믹 기간중에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업무와 수업을 하게 된 많은 사람들은 가상회의, 가상수업 등을 위해 전자기기 구매를 늘리기 시작했다. 또한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 사람들은 집안에서 조리기구, 운동기구, 더 편한 의자 등 여러 내구재를 구매했다. 소비자들의 여행, 외식, 여가 소비가 내구재와 가정용품으로 옮겨지며 오히려 이 분야의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2020년 말부터 미국에서 백신이 개발되고 긴급 사용허가를 통해 접종이 시작되면서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2021년 중반에 델타 변이의 발생으로 상황이 또 달라졌다. 팬데믹 1차 대유행에서 방역을 잘했던 일부 아시아 지역에서 델

타 변이로 인해 오히려 봉쇄령을 내려야 하는 등 큰 피해를 보았다. 여기다 최근 오미크론의 돌발 변수가 작용하고 있다.

Shape of the pandemic in parts of Asia
Number of cases per day from Jan 2020 to 1 Aug 2021, seven-day rolling average. Each country on its own scale



Source: Johns Hopkins University

이는 결국 수요와 공급의 양극화로 이어졌다. 처음에 어려움을 겪던 유럽 등 서구 지역은 점차 회복세와 더불어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 특히 베트남과 중국에서의 팬데믹 문제는 팬데믹에 따른 공급망 혼란에 더욱 큰 혼선과 악영향을 끼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미국인들의 소비 패턴이 온라인 쇼핑으로 집중되었다.

나. 국제 물류대란의 현황

2021년에 들어서 시간이 가면서 백신 개발과 접종 등으로 경제가 회복되었다. 그동안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부양 현금을 받은 미국인들은 그동안 집안에만 갇혀 있었다 소비와 수요가 분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팬데믹 때문이라는 이유로 향후 경기 회복에 따른 재고 방안을 미리 마련하지 못한 기업체들이 재고를 늘리려 했으나, 태평양 노선의 출발지인 아시아 제조 공장들이 팬데믹에 따른 활동 제한으로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른바 공급망 병목현상이 발생하였다.

미국

2021년 10월 말 통계에 따르면 미국 수입품의 40%가 몰리는 LA항과 롱비치항에는 2021년 하반기 들어서 화물선 70~85척이 입항을 못하고 대기 상태가 되었다. 선박에 있는 상품 가치액이 한화로 31조 원으로 추산될 정도로 이런 '항만 정체 대란'이 벌어졌다. 항만 시설이 선박을 통한 수입품 하역을 처리하기 힘든 데다 가동 인력이 태부족이었다. 이같은 상황은 2021년 12월 초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 항구에 화물선이 입항하는 데 걸리는 기간도 평소의 3배가 정도가 걸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항만들의 '24시간 운영'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항만 가동도 24시간 운영되지 못할뿐더러 항만에 하역한 수입품을 미국내 지역으로 옮기는 트럭 기사들도 태부족한 상황이다. 미국 태평양상선협회(PMSA)에 따르면 올해 1~7월 LA항과 롱비치항을 통해 수입된 컨테이너 물량은 6백만1,684 TEU이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대비 23.4%, 지난해보다는 35.1% 증가한 수치. 문제는 글로벌 선복량과 항만의 화물 처리 능력을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없다는 데 있다. 물론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는데도 상당한 기일이 소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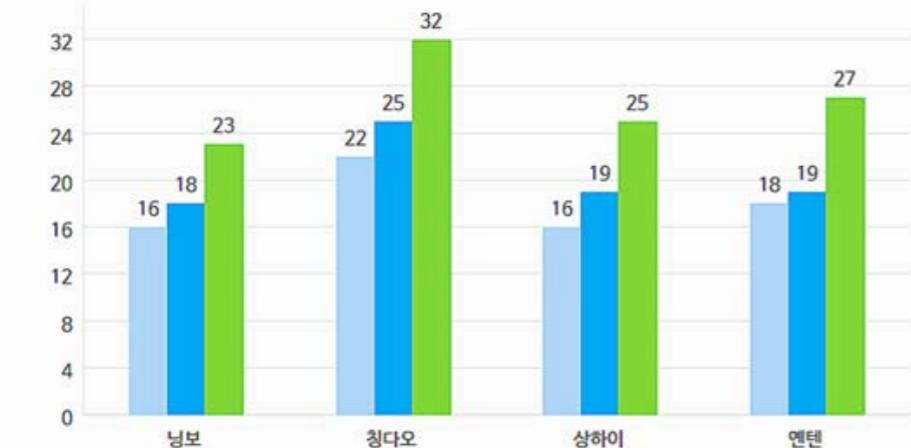
항만 하역 일손은 물론 미국 전역으로 운반할 트럭 기사 역시 태부족 상태이다. 특히 트럭 운송은 미국 내 상품 물류 유통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물류망의 핵심인데, 미국 전역에서는 현재 트럭 기사 8만여 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와 열악한 근무 환경이 겹쳐 고령 운전자들의 조기 은퇴가 늘어난 데다 미국의 국경 폐쇄로 이주 노동자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오미크론의 여파는 공급망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중국

중국은 팬데믹 초기에 제한 조치가 잘 시행되면서 경제 회복과 생산의 타격이 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델타 변이 발생으로 정부의 제한 조치가 이루어져 생산 가동에 타격을 받았다. 여기다 11월 말에 발생한 신종변이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21년 하반기에 석탄 수급 부족으로 전력난이 가중되면서 반도체와 생필품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 전 세계 제조업 기지로 불리는 중국 장쑤성, 저장성 등에서 석탄 가격 급등으로 전력 사용이 제한되면서 수많은 공장이 가동을 중단한 것이다. 중국 공장들의 생산 차질은 전 세계 생필품 공급망에 타격을 주고 있다. 2021년 8월 말부터 3개월간 제조 생산에 어려움을 겪었다. 2021년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의 부채 문제와 팬데믹 재확산으로 성장둔화를 야기했다. 이런 와중에 공식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가 10월의 49.2에서 11월에 50.1로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동안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으로서의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으로 2021년 3분기와 4분기에도 GDP가 둔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2021년 12월에 들어서면서 다소 문제가 풀리기는 했지만 공급망 가시성 플랫폼 Project44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10월 7일 기준으로 상하이와 낭보 앞바다에 약 386척의 선박이 정박해 있다. 한 때 두 항구에만 228척의 화물선과 45척의 컨테이너선이 있었다. 이러한 수치는 연말연시 판매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 회복 기대감으로 시작된 기업과 개인의 소비 급증에서 시작됐다. 중국 항구를 통한 컨테이너 무역(해상 운송)은 전 세계 40%를 차지한다. 상하이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바쁜 컨테이너 항구이며 낭보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봄비는 항구이다. 이러한 정박 지연 원인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 전역의 기업들은 석탄 부족과 정부의 엄격한 에너지 정책 및 전력 배급으로 전력 부족 위기에 직면해 있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으로 인한 생산 및 물류 차질이 시작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상품 및 부품 조달에 비상이 생긴 것이다. Project44의 인사이트에 따르면 컨테이너나 선박이 부족해 중국 주요 항구에서 컨테이너 롤오버 현상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롤오버(Roll-over): 예정된 선박에 선적하지 못하고 다음 선박으로 이월해 선적을 넘기는 것). 그러나 2021년 12월 초 현재 이같은 중국 항만 혼잡도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중국 → 미주 서안
화물 리드타임 Days 비교 2019~2021년



▲출처 : project 44

베트남 등 동남아

주요 수출국인 베트남의 활동 제한 조치는 국제 물류난의 악영향을 끼지고 있다. 더우기 최근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에 대한 여파로 직원들의 근무 회피로 관련 수출 회사들이 인력 수급에 애를 먹고 있다. 2021년 11월초 현재 직원들의 근무 회피로 인해 예컨대 금속류 업종(Sewing machines, metal presses)의 경우 공장들이 직원들의 근무를 유인하고 있으나 30% 이상의 인력이 부족해서 공장 가동율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신종 변이 오미크론의 우려감이 회복 속도를 둔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내 주요 수출 지역인 호치민시의 수출 가공 공단과 공업단지의 경우 11월 중순 현재 전체 근무자가 13만5천명으로 이는 팬데믹전 보다 46%나 줄어든 상황이라고 베트남 Covid 19 대책 당국은 전하고 있다. 예컨대, 베트남 호치민 한 봉제공장에 완성하지 못한 골프 및 아웃도어 티셔츠가 16만장 남아 있다. 추석 전 까지 본사에 납품해야 할 가을 및 겨울 제품의 50%에 이르는 물량이다. 원부자재는 이미 베트남 공장에 가 있다. 납품가 추정액이 한화로 27억원이다. 이중 원부자재가격으로 80%가 이미 지불된 상태다.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도 300여명 근로자 임금의 70%를 지불해야 한다. 코로나 이후 수익은 마이너스다. 다음 시즌을 기다리면서 울며겨자먹기로 운영 중이다. 9월15일 가동돼도 물류대란이 폭발할 것이다.” (베트남 호치민 봉제공장 대표) 베트남 락다운 여파가 국내 패션의류 시장에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베트남 주요 도시봉쇄가 2~3개월째 지속되면서 대부분 공장이 가동을 멈췄다. 일부 대형 기업을 제외하고 호치민 지역에 생산을 의존하는 기업들은 FW 물량의 30%에서 절반 정도의 물량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동남아 상황은 아직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베트남 정부가 봉쇄 조치의 단계적 해제를 시사하면서 국내 업체들이 가동 정상화를 위해 힘쓰고 있지만 현지에 동반 진출한 부품공장 가동률 저하가 계속되면 정상화에 시일이 더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때 블랙 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등 가전제품 성수기인 올 4분기 판매에 차질을 줄 수도 있다. 한마디로 세계 공급망에서 중요한 점유율을 차지하는 베트남의 수출 공장 가동이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및 원자재의 경우

물류 대란의 가장 여파가 큰 반도체 부족 현상은 팬데믹 동안 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며 생겨났다. 반도체 회사들은 반도체를 디자인하는 Qualcomm, Nvidia와 Apple 같은 기업과 반도체를 제조하는 기업들로 나뉜다. 하지만 반도체 수요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생산과 조립 물량이 여의치 못해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반도체 생산의 경우 첨단 기술과 공정등이 무척 세밀하고 까다롭다. 미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에 소재한 한국 기업들은 물론 미국 기업들에게 생산 시설을 확대를 요청하고 있지만,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향후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Shipping data providers show costs are falling



▲출처 : FT

다. 국제 물류대란 관련 전망

전문가들은 미국의 ‘물류대란’이 2022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 기업들이 재고 확충을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이면서 이미 올해 미 수입 화물량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신종 변이 오미크론의 여파로 오히려 물류 대란의 어려움을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언론과 연구 기관들은 빨라야 내년 상반기이나 물류대란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주요 항구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 봉비치 항만청 관계자는 “물류대란이 2022년 여름까지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2022년 중반이나 연말까지 항구의 혼잡이 예상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방 교통부 측은 “우리가 올해 경험하고 있는 많은 (물류의) 어려움들이 2022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며 “그러나 장·단기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들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공급망 해소 방안과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법안에는 170억달러(한화 약 20조 1195억원)의 예산이 항구에만 할애됐다”며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서 수요 불안정에 따른 병목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과제의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물론 11월 중순 이후부터 태평양 노선의 선반 운항 노선의 운임료가 다소 낮아졌지만 당분간 물류 대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병목 현상이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연말 쇼핑 시즌에 주문이 폭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연말 쇼핑 품목뿐 아니라 화장지와 생수, 옷, 반려동물 사료 같은 필수품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이 최소 2022년 2월까지는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윌리 시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는 BBC에 “물품이 생산되더라도 물류난으로 인해 소매업자들이 물건을 운송하는데 겪는 어려움은 계속 어려워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4. 디지털무역 동향과 시사점

디지털 기술을 기반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등장과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 성장하고 있으나 그동안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협정은 부재하였다. WTO는 1998년 일반이사회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지속하였으나 2017년까지 회원국간 전자전송 무관세 적용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것 이외에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상품,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WTO 협정만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규율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과 새로운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의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었다.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 협상은 2018년 3월 WTO 71개 회원국이 채택한 전자상거래 공동선언문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1) WTO 전자상거래 협상-통합문서의 구성과 내용 가. 구성

통합문서는 협상국이 제출한 제안서와 협상내용이 취합된 것으로 전자상거래 원활화, 개방과 전자상거래, 신뢰와 전자상거래, 공통 이슈, 통신, 시장접근 분야와 부속서로 구성되었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주요내용

구분	소구분	내용
Section A 전자상거래 원활화	A.1 전자거래 원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 전송에 관한 법적 체계, 전자인증과 전자서명, 전자계약 - 전자송장, 전자결제 서비스
	A.2 디지털 무역원활화 및 로지스틱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이 없는 무역, 미소 마진, 세관 절차 - 싱글 윈도우 정보 교환과 시스템 상호운용성 - 로지스틱스 서비스, 무역 원활화 강화 - 상품 반출과 통관을 위한 기술 사용, 무역 원활화 지원 서비스
Section B 개방과 전자상거래	B.1 비차별 및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제품 비차별 대우 -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 책임제한 -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 침해
	B.2 정보의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간 이전/국경간 정보 이전 - 컴퓨팅 설비의 위치 - 금융정보/금융 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금융 컴퓨팅 설비의 위치
	B.3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B.4 인터넷과 정보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데이터 개방, 인터넷 접근 개방/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을 위한 인터넷 접근과 사용 원칙,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의 접근과 사용, 경쟁
Section C 신뢰와 전자상거래	C.1 소비자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소비자 보호, 원치 않는 상업 전자 메시지
	C.2 프라이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
	C.3 비즈니스 신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스코드, 암호를 사용하는 ICT 제품
Section D 공통 이슈	D.1 투명성, 국내 규제 및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명성, 무역 관련 정보의 전자적 가용성 - 국내 규제, 협력, 협력 메커니즘
	D.2 사이버 보안	
	D.3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 강화, 기술 지원
Section E 통신	E.1 통신 서비스에 대한 WTO 참고문서 업데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위, 정의, 경쟁적인 세이프가드, 상호연결, 보편적 서비스, 라이선싱과 인증, 통신 규제 기관
	E.2 네트워크 장비 및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상거래 관련 네트워크 장비와 상품
Section F 시장접근	서비스 시장 접근, 임시 입국 및 전자상거래 관련 인원 부족, 상품 시장 접근	
Annex 1	서언, 정의, 원칙, 범위, 다른 협정과의 관계, 일반적인 예외, 안보 예외, 건전성 조치, 조세, 분쟁해결, 전자상거래의 무역 측면에 대한 위원회	

▲ 자료: WTO, KIEP

나. 주요 내용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전자거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전자전송에 관한 법적 체계와 인증, 서명, 계약, 송장 등에 관한 법적 효력의 동등성을 논의하고, 전자결제 서비스에 대한 제안을 담고 있다. 전자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체계는 유지하지만 불필요한 규제 부담은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자유롭게 전자인증과 전자서명의 방법을 결정하고, 법적 요건의 준수 여부를 사법·행정 당국이 확인할 기회를 보장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전자계약 시 전자적 수단으로 체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도록 하며, 전자송장(e-invoicing)과 종이에 작성된 송장 간 법적 효력의 동등성에 관한 논의와 전자송장에 대한 조치가 국가간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한 무역원활화 관점에서 전자적으로 제출된 무역행정문서를 종이 형태의 무역행정문서와 법적으로 동등하게 수용하도록 노력할 것과 전자상거래에서 간소화된 세관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방과 전자상거래

디지털 제품에 관한 비차별 대우 및 인터랙티브(interactive) 컴퓨터 서비스의 책임 제한과 침해를 다루고 있으며 특정 디지털 제품이 다른 동종의 디지털 제품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보조금(정부지원 대출, 정부 보증, 보험 등 포함)과 방송은 비차별 대우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데이터와 관련해 국경간 정보 이전과 컴퓨팅 설비 위치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었으며, 해당 데이터 관련 조항을 금융 분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또한 전자전송(electronic transmission) 관세에 관한 조항에서 전자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신뢰와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에 관한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소비자 보호와 스팸 메시지에 관해 제안하고 있다. 온라인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기나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나 법규를 채택하고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제공하는 법적 체계·조치를 채택하거나 유

지하고, 국제기구나 국제기관이 제시하는 표준, 원칙, 지침, 기준 등을 고려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비즈니스 신뢰는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와 암호화를 사용하는 ICT 제품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다. 협상을 저해하는 요인

협상국들의 국내법 제정 수준

협상국들의 전자상거래 관련한 국내법 제정 수준이 상이하며 전자상거래 원활화와 관련된 기술이나 데이터 관련 조항에 관한 법적 이해력에 대한 국가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선진국들도 전자상거래 관련 국내법의 수준이 다르며 개도국의 경우 디지털 인프라 수준의 차이가 심하고 일부 국가의 경우 종이 없는 무역, 전자문서, 전자서명, 전자인증 등 관련 시스템이나 기술이 전무한 상황이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국들의 관련 국내법 제정 현황

법유형	제정		제정 준비		제정 없음		관련 자료 없음	
	선진국	개도국	선진국	개도국	선진국	개도국	선진국	개도국
전자적 거래	100	90	0	2	0	2	0	6
온라인 소비자 보호	100	67	0	4	0	8	0	21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100	76	0	8	0	8	0	8
사이버 범죄	100	86	0	4	0	2	0	8

▲자료: UNCTAD, KIEP

관심 분야와 용어의 차이

통합문서가 전자상거래 관련한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협상국의 주된 관심 분야의 차이가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협상안을 제안하지만 중국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 거래를 확대하는데 중요한 전자송장, 전자결제, 운송 서비스 등에 관한 조항을 단독으로 제안한 것이 특

징이다. 개도국이 관심을 갖는 역량 강화와 기술 지원은 인도네시아와 중국이 제안한 것이 전부이다. 또한 협상국마다 사용하는 전자상거래 용어가 다양하고 이해가 서로 다른 점도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자체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이해가 상이하여 논쟁의 소지가 남아 있다. 미국의 경우 전자상거래를 ‘인터넷을 통한 상품과 서비스 거래’로 정의하고 데이터와 무료 서비스의 물물교환 개념으로까지 확대한 반면, 중국은 ‘상품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라. 협상에 대한 평가

WTO 회원국들 중 60개국만 협상에 참여하고, 78개국이 협상에 참여하지 않아 협상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로 인해 협상 타결 이후 이행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거나 협상 결과의 법적 구조를 시장접근 의무와 연결하는 단계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데이터 관련 의무조항이 시장을 선점한 디지털 다국적기업에만 유리한 강한 의무조항 일변도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비스 시장접근의 사업 서비스, 통신 서비스, 도소매 서비스, 금융 서비스, 운송 서비스 산업에서 시장 개입이 추가로 허용될 경우, 서비스 수출국인 선진국은 이득을 취하지만 서비스 수입국인 개도국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 COVID-19 이후의 전자상거래 전망

가. 전자상거래 성장 요인

전자상거래의 급성장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봉쇄조치, 이동제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은 산업계와 일상에서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했고, 온라인거래를 급성장시켰다. 그동안 전자상거래가 정보통신기술 발전, 스마트폰 보급, 결제시스템 발달 등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동제한과 사회적 거리 두기, 기타 비대면화가 확산되면서 온라인거래가 급증하였다. 언택트 소비가 부각되고 B2B 및 B2C 온라인 판매는 급증했으며 보건용품, 식료품 등 다양한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국제적으로

도 국경폐쇄, 여행 제한, 입국 제한 등으로 인해 무역거래에서도 온라인화가 확대되었으며 이같은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차원의 전자상거래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온라인 쇼핑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시장 플랫폼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부차원의 온라인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 시스템에 대한 수요 급증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격리의 상황에서 전자제품 및 시스템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였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의 업무 및 개인환경에 영향에 주면서 전자상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문화 컨텐츠가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전환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소비경향의 변화

코로나19 이후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매출이 급증하였다. 아마존의 경우 2020년 2월 최악의 경기 위축에도 전년동기대비 2배 증가한 52억 달러의 수익을 기록하였다. 2020년 2분기에는 전체 소매 대비 전자상거래 점유율이 16.1%까지 상승하였다. 전자상거래가 식료품 판매까지 확장되면서 전체 식료품 판매액의 8%를 차지하는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유통매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인터넷에서 불편한 결제 방식이 모바일에서 해결되면서 모바일 거래가 디지털 매출의 20%대까지 성장하였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온라인 구매 항목이 다양해지고 배송시스템 구축되는 등 전자상거래 수준을 한단계가 높아졌으며 이같은 변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전자상거래 트랜드 변화

소비품목의 다양화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매장의 공급부족을 경험하면서 소비자들이 배송 기간과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온라인 구매를 선택하였다. 콜드체인 기술과 데이터 기반 물류 시스템의 발전으로 저온·실시간 배송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온라인 시장으로

진출하기 어려웠던 식료품 시장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고령층의 온라인 쇼핑 증가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고령층이 중요한 전자상거래 고객층으로 부상하였다. 포브스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56~74세)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식료품 배송, 구독형 OTT 등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접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고령층이 온라인 쇼핑을 통해 배달 서비스의 편리성과 온라인 시장의 다양하고 우수한 품질을 경험하면서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온·오프라인 융합

온·오프라인 채널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옴니채널 구축이 향후 유통기업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자유롭게 제품의 주문부터 사후서비스까지 매끄러운 소비자 경험을 제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기업 입장에서는 채널별로 재고, 물류, 고객관리 등 운영 프로세스를 통합하여 비용 절감, 운송 시간 단축 등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객들의 구매 패턴이나 채널별 매출 구조, 고객 특성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혁신 정보기술(IT) 도입

주요 전자상거래 사이트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 수요의 사전 예측, 재고와 물류 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 품질, 배송 지연 등의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최적의 배송 경로를 설계해 배송 시간 단축, 물류비용 최소화하고 있다.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극 도입하면서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배송 신속성 및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증강현실

화장품, 의류 등 직접 제품을 보거나 만져보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한 품목들을 중심으로 증강현실 기술 도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챗봇 서비스,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물류 자동화 등 판매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고객의 효용을 높이는 혁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디지털 통상규범에 대한 통찰

전통적 무역에서 디지털 무역으로 전환되면서 무역 플랫폼의 디지털화와 이로 인해 상품과 서비스가 디지털화되어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데이터의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 전자상거래 이슈인 전자적 전송물 관세 부과,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디지털세 도입, 새로운 무역 패턴 규범 마련 등이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였다. 디지털 무역의 확산으로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는 변화 속에서 이를 규율하기 위한 디지털 통상규범이 요구되고 있다. WTO 등 국제기구 혹은 양자간 무역협정을 통해 규범을 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서로간의 이해와 입장의 차이로 국가 간 합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디지털 통상규범은 향후 글로벌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정부와 기업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책이 요구된다. 특히, 전자적 전송물 관세 부과 조치, 국경간 데이터 이동 제한조치 강화 조치,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5. 환경과 무역

(1) 탄소국경조정 제도

기후 변화의 위험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전세계적으로 고조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파리협정 복귀 선언,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 등 국제사회가 탄소중립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같은 국제적 정책적 대응은 성장, 고용, 물가 등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가. 탄소중립 추진 경과

1988년 정부간 기후변화협의체(IPCC)가 설립되면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의 틀이 마련되었으며 1992년 리우 환경정상회의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면서 본격적인 글로벌 협력이 시작되었다. 1997년 교통의정서를 채택해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38개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별 감축의무를 규정하였으며 2015년 파리협정을 체결하면서 교토의정서와 달리 191개국에 대한 탄소배출 감축의무를 부여하고 주기적 점검을 통해 협정의 실효성을 도모하였다.

나. 시장 기반 정책

탄소배출권거래제, 탄소세, 탄소국경조정제 등 가격 메커니즘을 활용해 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부정적 외부효과를 내재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 감축을 목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거래하도록 하여 기업이 소요비용과 배출권 가격을 비교하여 더 낮은 비용을 지출하도록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시장은 미

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산되고 있으며 빠른 성장세 보이면서 전세계 온실 가스 배출량 중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중은 2005년 4.9%에서 2021년 17.9%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배출권 거래 현황

	거래량			금액		
	2018(A)	2020(B)	B/A	2018(A)	2020(B)	B/A
EU	77.5	81.0	1.04	129.7	201.4	1.55
북미	11.3	20.1	1.79	12.9	26.0	2.02
중국	1.0	1.3	1.30	0.2	0.3	1.32
기타	0.8	0.9	1.13	1.0	1.4	1.40
합계	90.6	103.3	1.14	143.8	229.1	1.59

▲자료: Refinitiv, 한국은행

탄소세

탄소세는 온실가스의 배출 감축을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 단위당 세금을 부과하여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세수 확보도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조세저항, 자국 기업의 대외경쟁력 약화 우려 등으로 도입이 활발한 편이 아니다. 탄소세는 25개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탄소세가 적용되는 비중은 2020년 기준으로 5.3%에 그치고 있다.

탄소세율 및 온실가스 적용비중

국가	도입시기	탄소세율	비중
스웨덴	1991	133.3	0.08
노르웨이	1990	57.1	0.09
스위스	2008	104.7	0.03
영국	2013	23.2	0.25
프랑스	2014	7.0	0.32
전체	-	29.0	5.3

▲자료: World Bank, 한국은행

탄소국경조정세

국가간 비대칭적 탄소배출 규제시 발생하는 탄소누출을 막기 위해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역외 수입국에 탄소세 명목의 세금을 부여하는 국경조정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EU에서 2023년 도입할 예정이며 바이든 행정부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반면 환경규제 수준이 낮고 탄소배출량이 많은 중국, 러시아 등은 이를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다. 비시장기반 정책

직접 규제

유럽의 주요국과 미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선박 연비규제, 친환경 건축설계 의무화 등의 직접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유럽의 경우 2025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주, 캐나다, 중국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공공투자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공공투자 계획을 발표하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 및 신재생 에너지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의 투자 계획, 기후변화 관련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였으며 EU는 유럽그린딜을 통해 향후 10년간 1조 유로를 투자하여 신재생 에너지, 운송, 건물 부분의 인프라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신인프라정책에서 친환경 자동차 및 전기차 충전소 보급, 스마트그리드 관련 투자 등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향후 각국의 투자계획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라. 경제적 영향

탄소중립정책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는바, IMF는 2021~35년에는 녹색 인프라 투자의 경기부양 효과가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그 이후에는 탄소세 부과 효과가 커지면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에 대해서는 고용유발 효과가 큰 저탄소 산업이 확대되면서 대체로 긍정적

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생산규모가 축소되면서 단기적 실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는 화석연료의 가격이 인상되면서 상승하겠으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 시사점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사가 높아지고 탄소중립 정책 채택과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산업구조 및 기술수준 차이로 인한 국가별로 차별화된 경제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국가간 기술협력 등을 통해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USMCA의 환경규범

가. USMCA의 환경규범의 의의

2020년 7월 발효된 미국·멕시코, 캐나다 협정(USMCA)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환경협정을 광범위하게 수용하고 현대화하였으며 미국이 체결한 무역협정 중에서 환경규범이 가장 포괄적이며 환경법의 적용과 집행이 엄격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USMCA에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을 포함시키고 환경조항에 대해 엄격히 집행하겠다고 밝혀 향후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 등과 환경 문제를 어떻게 협력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나. USMCA의 환경규범 조항

환경법의 정의, 환경성과로의 자발적 메커니즘,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규정, 다자간 환경협정 규정 등의 공통된 내용이 있으나, CPTPP, USMCA에서는 한미 FTA와 달리 분야별 환경이슈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 한미 FTA, CPTPP, USMCA 환경챕터 비교

	한미FTA (11개 조항)	CPTPP (23개 조항)	USMCA (32개 조항)
환경법 집행	O	O	O
다자간 환경협정	O	O	O
오존층 보호	X	O	O
해양환경 보호	X	O	O
생물다양성 보호	X	O	O
침입 외래종	X	O	O
해면어획 수산물	X	O	O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X	O	O
환경상품 및 서비스	X	O	O
대중 참여	X	O	O
기업의 사회적 책임	X	O	O
환경영향평가	X	X	O
저배출 경제	X	O	X
대기질	X	X	O
해양 쓰레기	X	X	O
지속가능한 수산물 관리	X	O	O
해양생물보존	X	O	O
수산 보조금	X	O	O
불법 어업	X	O	O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X	X	O
환경 협력	O	O	O
제도 규정	O	O	O
분쟁 해결	O	O	O

▲자료: kita.net

나. USMCA의 환경규범의 주요 내용

환경법 집행

USMCA에서는 기존의 협정과 달리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의 영향에 미치는 방식을 명확히 하여 분쟁 발생 시 입증책임이 제소국에서 피소국으로 전환되었다.

다자간 환경협정

USMCA의 첫 서명본에는 환경보호를 위해 다자간 환경협정을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당사국의 다자간 환경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약속을 확인하는 선언적 내용만 포함하였으나, 재협상을 통해 협정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법, 규정 및 필요한 모든 다른 조치의 채택, 유지, 이행을 의무화하는 강력한 이행 의무를 포함하였다.

수산보조금

USMCA은 미국이 체결한 무역협정 중 수산보조금 조항을 포함한 최초의 협정으로 과잉어획, 과잉어획능력에 기여하는 모든 보조금의 통제, 감축, 철폐를 규정하고 있다. 수산보조금 조항을 비롯하여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강력한 규범을 규정한 무역협정으로 평가된다.

국내 환경법 집행 감시

당사국이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의견서를 환경협력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쟁해결절차

당사국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해결절차를 발동하기 전에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협의 절차가 다층적으로 체계화되었다. 당사국 간 환경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각각 환경 위원회의 고위급 협의 및 장관급 협의를 개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제소국이 피제소국에 대해 무역협정상의 혜택 적용을 중지할 수 있게 하였다.

(3) WTO의 TESSD 출범

가. TESSD의 출범 배경

GATT 국제무역체제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예외조항이 있었으나 환경보호 문제가 국제통상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환경보호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관심이 증가하면서 무역규범과 환경규범과의 관계, 환경과 무역 간의 연계 및 조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무역환경위원회(CTE)가 설치되었다. 이후 WTO 설립 협정은 국제사회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여 WTO 협정 전문에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WTO 체제의 목적으로 명시하였다. 이후 환경 문제는 2001년 출범한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서 공식 의제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WTO 회원국들이 기후변화와 환경보호를 WTO 핵심의제로 채택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2020년 11월 한국 등 53개국이 참여한 ‘무역과 환경지속가능성 협의체(Trad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tructured Discussions, TESSD)가 출범하였다.

나. TESSD의 성격

TESSD는 CTE의 다자무역체제와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 개발 사이의 조화를 모색하는 역할을 계승하고, 시의성, 개방성, 전문성,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균형 잡힌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기후변화 정책과 무역의 통합, 화석연료 보조금 감축, 환경상품 및 환경서비스 무역, 플라스틱 오염 등 최근의 환경 이슈에 대해서 WTO 규범 안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TESSD는 기후변화협약(UNFCCC)과 같은 다자환경협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무역과 환경이 상호 호혜적 관계임에 주목하고 있으며 무역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WTO 논의에 소극적이던 미국의 참여가 예상되는 가운데 다수국의 참여로 TESSD는 무역과 환경에 대한 핵심 협의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 CPTPP 출범과 의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 하던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에서 미국이 탈퇴하면서 명칭을 바꿔 출범하였다. 기존의 TPP와 비교하면 미국의 탈퇴로 경제적 중요성은 감소하였지만 환태평양 지역의 주요국이 포함되고 최신의 무역규범을 반영한 메가 FTA라는 의의가 있다. 미국이 CPTPP를 가입할 경우 경제적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으나 최근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보호 무역기조를 감안할 때 가입 여부와 시기는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대만, 태국 등이 CPTPP 가입 의사를 밝히면서 발효 이후 가입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나. CPTPP 주요 내용

경제 및 무역관계

미국이 불참하면서 CPTPP는 기존의 TPP에 비해 GDP, 인구, 교역규모 등 경제 규모가 축소되었으나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하는 메가 FTA로 평가된다. CPTPP 체결로 11개 회원국간 18개 신규 양자 FTA가 체결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미국의 탈퇴로 11개 회원국 중 역내 수출 비중이 크게 감소한 국가는 캐나다, 멕시코, 일본, 베트남 등으로 나타났으나 회원국과의 역내 수출입 비중이 1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탄소세율 및 온실가스 적용비중

	TPP	CPTPP
회원국	12개국(미국, 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11개국(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세계 인구 비중	11.1%(8억 명)	6.9%(5억 명)
세계 GDP 비중	37.4%(28.8조 달러)	13.5%(10.2조 달러)
세계 무역 비중	25.9%(8.5조 달러)	15%(4.8조 달러)
대한국 무역비중	35.9%(3,781억 달러)	24.6%(2,588억 달러)

▲ 자료: WTO, 한국무역협회

TPP와 CPTPP 협정의 주요 내용 비교

CPTPP 협정문은 기존 TPP 협정문에서 지적재산권, 투자자 보호 등 총 22개 사항을 유예하였다. 미국이 관철시켰던 조항들을 유예시킨 것은 향후 미국의 재가입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회원국들이 합의를 통해 유예를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협정 발효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발효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신규 회원국 가입을 확대할 목적으로 가입 절차를 단순화하였다.

한국과 미국의 CPTPP 가입 전망

그동안 한국은 미국과의 FTA 발효되고 TPP 참여국의 시장 개방 의지가 낮다고 판단해 TPP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한·중·일 FTA와 아시아 16개국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중점을 두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TPP에서 탈퇴하면서 CPTPP에 가입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당초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틀로 인식됐던 CPTPP에 중국이 가입 신청을 하면서 상황이 바뀌면서 전략적 차원에서 가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CPTPP 회원국의 농식품 부문의 평균 관세 철폐율이 96.3%에 달하고, 높은 농업 경쟁력을 가진 회원국들의 강한 시장 개방 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의 CPTPP 합류에 대해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합류할 경우 CPTPP 가입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과 USMCA 규정의 선진화와 CPTPP 규정이 급변한 국제정세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국이 CPTPP에 가입할 필요성이 낮다는 상반된 전망이 제기된다.

IV KOCHAM 회원사 애로사항

1. 물류 대란에 따른 애로사항
2. 팬데믹과 구인난
3. 주재원 비자 발급
4. 美 철강 쿼터 '품목 예외' 지속적인 수급 차질
5. 기타 애로 사항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 2021년은 비즈니스 관련해 어느 해 보다도 큰 도전에 직면했던 한해였다. 팬데믹으로 인해 경기가 위축되면서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특히 물류 공급망 문제로 비즈니스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시간이 가면서 경기회복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났지만 코로나 감염 우려 등에 따른 미국 노동시장의 긴축 상황 때문에 직원들을 유지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더구나 주재 원 비자 등의 문제도 일부 회원사들에게 발생하고 있어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남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신종변이의 확산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2022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불확실성들이 산재해 있다.

1. 물류 대란에 따른 애로사항

(1) 배경

우선 물류 대란이 발생한 원인은 2021년에 들어서서 미국내 접종률이 확산되고 바이든 행정부의 각종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미 가구들에 현금이 지급되면서 경기가 회복되었다. 같은 경기 회복은 그동안 팬데믹으로 막혀있는 수요가 분출되는 수요 확대와 맞물려 발생했다. 그러나 수출 국가인 중국, 베트남 등 국가들이 팬데믹 초기에는 대응을 잘 했으나, 멜타변이 등 신종 변이가 확대되면서 제한 조치와 봉쇄령이 내려져 이들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공장들이 가동이 중단되거나 크게 축소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즉, 미국 경제의 수요 팽창에 공급이 따라가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화물 선박이 운항되어도 미국 수입선의 주요 항구인 롱비치와 LA 항만의 하역 시설과 운영이 따라가 주지 못해 70척이상의 화물 선박이 항만 해상에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물론 2021년 12월 들어서 이같은 공급만 문제가 점차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공급망 문제 해결은 2022년에도 충분히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2) 한국 회사들에 대한 피해 상황

태평양 노선을 통해 아시아의 수입 제품과 원자재를 공급받는 미국 진출 한국기업들도 아시아에 공급선이 있는 다른 미국 기업들과 같이 피해가 가중되었다. 한마디로 수입 물량을 계속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 납기 지연기간이 평소보다 2배 가량 늘었다는 것이다. 아시아발 화물 선적이 쉽지 않은 상황에다가 미국 항만에 도착해도 항만 하역 시설과 인력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운영 시스템이나 가동 시간이 적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루 24시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설사 어렵사리 미국 항만에 도착했다 해도 이를 미국내 각 지역으로 운송하는 운전 기사들도 팬데믹에 따른 두려움으로 숫자가 태부족인 상황이다. 이는 항만 뿐만 아니라 항공화물 운항도 마찬가지고 트러킹의 인력이나 운전기사가 부족해 물류와 운송이 지연되는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선박요금이 치솟아 한국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진 데다 미국내 각 지역으로의 운송이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급 가격이 올라가고, 계약과 달리 제때 고객사에 제품이 배달되지 못해 이들 고객 업체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면서 비즈니스 피해를 입고 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은 항만 적체 현상과 미국으로의 운송이 지연되자 서부 주요 항만에 24시간 근무 체제를 지시했지만, 이에 상응하는 하역 인력은 물론 항만에서 미국 내륙으로 원자재와 수입품을 운송할 트러킹, 운전기사 태부족 현상으로 실제로는 항만 24시간 운영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하반기 현재 트럭 기사 8만명이 부족하다고 전문가들을 밝혔다.

미국내 한국기업들에 따르면 항만 터미널 포화 상태와 터미널 인력과 트럭 운전 기사의 부족은 물론 반입 불가한 컨테이너를 보관하거나 이동하기 위한 중간 운송 장비(Chassis) 부족 현상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한국 기업들이 경우 해상 운임 급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로 일부 제품들은 남미나 북미의 제조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비용과 납기 기간 등에서 밀려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 기업들 중에는 서부 항만중에서 수입 물량의 70%를 LA와 롱비치 항구를 이용하고 있는데 적체 현상이 발생해 한국에서 LA 도착 기간이 평소에는 10일 정도 소요됐으나 팬데믹 이래로 항만에 뒤늦게 도착해도 하역하는데 한달 이상 소요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부 한국 식품회사들의 경우 미국의 대형 소매 체인인 코스트코, 월마트 등에 공급이 차질을 빚게 됨에 따른 비즈니스 계약이 취소되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즉, 항만 적체 현상 해결이 선결 과제라고 말한다.

특히 지난 2017년까지는 한국의 국적 선사인 현대상선/CUT, 한진/TTI, SM 상선/PierA 들이 미국 현지 터미널에 보유 또는 지분이 있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협력이 가능했으나 한진해운 부도 후에 그같은 영향력이 상실되어 수입 화물 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연히 반출 지연으로 체선료(디머리지 비용) 발생, 트럭 대기 시간 증가에 따른 추가 운임 발생, 컨테이너 반납 지연에 따른 디텐션 비용 발생에 따른 운송 비용 상승은 한국산 국제적인 브랜드도 제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을 벌어지고 있다고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의 미국 법인 관계자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3) 개선 요청 사항

미국에 있는 한국기업들이 요청하는 상황은 우선 단기적으로 수입 화물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항만 터미널의 화물 처리 능력 부족이 빠르게 해소되기를 요청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서부 항만 등 미국 주요 항만의 적체 현상 해소를 위해 하루 24시간 운영시스템의 개선 요구 조치를 내렸지만 항만 하역과 운송을 위한 처리 운영이 풀 가능되어야 하루 24시간 운영 시스템이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아직 이같은 연계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물류 처리 기한 단축을 위한 운영 시스템과 특히 관련 인력의 추가 투입이 절실하다고 한국기업들은 강조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팬데믹 전부터 문제가 되어온 화물 트럭 부족과 운전 기사 부족 현상의 해결 등 물류 인프라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물론 한국 국적 선사의 터미널 보유 또는 지분 참여가 이루어져 미국으로 수입하는 한국기업들의 어려움이 개선되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 팬데믹과 구인난

팬데믹 백신 접종이 점차 확대되면서, 2021년 하반기에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는 가운데 그동안 불가피하게 감원했던 인력들을 다시 채용해야 하는 회사들이 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감염 우려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다시 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자리 수요는 많아지면서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금 인상과 각종 직원 베네핏을 제공해 채용을 회복하거나 늘리려 하는 상황에서 회사 비용이 상승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1) 배경과 구인 애로사항

팬데믹이 2021년 3월에 발생해 락다운과 경기 침체를 겪는 기간이 3개월, 4개월 지속되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필요 없게 되면서 자의반 타의반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는 상황에 직면했다. 물론 일부 한국 회사들은 연방정부가 회사의 직원 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을 활용해 직원들을 유지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은 주별로 금액 비율이 다르지만 미국의 실업 수당을 받으면서 일을 하지 않고 집에 거주하게 되었다. 많은 회사들은 계속 근무하게 된 직원들은 재택 근무 시스템으로 변경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에서 코비드 19 접종이 증가하고, 연방 정부로부터 경기 부양 지원 현금을 받게 되고 구매력이 커지면서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2021년 9월부터 회사들은 분출하는 소비와 경기의 빠른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직원들을 다시 채용하게 되었다. 노동시장 수요가 확대되고 회사들이 직원들을 다시 채용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채용 숫자와 관련 지난해에 채용하려고 했던 직원 숫자를 포함하고 2021년 들어 추가로 필요한 채용 숫자까지 늘어 2021년 하반기 들어서는 업종에 따라서는 지난해에 비교해 많게는 2~3배 더 총원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KOCHAM 회원사인 관련 서비스 CESNA

Group 관계자는 전했다. 예컨대 물류 분야에서 회사들의 인력 수요가 크게 늘어났고, 재무나 회계 업무의 인력도 크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 회사 관계자는 말했다. 업체들은 일자리 수요에 비해 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새로 채용할 경우 예전 보다 임금 인상, 각종 베네핏을 제공해야 함에 따라 이른바 회사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기존 회사의 직원들도 보다 혜택이 좋은 타회사로 이직하는 경우가 발생, 업체 입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존 직원들이 자의 반 타의반으로 타 한국 회사는 물론 미국 회사들로부터 여러 개의 일자리 오퍼를 동시에 받는 직원이 적지 않은데 (한국 회사의 위상 제고 및 인력 수준이 높다는 점이 인식됨에 따라) 미국계 회사들이 근무 환경은 물론 임금과 베네핏이 상대적으로 더 좋아 이직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KOCHAM 회원사인 관련 서비스 HRCap 관계자는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회사의 비전, 근무 환경, 임금, 베네핏을 비교해 쉽게 이직할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회사 근무 기간이 적어도 2~3년은 되었으나 이제는 1~2년 만에 쉽게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두번째 H-1B 을 통한 한국의 잠재적인 청년 인력 수급도 어려운 상황이다. 팬데믹 전에는 이들 청년들이 미국 대학 또는 대학원들 졸업하고 OPT를 통해 인턴쉽 기회가 있으며 H-1B를 신청해서 허가되면 초급 직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그런데 2021년 5월이나 동년 12월 졸업할 경우 팬데믹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현지 미국에서 이들을 채용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 된 것이다. 특히 지역별로 미 동부지역은 H-1B 지원이 힘든 상황이지만 중서부 지역의 경우 지원 상황이 상대적으로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 취업하려는 경향이 감소했다.

(2) 향후 전망과 요청 사항

현재 회사 입장에서 직원 채용이 매우 힘든 상황인데 이는 인력이 부족한데다 직원은 필요하니 임금을 올리고 각종 베네핏을 제공하는 상황 때문에 회사들 간에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인력 수급 문제가 적어도 최소한 2022년 상반기까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입사한 상황에서도 다른 직장 근무 환경을 비교, 현직 직원의 유동성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

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내 한국 기업들은 이같은 문제 해결이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하면서 첫째로, 고용 비용 부담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개선하도록 미 정부의 세제 개혁 즉, 법인세 인하 등을 원하고 있다.

둘째로 한국에서 우수한 청년 인력의 인턴쉽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이들의 미국 인턴쉽을 원활하도록 인턴쉽 지원 보조가 신설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구인을 원하는 회사들과 구직하려는 잠재적인 인력간에 채용 관련된 정보를 원활히 교환할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이나 기회가 있기를 추가로 요청하고 있다.

3. 주재원 비자 발급

팬데믹으로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인력 수급 문제이다. 팬데믹으로 회사 차원에서 인력 풀이 많이 감소하고 또한 기존 인력이 외부 경쟁업체에 스카웃되고 있어 힘든 상황이다. 임금 인상 요구도 높아진 상황이다.

(1) 애로사항

이같은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업무 성격상 한국어가 능통한 한국 졸업 대학생이나 유학생 한국인 직원을 채용하려고 해도 전문 취업 비자 H-1B 비자를 얻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주재원 비자 중에 현재 가장 어려운 것이 L-1 비자이다. 물론 2020년 트럼프 행정부 때 주재원 비자 중단 사태가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재개되었지만, 여전히 엄격한 서류 심사와 절차로 인해 주한 미대사관의 인터뷰 스케줄 기간이 때로는 1개월이나 1개월 반 늦어지고 있다. 또한 본사와 미국 현지 간의 인사 시기가 불가피하게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L-1 비자의 경우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는 비자 스템프 유효기간과 미국 내 체류기간의 불일치 문제다.

미국 대사관에서 L-1 비자 최초 발급 시 일반적으로 5년 유효 기간의 L-1 비자 스템프로 발급해주지만 주재원의 미국내 체류 기간은 3년이 된다. 이에 따라 3년 뒤에는 체류기간(I-94) 연장을 위한 L-1 연장 청원서를 준비하여 이민국에 접수해야 한다. 연장 신청도 간단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거부되는 경우가 있다. 미국에서 L-1 연장 신청허가가 거부되는 경우 한국에 복귀해야 하며, 한국에서도 갑자기 새로운 주재원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L-1 연장신청 처리 절차가 좀 더 빨리 진행되거나 특히 연장 거절 시 대응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L-1 비자 신규발급을 처음 신청 시에도 빠르게 처리가 진행되기를 미국 소재

한국 기업들은 요청하고 있다. 특히 L-1 주재원 비자 발급 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예전에는 급행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1~2개월이면 주재원 비자 발급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이 소요된다. 그리고 서류 심사 요건도 여전히 까다로워, 소요기간이 당장 단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2) 개선 요청 사항

따라서 앞으로는 비자 발급 연장이 거부될 경우 본사나 현지 법인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주재원 비자 발급 시, 이미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경우 비자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과거 크레딧을 감안해서 이들 기업에서 주재원 비자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간소한 절차를 통해 비자 발급이 이루어지기를 회사들은 요청하고 있다. 특히 호주나 싱가포르/칠레처럼 미국과 FTA에 체결한 국가들에게 이들 국민들을 위한 E-3 비자나 H-1B1 비자 쿼터가 승인된 것처럼, 한국인들을 위한 연간 쿼터별 “한국인 전문직 취업 비자” 발급이 승인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호주 국민만 해당되는 E-3 비자가 개설되었고 칠레와 싱가포르의 경우 미국과의 FTA가 체결되었던 당시 일반 전문취업 H-1B1 쿼터 6만 5천명 분의 비자 쿼터 중, 칠레의 경우는 1천 4백개 비자와 싱가포르 경우는 자국민들만 5천 4백개의 H-1B1를 총 6만 5천 쿼터에서 빼서 칠레와 싱가포르 국민만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숫자를 분리하여 우선 H-1B 비자 승인을 받고 있다. 이같은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승인을 위해 2012년 3월 15일 (KORUS) FTA 시행 이후 수년 동안 의회에 해당 비자를 요청하고 있지만, 미 의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 美 철강 쿼터 ‘품목 예외’ 지속적인 수급 차질

큰 틀에서 한국과 비슷하게 유럽과 미국도 보복 관세를 철폐하고 2022년 1월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무관세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유럽은 매년 2백 30만톤(과거 수출 물량의 75%)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되었다. 한국은 이미 매년 263만톤(과거 수출 물량의 70%)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물량외에 수입할 수 있는 ‘품목 예외’가 인정되어 시행 중이나 2020년 KOCHAM 통상백서에 설명한 바와 같이 계속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다.

(1) 배경

한국이 철강 쿼터 제한 물량 이외에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는 ‘품목 제외’가 인정되었지만, 이같은 품목 제외 승인 물량을 미국으로 수입/통관할 경우, 해당 물량은 매년마다 한국의 쿼터 잔량을 삭감시켜 품목 예외라는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품목 예외’의 경우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품목 예외 승인 물량의 경우 한국의 연간 쿼터와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현재는 철강‘품목 예외’의 적용을 받으려면 한국에 할당된 쿼터가 채워진 후인 10월부터 적용이 가능해 한국회사들이 적기에 미국 수입업체에 공급하기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과거 배경을 살펴보면 미국 정부는 2018년 3월 26일 중국과 일본 등을 제외한 한국 등 일부 국가들에 대해 Section 232 철강 관세 25% 부과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한국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한국산 철강에 대해 관세 25% 면제 대신에 과거 3년간(2015년~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인 총 263만

톤 쿼터만(수입 할당) 한국기업들이 미국 수출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기업들의 철강 절대 물량은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즉, 철강관세를 부과받는 대신 쿼터를 선택한 한국의 미국 수출 물량은, 25% 관세부과를 받고 있는 일본과 중국 등 주요 경쟁국보다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쿼터 선택이 일본과 중국 등과의 대미 수출 경쟁에서 오히려 어려움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미국내 철강 수입 업자들의 요청과 한국 등 철강 수출 기업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미국 상무부가 70% 수출 쿼터 적용을 받지 않고 일부 추가적인 철강 품목의 미국 수입을 허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철강 ‘품목 예외’로 미국에 철강 추가 수출을 해도 연간 70% 쿼터가 소진되는 10월이나 되어야 ‘품목 예외’인 추가적인 철강을 수출할 수 있어 충분한 철강을 미국에 공급할 수 없어 한국 철강 수출 회사들은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회원사는 포스코, 세아제강, 포스코 인터내셔널, 삼성물산, 한화, 현대종합상사 등이다.

(2) ‘품목 예외’ 인정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8월 미국이 당초 우리나라에 허용하지 않았던 철강 관세에 대한 ‘품목예외’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가 추가로 승인하는 철강 품목은 25% 관세나 70% 수출 쿼터(할당)를 적용 받지 않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길이 열렸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철강 쿼터와 아르헨티나의 알루미늄 쿼터 외에 미국 산업의 상황에 따라 선별적인 면제를 허용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포고문은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25%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쿼터를 수용한 국가들도 품목 예외 신청을 통해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및 쿼터 면제가 가능해졌다. 이런 예외 품목은 미국내에서 충분한 양과 품질을 생산하지 못하는 품목들로서 미국 현지에 있는 기업들이 신청해야 하며 미상무부과 심의해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경우 강관류 등 이미 쿼터를 채운 품목의 경우 혜택을 보게 된다.

(3) '품목 예외'의 애로사항과 전망

현재 한국 철강 회사들은 미국의 '품목 예외'(Section 232 exclusion grant)가 적용되지만 추가적인 물량의 미국 수입이 연간 기간/쿼터 쿼터 소진 여부에 상관없이 가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적극 희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산 철강, 특히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철강 품목의 수출 뿐만 아니라, 미국내 자국 회사(동 품목을 활용하는 제조사)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 관련 기업들은 미국내 자동차 산업, 전기 전자 산업 등 미국 철강 수요 고객사들이 희망하는 양질의 경쟁력 있는 한국산 철강재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국가 쿼터가 소진된 4 분기에만 이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의 길이 제한된 상황이다. 즉, 허용된 연간 쿼터는 1 분기 최대 30%, 2 분기 최대 30%, 3 분기 최대 30%가 소진된 후인 10 월부터 미국에 추가 철강을 수출하고 있어 적기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해당 철강 품목의 수급을 맞추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추가 수출이 허용된 양질의 철강재는 미국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제품이거나 대체가 어려운 품목으로 이는 미국 관련 회사들에게 필요한 철강재를 지칭한다. 이에 따라 미국 수입 업체들은 제때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수 없는 한국기업들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기타 애로 사항

(1) 상무부의 회사 부품/완제품 정보 요구

연방 상무부과 공급망 병목현상 해소를 명목으로 연방 상무부가 한국 일부 대기업들에 제품 부품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이나 완제품 품목 관련해 매출, 생산, 재고, 고객 분야 등의 14 개 질문에 답변을 요구했다. 물론 TSMC 등 외국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요구했다. 상무부는 공급업체와 수요업체간 수급 데이터를 투명하게 확인해 오류가 생긴 부분을 수정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자료 제출 여부는 업체 자체에 맡긴다고 했지만 응하지 않을 경우 국방물자생산법 등을 동원해 강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물론 한국 회사들은 연방 상무부의 요구로 인해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보 제출의 경우 민감한 정보 유출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한국정부는 미국 정부와 정보의 민감성 수준에 대해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향후에는 기업의 정보 제출이 기업의 비즈니스 정보 유출 등 우려가 있기에 연방 정부는 이같은 요구사항을 향후에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2) 한국산 수산물 대미 수출 제한 예상

미국 정부가 2023년부터 MMPA(해양 포유류 보호법)을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포획된 한국산 수산물의 미국 수출이 제한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한국의 정치망(멸치 등)과 저인망 등 관련 어업이 포획한 수산물의 미국 수출길이 제한되어 이들 업체들에 피해가 예상된다. 물론 한국 정부에서 이에 대응하고 있지만, 유관기업들 간의 긴밀한 협력도 필요한 상황이다.

(3) 군수품목 자료 열람 라이센스 발급 검토 기간

미국 법인에서 일하는 주재원이 군수 품목에 대한 기술 데이터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제무기거래규정(ITAR: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라이센스 중 하나인 DDTC(Directorate of Defence Trade Controls)의 DSP-5 라이센싱이 필요하나 신청한 이후 기간이 통상 8 개월에서 1 년 정도 소요되고 있어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라이센스 검토 기간을 1~2 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면 관련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V 미국진출 우리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1. 삼성전자
2. POSCO 아메리카

1.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뛰어난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가요 미래로! Enabling People’ 이라는 CSR비전 아래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도록 세계 전역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래 세대들이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자연을 존중하며 인류의 삶과 지구환경 보전에 기여한다는 녹색경영 이념하에 고객에게 친환경 가치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Samsung Solve for Tomorrow

삼성 솔브 포 투모로우(Samsung Solve for Tomorrow)는 미국 전역 중고생을 대상으로 STEM(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접근 방식을 사용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창의 경진 교육 대회로 삼성전자의 대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2010년 미국의 교육 격차 증가와 취업 준비생들의 STEM 교육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Samsung Solve for Tomorrow는 STEM 인재 육성 외에도 참여 학생들에게 팀워크와 비판적 사고를 심어주고, 기술을 활용한 문제해결 경험을 쌓게 해줌으로써 미래 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지역사회 이슈에 대해 직접 해결책을 모색하게 도와줍니다.

삼성전자 임직원으로 구성된 전문멘토단이 프로그램 전과정에서 기술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2,600개 미국내 공립 학교가 참여를 했고, 총 2,000만 달러 상당의 IT 기기와 학습 교재가 제공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본 프로그램 외에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IT 교육 프로그램 Samsung Innovation Campus를 비롯하여 소외계층 학생들 위한 다양한 후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성 나눔 활동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2014부터 시작한 임직원 봉사와 후원 프로그램 ‘Samsung Gives’를 올해도 실시 하였습니다. 한달 간 운영되는 ‘Samsung Gives’는 삼성전자 미국법인 직원들이 전국 및 지역 자선단체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재능기부와 봉사 활동을 1주간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1회를 맞이한 올해는 임직원들과 참여자들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 150,000 시간의 봉사 활동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직업 훈련, 태양열 충전기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 필요한 곳에 나눔 활동을 실천하였습니다.

환경

삼성전자는 개발, 구매,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등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환경보호청으로부터 ‘2020 SMM 어워드(Sustainable Materials Management Awards)’를 두 개 부문에서 수상하여 친환경 포장재 사용과 폐전자 제품 회수성과를 인정 받았습니다.

또한 2020년 미국을 비롯 유럽과 중국지역 모든 사업장이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달성하여 2021년 미국 환경보호청이 주관하는 ‘Green Power Partnership’ 참여 700개 기업 중 14위를 차지하고, 외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기업공로대상’과 정기 어워드 최고등급인 ‘지속가능최우수상’을 8회째 수상하였습니다.

2. 포스코아메리카



최근 아버지 별세로 슬픔을 맞이했던 조지아 주민이 신문기사를 통해 포스코아메리카에서 한국전참전용사들 묘역참배를 하며 가족분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소식을 접해 회사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Truelove씨는 포스코아메리카에서 한국전참전용사를 잊지않고 꾸준히 감사를 표해줘서 고맙고, 한국전에 참여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에 이런 사실을 아셨다면 매우 기뻐하셨을꺼라는 말도 전했습니다. 그의 마음 아픈 소식을 접한 포스코아메리카는 2021년에는 참전용사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스테인레스 액자로 제작하여 그들의 legacy를 보존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포스코아메리카 사무소가 위치한 조지아, 앨라배마, 워싱턴DC 및 관계가 있는 뉴욕주 중심으로 한국전참전용사 100분을 선정 하여 인물액자 제작을 도입하였습니다. 다만, 대부분 아흔살이 넘은 참전용사들은 사진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스코아메리카는 참전용사들을 직접 찾아가 사진 촬영을 하는 수고스러움 보여주며, 참전용사들은 한국전이 72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업인 포스코가 본인들을 위해 진심어린 만남을 가진다는것에 크게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미국은 총 12개의 전쟁을 치루웠고, 그중에 8개는 다른 나라를 위해 싸운것이었지만, 한국만이 유일하게 여전히 감사를 표하는 나라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앨라배마에 계신 예비역 대령인 Carl Cooper는 올해 101세를 맞이하신 특별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예정되었던 기증식 2주전에 별세를 하셨고, 이런 안타까움 속에 조카인 JDanny Cooper씨 삼촌을 대신하여 액자를 수여받아 추모를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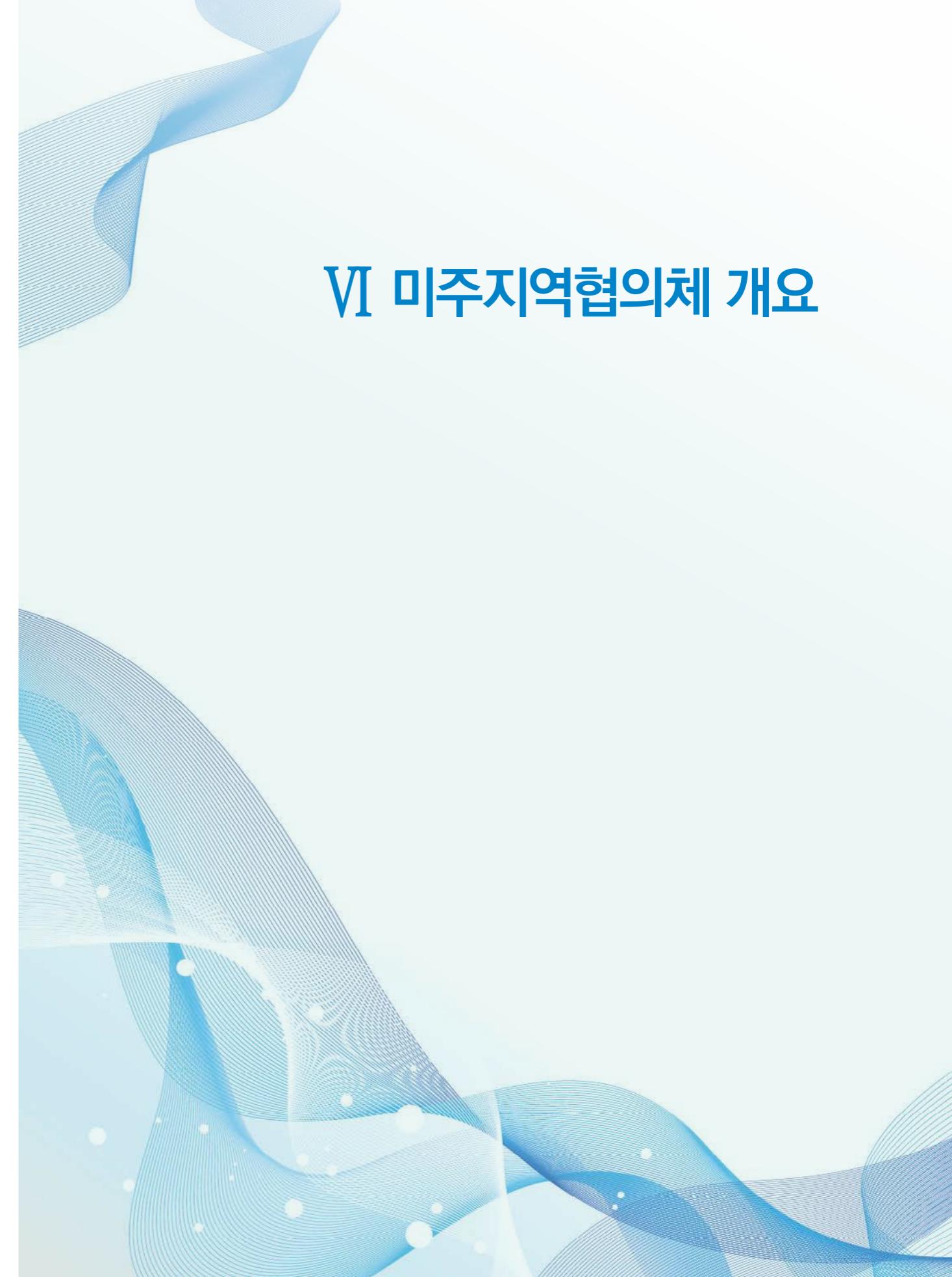
포스코아메리카와 인연이 깊은 Fisher House(Augusta, GA 소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면회금지가 되어있는 보훈처병원의 참전용사를 영상기증식을 가지기

도 하였습니다. 작년 코로나-19 초기 당시 면회금지 소식을 접한 포스코아메리카에서 보훈처병원에 기증한 영상 면회시스템으로 더욱더 뜻 깊은 기증식이였습니다. 현재까지 보훈처병원에선 면회금지로 곁에서 임종을 지키지 못하는 가족들을 위해 영상으로 연결고리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외 아주 특별한 만남도 있었습니다. 흥남 철수 작전 메리디스 빅토리호 유일한 생존성원 세분중에 두분 (Burley Smith, Merl Smith)가 연락이 닿았던 것이었습니다. Burley Smith와 그의 부인인 Barbara Hacker과 만나 당시에 혹독한 추위와 피난민을 위해 펼쳐졌던 기적적인 작전을 생생하게 이야기 해주시며 비극적인 한국전중에서도 희망을 잊지 않고 침착하게 질서를 지켜준 한국인들 모습때문에 작전이 성공적이였다며 극찬을 하셨습니다. 여전히 한국과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며 포스코와도 새로운 연을 맺은거 같다면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런 수많은 인연들과의 만남은 포스코아메리카 임직원들의 1%나눔금액으로 만들어진 포스코 스테인레스 액자를 통해 이루워졌으며 앞으로도 포스코아메리카에서는 나눔의 가치를 사회에 확산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VI 미주지역협의체 개요



미전역에는 뉴욕, 엘에이, 시애틀, 휴스턴, 디트로이트, 아틀란타 등 주요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뉴욕), 한국상사지사협의회(KITA, 엘에이), 서북미한국지상사협회(KTAPN, 시애틀), 휴스턴한국지상사협회(KCAH, 휴스턴), 미시간 한국지상사협회(KCAM, 디트로이트), 조지아한국지상사협회(KCCIG, 애틀랜타) 등 5개 지역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으며, 이들 지역 협의체간 MOU 체결을 통해 대외적인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미주지역 협의체 구성을 계획하여 진행 중이다.

각 지역별 협회 소개

(1) 미국 내 한국지상사협회 소개

가.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 영문명 :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the USA, Inc.
- 설립연도 : 1992년 6월
- 회원사 : 총 114개사
- 소재지 : 뉴욕, 뉴욕주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은 90년대 초 세계 수출시장 여건 악화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미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대미 수출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무렵, 미국 내 한국계 기업 모두가 참여하는 기관을 설립하여 위상을 제고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과 무역증대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정부에 대한 통상관련 건의 및 교섭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1992년 6월 19일 설립되었다.

한편, KOCHAM은 미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미 정부와 의회에 알리고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미국사회에 한국을 알리는 활동 등 미국 내 활동뿐 아니라, 한국 사회 및 정부에도 미국 내 비즈니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정책적인 지원과 개선 사항을 요구하는 등 양국 정부를 상대로 민간차원의 로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나. 남가주한국기업협회

- 영문명 : Korean Investors & Traders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
- 설립연도 : 1996년 3월
- 회원사 : 총 122개사
- 소재지 : 엘에이, 캘리포니아주

남가주한국기업협회는 지난 1996년 3월 25일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회원 상호 간의 우의를 증진하고 사업 활동상의 유익한 정보를 교환함과 아울러 미주 교포사회를 포함한 미국사회와의 우호적인 협력을 통하여 한미간 통상증진 및 유대강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다. 미시간 한국지상사협회(KCAM)

- 영문명 : Korean Companies Association in Michigan
- 설립연도 : 1995년 4월
- 회원사 : 총 35개사
- 소재지 : 디트로이트, 미시간주

1995년 4월 1일에 설립된 미시간지상사협회는 한국 지상사로 파견된 주재원 및 미시간 소재의 지상사 협회에 발전에 도움을 주는 개인과 기업이 참여하여 상호 유대와 친목을 도모, 이를 통한 회원(사)간의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이다.

라. 휴스턴 한국지상사협의회(KCAH)

- 영문명 : Korean Company Association of Houston
- 회원사 : 총 45개사
- 소재지 : 휴스턴, 텍사스주

휴스턴 및 텍사스 지역의 한국 지상사 및 금융기관들의 모임으로서 회원사들은 주로 오일 및 가스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회원사 간의 친목 도모 및 각종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하면서 회원사들의 각종 권익 향상에 이바지 하고 있다.

바. 서북미 한국지상사협회(KTAPN)

- 영문명 : Korea Trader's Association of Pacific Northwest
- 설립연도 : 1980년 10월
- 회원사 : 총 8개사
- 소재지 : 시애틀, 워싱턴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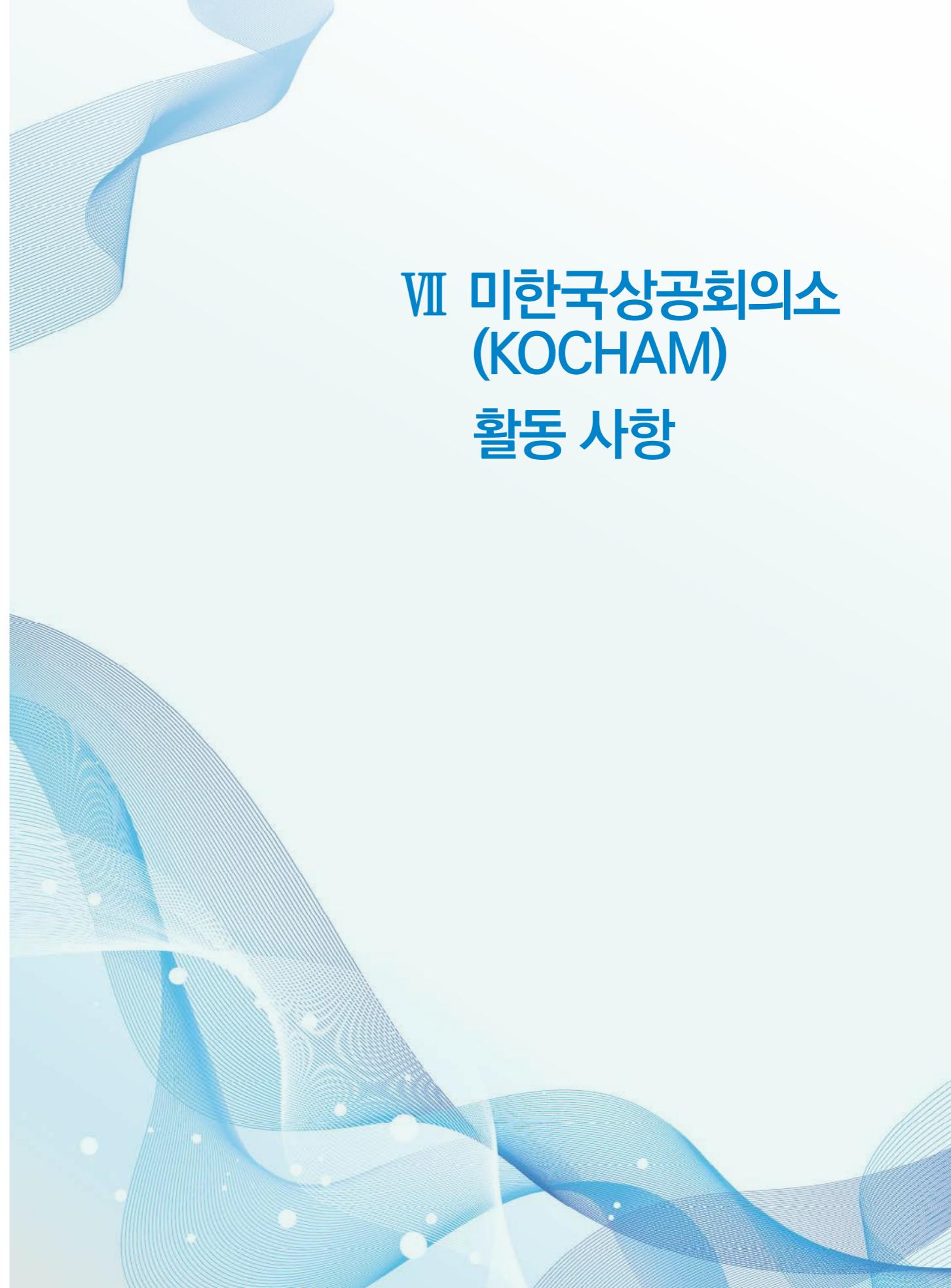
1980년 10월에 설립된 협회로서 서북미 5개주(WA, OR, AK, ID, MT) 지역에 설립된 지사, 상사, 현지법인 또는 사무소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 교환과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한미 양국의 교류 및 무역진흥에 적극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마. 조지아 한국지상사협회(KCCIG)

- 영문명 :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Georgia
- 회원사 : 총 39개사
- 소재지 : 애틀랜타, 조지아주

한국에 본사를 둔 한국계 회사의 주재원으로 애틀랜타에 주재하는 직원을 회원으로 한 단체로, 미국 경제, 정치, 사회 등의 정보 교환과 주재원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공식 모임 외에 타지역 주재원, 정부 관계자와의 미팅과 기타 경제 세미나 등의 참석 등을 통해 각 회원사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영업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VII 미한국상공회의소
(KOCHAM)
활동 사항

한미 통상 및 회원사 애로사항 개선 활동 전개

한미 양국 간의 밀접한 상호관계를 유지하여 무역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워싱턴 방문단을 구성해 미 정부당국과 의회 등을 방문하여 민간 외교 활동을 펼쳐왔으나 2020년은 COVID-19로 인해 활동에 대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KOCHAM 회원사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상황 자료와 함께 KOCHAM 김광수 회장 명의 서한을 백안관 고위 관리에게 발송하였습니다.



회원사 정보 제공 및 서비스 확충 활동 전개

한미 양국 간 통상 현안을 비롯해 경제, 정치, 사회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오고 있으며,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여 회원사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원사간 비즈니스 네트워킹 및 협력 강화 활동 전개

회원사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정보 교환을 위해 매년 연례체육대회, 네트워킹 데이와 연례만찬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를 통해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인사회 협력 활동

지역 동포 사회 행사에 적-간접적으로 지원 및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례 코리안 퍼레이드에 꽃차 참여를 필두로 한인회관 기금 지원, 기타 각종 행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인 동포사회 지원 차원에서 동포 대학생들을 회원사인 지상사들과 금융기관에 배치하는 여름 인턴쉽 프로그램은 매년 다양한 한국 기업들과 동포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한국학교 운영

KOCHAM 부설 우리한국학교는 부모와 함께 미국에 체류 중인 회원사 주재원 자녀들이 귀국할 경우 본국의 교육과정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의 정규 과정과 연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교육과정과 검증된 교사진을 바탕으로 한인 인재양성의 밑거름이 되도록 앞장서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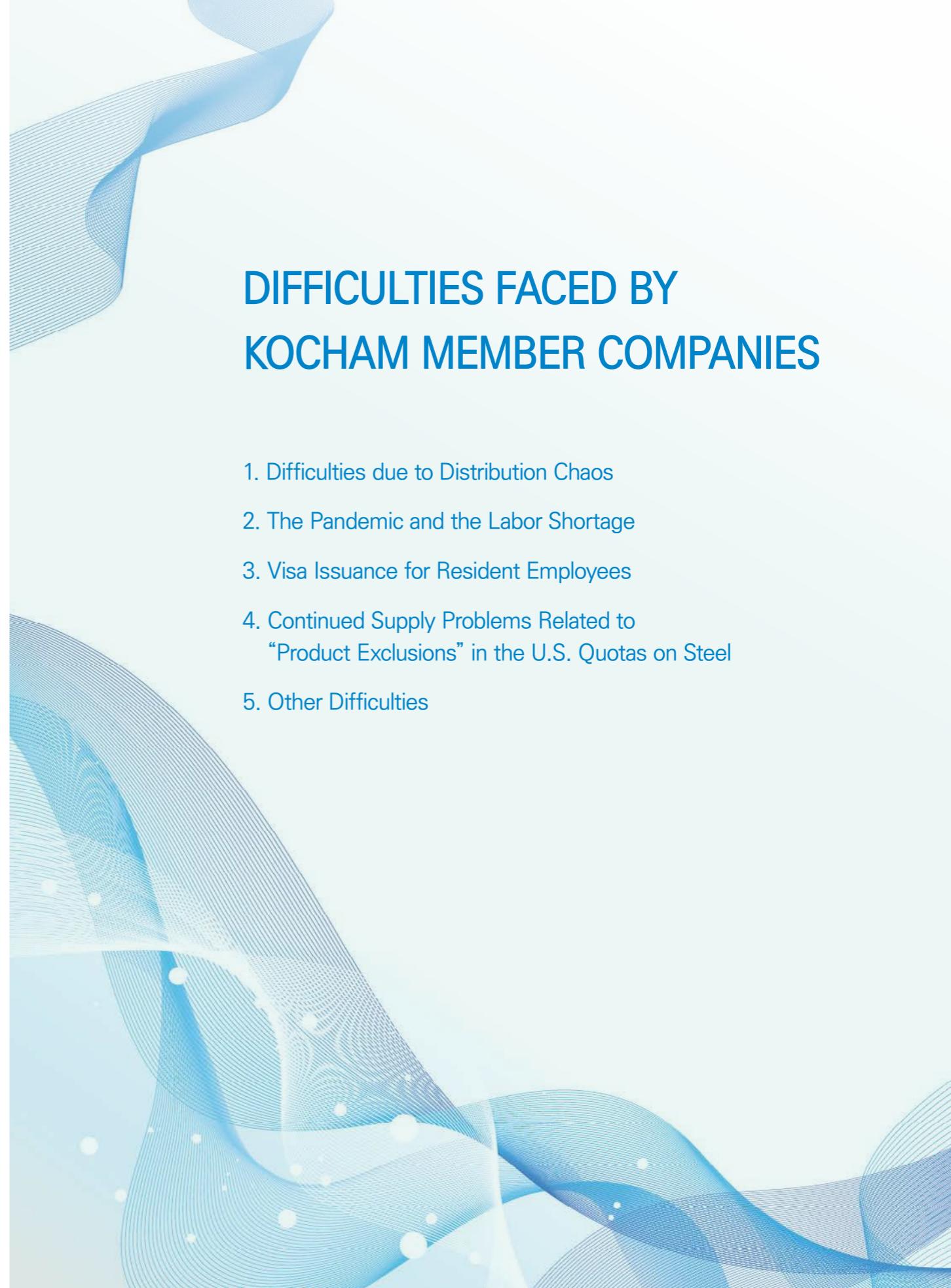


2021-2022 WHITE PAPER ON TRADE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the USA, Inc.



KOCHAM
미한국상공회의소



DIFFICULTIES FACED BY KOCHAM MEMBER COMPANIES

1. Difficulties due to Distribution Chaos
2. The Pandemic and the Labor Shortage
3. Visa Issuance for Resident Employees
4. Continued Supply Problems Related to
“Product Exclusions” in the U.S. Quotas on Steel
5. Other Difficulties

More than any other year, 2021 was a difficult year in which Korean companies doing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faced significant challenges.

Companies faced difficulties with the economy contracting due to the pandemic, and are experiencing significant difficulties particularly due to distribution and supply chain problems. Moreover, although demand has increased significantly as the economy recovered with the passage of time, companies face challenges retaining employees or hiring new ones due to a U.S. labor market that has tightened due to concerns about coronavirus infection. Making matters doubly and triply worse is that some member companies have also been experiencing resident employee visa problems.

In particular, with everyone on edge recently due to concerns about the spread of the new variant that first emerged in southern Africa, there is widespread uncertainty regarding the timing as 2022 begins.

1. Difficulties due to Distribution Chaos

(1) BACKGROUND

First, the causes of the distribution chaos were mitigated by increased vaccination rates in the U.S. in 2021, and economic recovery was fueled by the Biden Administration's various stimulus and relief packages including cash payments made to U.S. households. The economic recovery was also due to a sudden increase in demand, which had stalled due to the pandemic.

However, although export countries such as China and Vietnam responded effectively during the early days of the pandemic, restrictions and shutdown orders were issued as new

variants such as the delta variant began to spread, resulting stoppages or significant cutbacks in production at export factories in these Asian countries.

That is, supply could not keep up with the increase in demand in the U.S. and elsewhere. Even when cargo ships were being operated, loading and unloading facilities and operations at Long Beach and Los Angeles ports could not keep up, and a situation arose where more than 70 cargo ships had to be anchored off the coast waiting to unload cargo. Such supply chain problems are of course showing signs of gradually improving as of December 2021, experts are predicting that the supply chain problems will not be fully alleviated in 2022.

(2) LOSSES INCURRED BY KOREAN COMPANIES

Losses were exacerbated for Korean companies doing business in the U.S. that receive imports and raw materials through the Pacific route, as was the case for other U.S. companies with suppliers in Asia.

In short, in a situation where companies continued to wait for imported supplies, tardiness increased to longer than twice the usual delays. In addition to freight shipping from Asia not being easy, unloading facilities and manpower are unable to handle the freight, and despite backlogs operations have not been running 24 hours a day. Even when shipments do manage to arrive at U.S. ports, there is a great shortage of drivers who transport the shipments to various areas in the U.S. due to pandemic fears. This was the case not just for ports but also for air freight operations, and distribution and transport delays continued to occur as well in trucking due to a shortage of manpower and drivers.

In this situation, shipping charges surged and the cost burden for Korean companies naturally increased, with freight transport being delayed across the U.S. As a result, supply costs have gone up, and businesses are being pressured by customers and incurring losses as products are not being delivered to customers on time.

Of course, as port backlogs and delays in freight transport to the U.S. worsened, President Biden ordered 24/7 operations at key ports, there is a severe shortage not only of longshoremen but also truck drivers for inland transport of raw materials and imports in the U.S., which means that in reality the ports are unable to operate 24/7 properly. Experts said

that as of the second half of 2021, there is a shortage of 80,000 truck drivers.

According to Korean companies that operate in the U.S., there is even a shortage of intermediate equipment (chassis) used to store or move containers that cannot enter, in addition to overflowing port terminals and shortages of terminal manpower and truck drivers.

Some Korean companies have said that, as a result of increased costs due to the sharp rise in ocean freight, some of their products are being squeezed out from a cost and delivery standpoint in competition with North American manufacturers.

Also, with Korean companies using LA and Long Beach ports for 70% of their import volume coming in from the west, the backlog situation is such that, since the pandemic started, it is taking over a month for shipments to be unloaded even after arriving at the port, compared to the normal period of about 10 days after arriving in LA from Korea. Given the situation, some Korean food companies are concerned that business contracts may be canceled due to problems getting supplies delivered to large retail chains such as Costco and Walmart. That is, they are saying that solving the port backlog situation is the first priority.

In particular, until the end of 2017 cooperation it was possible, when problems arise, for cooperation among Korean shipping companies Hyundai Merchant Marine/CUT, Hanjin/TTI, and SM Line/PierA because they have ownership or shares in U.S. terminals, but such influence was lost after Hanjin Shipping's bankruptcy and the companies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taking cargo out.

Naturally, with delays in taking out cargo, transport cost increases due to demurrage charges, additional trucking wait fees, and detention fees due to delayed return of containers are weakening the price competitiveness of global Korean brands, according to an officer at a U.S. subsidiary of a major Korean corporation.

(3) IMPROVEMENTS TO BE REQUESTED

Korean companies operating in the U.S. are requesting, as a priority over the short term, that the shortage of freight handling capacity at port terminals be alleviated quickly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increases in import cargo.

Although the Biden Administration ordered 24-hour operations at key U.S. ports including the west coast ports in order to alleviate the backlog situation, a 24-hour operations system can achieve the desired results only if the loading and unloading and transport operations are also fully up and running, but such a connected system is still not operational. In relation to this problem, Korean companies are emphasizing that an operations system to shorten the distribution processing time, particularly additional manpower, is desperately needed.

Also, in the long term, the situation calls for overall improvement of the distribution infrastructure, including solving the shortage of freight trucks and drivers, which has been an issue since before the pandemic.

Of course, the companies point out, measures to secure terminal ownership or equity participation by Korean shipping companies are needed to improve the difficult situations faced by companies importing products into the U.S.

2. The Pandemic and the Labor Shortage

With pandemic vaccinations gradually expanding and the economy recovering swiftly during the second half of 2020, companies that need to rehire personnel that were unavoidably reduced are facing difficulties doing so. This is because workers are not actively seeking re-employment due to concerns about being infected, even though demand for labor has increased.

As a result, companies are facing difficulties due to cost increases as they seek to revitalize or step up recruiting efforts by providing wage increases and various employee benefits.

(1) BACKGROUND AND RECRUITING DIFFICULTIES

After the outbreak of the pandemic in March 2020 and the period of lockdowns and economic stagnation continuing for 3-4 months, employees began leaving, willingly and not, as employees were not needed from the standpoint of the companies.

Of course, some Korean companies that have retained employees by utilizing the federal 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but many companies have had to let go of employees.

In this situation, many employees stayed home without working while receiving federal unemployment

benefits, although amounts vary. Many companies switched to a work-from-home system for employees who continued to work.

With COVID-19 vaccination rates increasing in the U.S. and people receiving economic relief cash assistance from the federal government, the economy started recovering as purchasing power grew. As a result, starting in September 2021, companies began rehiring employees in order to respond to the surge in spending and the fast pace of economic recovery.

The demand for labor expanded and companies started hiring employees again. With regard to the hiring figures, a staff member at CESNA Group, which provides services to KOCHAM members, said that hiring numbers, when the number of hires planned for last year and additional hires needed in 2021 are taken together, the need for additional hires as of the second half of 2021 is as much as 2-3 times previous numbers depending on the industry.

For example, the demand for labor greatly increased for companies in the distribution industry, and there is also a great need for workers in finance and accounting, according to the staff member.

With labor supply lacking relative to demand, the cost burden for companies are increasing because higher wages and benefits must be provided when hiring new employees. Moreover, companies are also facing difficulties because many existing employees are moving to other companies that offer better benefits.

Recently, in particular, there are many employees who receive, willingly or not, several job offers not just from other Korean companies but also from U.S. companies (as the status of Korean companies rise and growing recognition of the higher quality of labor), and there are more than a few cases where employees move to American companies because they offer not only better working environments, but also relatively better pay and benefits, said a staff member at HRCap, a KOCHAM member company that provides related services.

The staff member added that not only can workers compare a company's vision, working environment, wages, and benefits and easily change jobs, but many workers now readily change jobs within 1-2 years, whereas the period of employment at one company used to be at least 2-3 years.

Secondly, the potential supply of young workers from Korea through H1-B is also in a difficult situation. Before the pandemic, internship opportunities were available for young people through OPT after graduation from U.S. undergraduate or graduate programs, where they could start work as a first-level employee upon approval of an H1-B application.

However, students who graduated in May or December of 2021 returned to Korea in many cases due to the pandemic.

By region, although the situation is difficult for H-1B applications in the Northeastern U.S., the situation was relatively more favorable in the Midwest region, there was a decreasing

tendency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to come back to the U.S. from Korea to seek employment.

(2) OUTLOOK AND REQUESTS

Currently companies are finding it very difficult to hire workers, but with a shortage of labor and companies raising wages and providing various benefits, competition for workers is fierce.

The problem is that it appears that the labor shortage will continue, if not worsen even further, at least through the first half of next year. Experts explain that employees are comparing work environments at other companies even after joining a company, and that there is significant potential for mobility among current employees.

Therefore, Korean companies, while understanding that it will be difficult for this problem to be solved in the short term, are first hoping for a tax reform by the U.S. government, i.e. corporate tax cuts, to ameliorate the deterioration in profitability due to the burden of employment costs.

Second, the companies hope that the Korean government will establish new support and assistance programs so that internships for outstanding young workers from Korea can be expanded.

Lastly, the companies are additionally asking for programs, systems, or opportunities where recruitment information can be readily exchanged between companies that are hiring with potential candidates who are looking for employment.

3. Visa Issuance for Resident Employees

One of the biggest difficulties brought on by the pandemic that Korean companies operating in the U.S. face is the issue of hiring workers.

For the companies' standpoint, the labor pool has shrunk considerably, and it is also a difficult situation because existing personnel are being recruited by the competition. There is also increasing demand for higher wages.

(1) DIFFICULTIES

Even when efforts are made, in order to supplement such shortage of labor, to hire college graduates or international students from Korea who are fluent in Korean given the nature of the work, it is very difficult to obtain H-1B visas for professional workers.

Currently L-1 visas for resident employees are the most difficult to obtain.

Of course, the processing of resident employees that was suspended in 2020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resumed in 2021 after the Biden Administration took charge, U.S. Embassy interview scheduling is being delayed by a month or a month and a half in some cases due to document reviews and procedures that are just as strict as before, resulting in many instances where the timeframe of personnel changes between the head office in Korea and the U.S. subsidiary is unavoidably delayed or suspended.

In the case of L-1 visas, a problem that remains unresolved for a long time is the discrepancy between the period of validity indicated by the visa stamp and the period of stay in the U.S. Generally, L-1 visas are initially issued by the U.S. Embassy stamped with a 5-year period of validity, but for a resident employee the period of stay in the U.S. is 3 years. Therefore, after 3 years a resident employee must prepare and submit an L-1 extension petition to USCIS. Filing a petition for extension is not a simple process, and the petition is

denied in some cases.

If the petition for L-1 extension is denied, the resident employee must return to Korea, which creates a situation in Korea where suddenly a new resident employee must be sent.

Therefore, the L-1 extension petition process must be handled more expeditiously, or there must be a process through which action can be taken in the event a petition is denied. Korean companies operating in the U.S. are also asking that even first-time L-1 visa applications be processed more quickly.

In particular, issuance of L-1 resident employee visas is not being handled smoothly. Previously it was possible for resident employee visas to be issued in 1-2 months, but now it is taking 3-6 months. Also, document review requirements remain strict, and it seems unlikely that the processing time can be shortened anytime soon.

(2) REQUEST FOR IMPROVEMENT

Therefore, a process is necessary where the head office or the local subsidiary can respond in the event a visa extension is denied.

And companies are asking that, in the case of companies that are already operating in the U.S., visas be issued through a simplified process for such companies taking into account past visa approvals.

In particular, Korean companies are hoping that, like Australia, Singapore, and Chile, countries that have free trade agreements with the U.S. for which E-3 and H1B1 visa quotas for their citizens were approved, issuance of “Korean professional employment visas” for Koreans based on a yearly quota would be approved. An E-3 visa that applies only to Australian citizens was newly established, and in the case of Chile and Singapore, pursuant to their free trade agreements with the U.S., have dedicated H-1B visa quotas of 1,400 for Chile and 5,400 for Singapore, respectively, which are subtracted from the worldwide quota of 65,000 and separately dedicated to the citizens of these countries for priority approval of H-1B visas.

Although Korean companies have been pleading for many years, since the (KORUS) FTA went into effect on March 15, 2012, for approval of this “Korean professional employment visa”, it has not come to fruition in the U.S. Congress.

4. Continued Supply Problems Related to “Product Exclusions” in the U.S. Quotas on Steel

On a broad scale, Europe and the U.S., similar to Korea, lifted retaliatory tariffs and reached an agreement on eliminating tariffs on steel and aluminum starting in January 2022. As a result, Europe is now able to export 2.3 million tons (75% of the past export volume) of steel annually into the U.S. duty free.

Korea is already exporting 2.63 million tons (70% of the past export volume) annually to the U.S. However, although “product exclusions” that can be imported in addition to this volume have been approved and are currently in effect, companies continue to face difficulties, as explained in KOCHAM’s 2020 white paper.

(1) BACKGROUND

Although “product exclusions” that can be imported into the U.S. above the steel quota were approved for Korea, if volumes approved under such exclusion is imported/customs-cleared into the U.S., the applicable volume reduces Korea’s remaining yearly quota, meaning that Korea is not properly benefiting from product exclusions.

The bottom line is that, as an application for a “product exclusion” poses difficulties because it must be renewed each year, volumes approved for exclusion need to be managed separately from Korea’s annual quota. That is, Korean companies currently continue to be in a situation where it is difficult to deliver products to importers in the U.S. in a timely manner, as “product exclusions” can only be applied starting in October after the quota for Korea has been filled.

Looking at the background, the U.S. government on March 26, 2018 announced that Korea and some countries other than China and Japan will be exempted from the 25% tariff

on steel under section 232, which the Korean government accepted. However, the U.S. government, while exempting Korean-made steel from the 25% tariff, limited the quota for the volume that Korean companies can export to the U.S. to 2.63 million tons (import quota), or 70% of the average export volume over the previous 3 years (2015-2017).

COMPARISON OF SECTION 232 AGREEMENTS FOR EU AND KOREA

Category	US-EU Agreement	Korea-US Agreement
In-Quota Volume (Based on 2015-2017 Average)	3.3 million tons (75% level) * 2015 4.74 million, 2016 3.95 million, 2017 4.67 million tons	2.36 million tons (70% level) * 2015 4.4 million, 2016 3.46 million, 2017 3.41 million tons
Exclusion Items	Volume approved and used in 2021 (actual period Oct. 2020-Sept. 2021) automatically extended to 2023 - Yearly re-application not necessary * Volume imported from EU in 2021: 2.45 million tons (running total through Sept., U.S. statistic)	Must be renewed yearly based on approval date * Total volume of excluded products approved from 2018-2021: 1 million tons
Out of Quota	Import allowed: 25% tariff assessed	Import not allowed
Relationship Between In-Quota Volume and Exclusion Items	When excluded product volume is imported, In-Quota volume is not used up	When excluded product volume is imported, the volume is deducted from quota - Unavoidably eats into excluded products after 4th quarter volume is used up
Quarterly Quota	- Quarterly ratio not announced - Quarterly volume not spent carried over up to 4%	- Maximum 30% each quarter - Volume not spent cannot be carried over
Yearly Increase	To be increased/decreased by 3% under certain conditions	Not possible
Country of Origin	Based on crude steel in EU (Melted & Poured)	To be determined at discretion of customs authorities (Based on actual deformation)
Steel Grades	54	Same
Agreement Clause	Obligation to engage in talks when requested by EU	None

As a result, the absolute volume of steel currently being exported by Korean companies

to the U.S. has decreased significantly. That is, for Korea, which opted for a quota instead of a tariff on steel, the volume of export to the U.S. decreased even more than that of Japan and China, Korea's major competitors, which are being levied a 25% tariff. The reality is that opting for a quota has turned out instead to be a hardship in competing with Japan and China for exports to the U.S.

After U.S. companies importing steel and Korean companies exporting steel made repeated requests in response,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allowed the import of some additional items into the U.S. without subjecting them to the 70% export quota.

However, an even bigger problem is that, even if Korean companies export additional steel to the U.S. under this "exclusion", additional "excluded" steel can only be exported starting in October when the 70% yearly quota has been used up, and the Korean companies exporting steel continue to face difficulties as a result because they are unable to supply sufficient volumes to the U.S. Currently KOCHAM's member companies are POSCO, Seah Steel, POSCO International, Samsung C&T, Hanwha, and Hyundai Corporation.

(2) APPROVAL OF "PRODUCT EXCLUSION"

In August 2018, President Trump granted the steel tariff "exclusion" for Korea that the U.S. had not initially granted. With this exclusion, a path has opened up for steel items additionally approved by the Commerce Department to be exported to the U.S. without being subject to the 25% tariff or the 70% export quota(allocation).

That is, in addition to the steel quotas for Korea, Argentina, and Brazil, President Trump signed a declaration granting for selective exemptions depending on the U.S. industry situation. With the declaration, it will be possible for countries including Korea, Argentina, and Brazil, which accepted quotas in exchange for exemption from the 25% steel tariff, to receive tariff and quota exemptions on certain items through an application for exclusion. Such exclusions are items that cannot be produced in sufficient quantities and quality in the U.S., and the application must be made by a company in the U.S. for review and determination by the Department of Commerce. Consequently, in the case of Korea, items that have already reached their quotas such as steel pipes would benefit.

(3) DIFFICULTIES OF “PRODUCT EXCLUSION” AND OUTLOOK

Currently Korean steel companies are hoping that, although the Section 232 exclusion was granted by the U.S., a path will open up for the import of additional volumes into the U.S. regardless of whether the quota for the year/period has been reached. This would help not only to export Korean-made steel, particularly competitive steel items, but also to ensure that U.S. companies (manufacturers utilizing the items) remain competitive.

For Korean companies in the industry the additional volume that was granted can only be used in the 4th quarter after the yearly country quota has been reached; as such, their exports are being limited despite the fact that they are capable of supplying competitive, superior quality Korean-made steel materials that U.S. steel customers in the automotive, electrical, and electronic industries desire.

That is, under the yearly quota that was granted, additional steel can be exported to the U.S. starting in October, after a 30% maximum for the 1st quarter, a 30% maximum for the 2nd quarter, and a 30% maximum for the 3rd quarter have been reached, resulting in a situation where it is difficult to export the needed steel items to the U.S. in time to meet the demand.

High-quality steel materials for which an additional export volume has been granted refer to products required by concerned U.S. companies that cannot be produced in the U.S. or are difficult to substitute for another.

As a result, U.S. companies that import such products were found to be quite dissatisfied as well with Korean companies that are unable to supply sufficient volumes in time.

5. Other Difficulties

(1) COMMERCE DEPARTMENT’S DEMAND FOR INFORMATION ON COMPANY PARTS/FINISHED PRODUCTS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on the pretext of alleviating bottlenecks in the supply chain, sent to some large Korean companies 14 questions to be answered related to semiconductor chips that go into product parts or finished product items, including sales, production, inventory, and customers. This request was made, of course, to other foreign companies such as TSMC as well.

The intent of the Department of Commerce is to transparently verify supply and demand data between suppliers and buyers and correct where errors were made. However, while the department has said that submission of data is voluntary, it has also warned that companies that do not respond could be compelled to do so through the Defense Production Act.

Of course, Korean companies have reportedly submitted related data requested by the Department of Commerce. However, there is also concern about disclosure of sensitive information when information is submitted.

The Korean government, of course, has reportedly resolved some issues with the U.S. government regarding the level of sensitivity of information, but the federal government needs to carefully reconsider this type of request in the future because of the concerns that companies have about information leaks.

(2) EXPECTED LIMITS ON EXPORT OF KOREAN FISHERY PRODUCTS

The U.S. government will put into effect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MMPA) starting in 2023. As a result, exports of Korean fishery products to the U.S. are expected to face restrictions.

Because of this, exporting of fish caught by Korea's fixed shore nets (anchovies, etc.) and trawl nets to the U.S. will be restricted, and companies are expected to incur losses. The Korean government, of course, is formulating a response, but the situation also calls for close cooperation among relevant companies.

(3) REVIEW PERIOD FOR ISSUANCE OF LICENSE TO ACCESS MILITARY SUPPLIES DATA

In order for a resident employee working at a U.S. subsidiary to access technical data related to military supplies, a DSP-5 license, which is one of the licenses under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ITAR), issued by the Directorate of Defence Trade Controls (DDTC), is required, but it usually takes 8 months to a year for the license to be issued, which is disruptive to effective conduct of business.

Shortening the license review period to 1-2 months would minimize disruption to the conduct of busines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f Korean Companies Active in the U.S.

1. Samsung Electronics
2. POSCO America

1. Samsung Electronics



At Samsung Electronics, the ultimate objective is to create the best products and services built upon outstanding talent and technology, to contribute to human society.

As a member of the community, Samsung Electronics, under the CSR vision “Let’s Go Together into the Future! Enabling People”, runs a variety of educational programs across the globe so that youths, who are the generation of the future, can maximize their potential, providing support so that future generations can lead the way toward positive social change.

Also, under a green management philosophy of respecting nature and contributing to human life and conservation of the Earth’s environment, Samsung Electronics strives to provide eco-friendly value to the customer and to take the lead toward a sustainable future.

Samsung Solve for Tomorrow

Samsung Solve for Tomorrow, Samsung Electronics’ flagship educational program, is a creative contest challenging students in grades 6-12 across the U.S. to solve local issues using a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approach.

Samsung Solve for Tomorrow, which was launched in 2010 to address increasing educational inequality in the U.S. and the lack of STEM education among job applicants, instills teamwork and critical thinking in participating students and helps them to seek solutions to community issues facing future generations by gaining experience solving problems utilizing technology, in addition to developing human resources.

An expert mentoring group made up of Samsung Electronics employees and managers provide technical guidance throughout the program’s entire process. Since 2010 2,600 public schools in the U.S. have participated, and a total of \$20 million worth of IT equipment and educational materials have been provided.

In addition to this program, Samsung Electronics runs a variety of support and education programs for disadvantaged students in the U.S., including Samsung Innovation Campus, an IT education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Samsung Gives

Samsung Electronics America ran the “Samsung Gives” program, a volunteer and support program started in 2014 in which employees and managers participate, again this year. “Samsung Gives”, which is held over a month, is a program where Samsung Electronics America employees participate in various talent donation and volunteer activities for 1 week in cooperation with national and local charity organizations. This year, the program’s 11th, the program was conducted virtually for the safety of the employees and participants. The company’s employees and managers, who participated in a total of 150,000 hours of volunteer activities, have made contributions in communities in need through a variety of activities such as vocational training and solar charger building.

Environment

Samsung Electronics runs a variety of programs to minimize the environmental impact of products over their entire life cycles, from development to purchase, manufacture, distribution, use, and disposal, and the company has been recognized for eco-friendly packaging and waste electronic product recycling performance, being awarded the “2020 SMM (Sustainable Materials Management) Award” from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in the two categories.

Also, with all work sites in the U.S., Europe, and China achieving 100% conversion to renewable energy in 2020, the company was ranked 14th among 700 corporations participating in the “Green Power Partnership” sponsored by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in 2021, and received the “Distinguished Corporation Award”, a first for a foreign corporation, and the “Best in Sustainability Award”, the highest-level regular award, for the 8th time.

2. POSCO America



Recently, a resident of Georgia who was mourning the death of his father learned through a newspaper article that POSCO America visited the graves of Korean War veterans and presented appreciation plaques to the families, and he reached out to our company. Expressing his gratitude to POSCO America for regularly showing appreciation for Korean War veterans, Mr. Truelove conveyed the message that his father would have been very happy had he known about this before he passed away. Upon hearing Mr. Truelove's heartbreakingly news, POSCO America decided in 2021 to produce and present special one-of-a-kind stainless picture frames to Korean veterans and their families to preserve their legacy.

POSCO America selected 100 Korean War veterans in Georgia, Alabama, and Washington DC, where its offices are located, and in New York State where the company has relations, and initiated production of portrait frames. Obtaining photos of the veterans, most of whom are over 90 years old, posed some difficulties, and POSCO America took the trouble to visit the veterans in person to take their photos; the veterans were greatly moved that POSCO, a Korean company, would arrange heartfelt meetings with them even though 72 years have passed since the Korean War. The veterans highly praised the effort, one of them saying that the United States has fought a total of 12 wars, 8 of them for other countries, but Korea is the only country that continues to express gratitude.

For Carl Cooper, a reserve colonel who lives in Alabama, this year, a year in which he turned 101 years old, was a special one. However, he passed away 2 weeks before the scheduled presentation ceremony, and amid sadness his nephew, JDanny Cooper, received the frame in his uncle's behalf.

At Fisher House (located in Augusta, GA), a veterans hospital which has deep ties with POSCO America, a virtual presentation ceremony was held for war veterans for whom visitations were not allowed due to COVID-19. It was a particularly meaningful presentation

ceremony conducted through the video visit system which POSCO America, after learning of the visitation ban when the COVID-19 outbreak started last year, donated to the veterans hospital. The system has served as a connecting link for families who are unable to be at the deathbed of their loved ones due to visitation restrictions at the hospital.

There was also a very special meeting as well. We were able to get in touch with Berley Smith and Merl Smith, who are two of the only three surviving crew members of the Meredith Victory during the Hungnam evacuation. When we met Burley Smith with his wife Barbara Hacker, Mr. Smith spoke in detail about the severely cold weather at the time and the miraculous operation that was carried out for the refugees, and spoke highly of the Koreans who behaved calmly in an orderly manner without losing hope in the midst of the tragic war, saying that the operation was successful because of them. Mr. Smith, who continues to maintain his precious ties with Korea, said he thinks he has made new connections with POSCO.

The making of so many connections was made possible through POSCO's stainless steel frames which were produced using the "1% Sharing Fund" from POSCO employees and managers. POSCO intends to spread the value of sharing throughout society to contribute to making the world a better place.



About consultative Korean Chambers in the U.S.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there are six(6) regional Korean Chamber of Commerce in major cities such as New York, Los Angeles, Seattle, Houston, Detroit and Atlanta. In each region, Korean Chamber has different names as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the USA(KOCHAM) in New York, Korean Investors & Traders Association of California(KITA) in Los Angeles, Korea Trader's Association of Pacific Northwest(KTAPN) in Seattle, Korean Company Association of Houston(KCAH) in Houston, Korean Companies Association in Michigan(KCAM) in Detroit,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Georgia(KCCIG) in Atlanta.

Currently, with strong correlation and mutual benefits among the regional Korean Chambers, we are discussing to form the Consultative Korean Chambers in the USA establishing cooperative relationship through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bout Regional Korean Chambers

(1)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USA (KOCHAM)

- Establishment: June, 1992
- Number of Members: 114 companies
- Location: New York, New York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USA(KOCHAM) is a non-profit organization founded in June of 1992, has grown to include more than 100 US-based Korean companies involved in various industries such as import-export, banking, transportation, securities, insurance and construction whose headquarters are in Korea.

Its mission is to fulfill a multi-faceted role and support our members to raise their management skills. In addition, we are also active in the development of corporate diplomacy initiatives to build greater awareness and goodwill between the people and the business communities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addition, KOCHAM is also dedicated to build closer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U.S. enterprises.

(2) Korean Investors & Traders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KITA)

- Establishment: March, 1996
- Number of Members: 121 companies
- Location: Los Angeles, California

Korean Investors & Traders Association of California(KITA) is a nonprofit organization established on March 25th, 1996. KITA have promoted to strengthening the friendship among member companies by providing and exchanging information in conducting business activities. Its mission to better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networking opportunities and encouraging members of KITA to become more involved in their local communities has been a success. KITA is now an integral part of California's economy and will strive to contribute even more to said economy.

(3) Korean Companies Association in Michigan(KCAM)

- Establishment: April, 1995
- Number of Members: 53 companies
- Location: Detroit, Michigan

Korean Companies Association in Michigan(KCAM) established on April 1st, 1995 is a private organization among individuals and companies in Michigan which have mutual

interests and benefit to promote network opportunities and extend cooperation among the member companies.

(4) Korean Companies Association of Houston(KCAH)

- Number of Members: 45 companies
- Location: Houston, Texas

Korean Companies Association of Houston(KCAH) is a meeting group of about 44 Korean business and financial institutions in Houston area. Its mission is to providing valuable information and extends network opportunities among the member companies.

(5)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Georgia(KCCIG)

- Number of Members: 39 companies
- Location: Atlanta, Georgia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Georgia(KCCIG) is an organization whose members are mainly employees of Korean companies with its HQ in Korea. KCCIG holds General meetings four(4) times a year and Board of Director meetings twice a year in order to provide an opportunities to enhance networks among member companies. In addition, KCCIG also provide to support members to develop the leadership and management skills through holding seminars dealing with diverse economic/business topics, networking events and other cultural and educational activities.

(6) Korea Trader's Association of Pacific Northwest(KTAPN)

- Establishment: October, 1980
- Number of Members: 8 Companies
- Location: Seattle, Washington

Korea Trader's Association of Pacific Northwest(KTAPN) is a private association established on October, 1980 among the Korean companies in Northwest regions(WA, OR, AK, ID, MT). Since its establishment, KTAPN has promoted friendship and communication among members by providing information and corporate diplomacy initiatives to build greater awareness and goodwill between the people and the business communities of Korean and the US.

Activities of KOCHAM

Requesting U.S. Government and its agencies to improve the business difficulties that our members encountered while conducting business in the USA.

KOCHAM has been helping members cope with and resolve the inevitable problems of doing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by meeting with Congressional leaders in Washington DC.



Encouraging and facilitating socializing and connecting between its members, governmental agencies, and media representatives

KOCHAM host several annual events, such as Annual Golf Tournament and Dinner Party, to encourage and facilitate socializing and connecting between its members, governmental agencies and media representatives.



Contributing to active bilateral exchange in science, technology and culture, and to build closer ties between Korean and U.S. firms

KOCHAM provides valuable direct services to our constituents by holding monthly seminars dealing with diverse economic/business topics, networking events, and other cultural and educational activities in order to support members to develop the leadership and management skills.



Provides resources for Korean American Community through several means

KOCHAM has provided an annual Summer Internship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of second generation Koreans in the community in order to foster close cooperation within the Korean community. In addition, KOCHAM has been supported The Korean Parade, an annual tradition, offering New Yorkers the opportunity to observe and share the culture of Korea, each year.



Operating the weekend Korean School program that designed to prepare Korean-American children planning to visit or return to Korea

This weekend program is designed to meet the educational needs of our members' children as well as their Korean-American peers. In particular, through this program, children are prepared to successfully adapt to the Korean educational system in the event they visit or return to Korea.



발행일 2022년 1월

발행인 미한국상공회의소

책임편집 KOCHAM 통상분과위원회 / 출판분과위원회

인쇄 인쇄디자인꼼 (ggom1403@gmail.com)

※ 이 책자의 판권 및 지적소유권에 관한 모든 권리는 KOCHAM이 소유합니다.

※ 본 책자는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